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금주의 법구

어느 곳에서나
주체가 된다면
선 곳이 다 참되다.
-임제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서점불서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61 구독문의 02-737-005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3월 1일 수요일(주간) 제 26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로 시작되는 고은 시인의 '편지'라는 시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현대인들에게 '편지 쓰기'는 마치 아스라이 떠오르는 향수처럼 사라지는 풍속도로 여겨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E메일이 출현하면서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정성을 담은 편지가 이제는 봉투도 우표도 없는 전자우편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 그것도 쓰기 쉽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보내는 즉시 받아보는 신속성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평균 2개의 E메일 주소를 갖고 있으며 하루 평균 한통 안팎의 E메일을 보낸다는 집계도 나왔다. 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번으로 수천~수만통의 E메일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가공할만한 큰 힘을 갖게된 것이 E메일이다.

E메일은 개인적인 사연 전송은 물론이고, 행정관청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도 여론수렴이나 민원접수와 처리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E메일 주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지침을 세워놓은 정도이다.

바른 글쓰기 등 E메일 에티켓 준수

그런데 이 편리한 E메일 이용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편지쓰기를 배울때도 기본 예절을 익혔듯이 E메일도 에티켓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어법이나 철자법을 무시하는 내용을 예사로 생각하는 습관은 금물이라는 것. E메일 수신자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스님은 "무슨 얘긴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맞춤법이 황당한 E메일을 받으면 답답하다"면서 좋은 E메일 쓰기는 간단 명료함을 전제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제시한다.

특히 불자들도 관심을 보일만한 업체에서 무작위적으로 보내는 광고용 E메일에는 짜증이 난다고 호소한다. 쓸모없는 E메일을 열어보고 정리하느라 드는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피해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위영란 기자(yryu@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국군불교 총신도회' 결성

불교회관 건립-군불자 인명록 작성 등 군정토화 추진

초대회장에 이종욱 중장

육·해·공군 불자회의 결집체인 국군불교총신도회가 결성됐다. 이에따라 불교에 관심을 가져왔던 군장병에게 부처님 말씀과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군불교총신도회(Military Buddhist combined Association of Koera, M.B.A.K)는 2월 25일 서울용산동 국방회관에서 500여명의 군장병 및 예비역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 경축대법회를 봉행하고 공식출범을 알렸다. 초대회장에는 이종욱 중장이 추대됐다. <인터뷰 4면>

국군불교총신도회는 군불자들의 신앙심 배양을 위한 규칙적인 기도생활, 불경공부, 친교활동을 활성화하고, 군정토화 사업을 위해 군포교 유관기관인 조계종 포교원, 사찰과의 협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효과적인 회원관리를 위해서 신도교적 관리 및 신도증 발급을 추진하고, 극체제장교불자회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세계포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총신도회 본부로 사용할 불교회관 건립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현역·예비역 장병을 모두 포함하는 군불자 인명록 작성작업을 이른 시일내에 착수할 계획이며, 매년 5명의 모범군불자를 선발해 국내외 성지순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1년 내에 각 군불교신도회와 예하 부대별로 산재해 있는 신도회를 국군불교총신도회의 하부조직으로 흡수, 지구회-지회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 2년 내에 전군의 신자교적을 전산화한다. 전산화가 되면 군 장병불자의 이동사항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져서 신자 육성 및 관리가 보다 손쉽게 이루워진다.

이와함께 군장병 포교와 신심 함양을 위해서 국군불자연합수련회도 개최한다. 신도회 결성을 계기로 조계종 포교원은 신도회와 연계해 군종병 수련회도 추진하고 있다. 포교원은 국군불자연합수련회와 장교불자회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각 1천만원씩의 예산을 모두 총신도회에 몰리기로 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국군불교총신도회가 2월 25일 결성됨에 따라 타종교에 비해 취약했던 군불교 포교 및 신행활동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군불교진흥회 신임회장 정각스님 취임식



군불교진흥회 제2대 회장 정각스님(법륜종 종정·사진) 취임식이 2월25일 국방회관에서 봉행됐다.

정각스님은 취임사에서 "방생 중 으뜸은 인간방생이고, 불사 중 으뜸은 인재불사"라며 "앞으로 군불교진흥회는 종단 종파를 초월하는 통불교적 입장에서 군포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은 수국사 주지 자용스님, 부회장은 한규만씨가 각각 선출됐다. 총재에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스님, 부총재에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일승종 혜정 총무원장 등이 위촉됐다.

강지연 기자

조계종 등 조불련과 북경회동

8~16일 사이…초파일 공동법회 등 논의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의 대북불교교류 담당자들은 23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제안한 북경회동에 대해 논의하고 조불련과의 회동 일정을 8~16일 사이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불련이 요청한 조불련-각 종단간 별도의 회동은 수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모임에서는 또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도 공동법회와 남북불교 학술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조불련측에 확실한 개최 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종단협의회와 각 종단은 두 행사 모두 주최는 종단협의회, 주관은 민족화합불교추진위에서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2월 19일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진각종 경불협에 팩스를 보내 3월 8~15일 북경 해당화식당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3·1정신 받들어 그날처럼 하나되자"

종교인 333인 선언문 공개

3월 1일 온겨레손잡기운동 본행사장에서 남독될 '화해와 평화를 향한 종교인 333인 선언문'이 최종 확정됐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온겨레손잡기 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는 2월 21일 본문과 우리의 다짐으로 구성된 선언문을 공개했다.

7개 종교를 대표한 종교인 333명은 선언문에서 "오늘 이 땅의 총체적인 시련은 종교인들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하고 "3·1정신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 날처럼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다.

종교인들은 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솔선수범 △고통받는 동포와 이웃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겠으며 △인류와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의 새 세상을 이루고자 합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운 기자

참여연대 '문화재 관람료' 반환소송

조계종, 적극 대처키로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 준비 및 토론회 개최와 관련, 조계종은 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사찰과 스님들은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지켜온 주체이며, 전체 국립공원 지역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찰 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소송과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주중(날짜 미정) 관람료사찰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조용연 간사는 2월 23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신흥사와 조계종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인과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송 제기에 앞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일괄징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7일 서울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연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가 '문화재관람료 일괄징수의 타당성 검토', 녹색연합 백두대간팀장 서재철씨가 '국립공원 관리의 제문제와 개선방향'으로 주제발제를 하고, 4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조계종, 환경부 자연공원과 정의경 사무관, YMCA 시민중계실 김종남 간사, 우이령보존협회 이수용 회장이 나선다.

조계종에서 나설 토론자는 아직 미정이며, 조계종은 토론회를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푸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승가대 이전-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문화부, 불교계 대정부 요구사항 답변

문화관광부 김순길 종무실장은 2월 21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종무실장은 중앙승가대 이전을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사학진흥재단 기금 60억원을 융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형편상 어렵다며 서울·경기지역에 성보박물관을 지으면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광부는 또 문화재 보호를 위해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사찰 오·폐수 시설 설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이후 종교편향 인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정대스님은 또 "박물관을 크게 지으면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며 "총무원청사와 성보박물관 건립을 연계해 올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불기2544년 봉축 현수막

봉 등 접수 합니다. 축

▲ 규격: 55cm × 4m

봉 불기2544년 5월11일(음)4월8일 부처님오신날 ○○종○○사 축

▲ 규격: 90cm × 6m, 8m, 10m

■ 취급 품목 : 리본, 어깨띠, 세계불교기, 법륜기, 감사패 등

※ 태영산업은 자사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함으로 높은 품질과 신속한 납품이 보장됩니다. ※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사찰 연혁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텐스공사(올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꼭
끄시기 바랍니다.

"교구본사 중심 복지행정 필요"

조계종 복재재단 설립 5년 한일과 할 일

지난 2월 25일로 설립 5주년을 맞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5주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요구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불교복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불교계에 사회복지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을 전환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복지관만 13곳을 수탁받는 등 어린이 집과 청소년회관 등 현재 관리하는 시설만도 70여곳에 이를 정도로 양적 팽창을 통한 불교사회복지 토대를 마련했다. 또 불교정보지원센터를 열고 〈불교사회복지편람〉과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을 펴내는 등 불교사회복지 정보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 개념이 도입된지 불과 7~8년에 불과하고, 설립당시 불교계가 복지불모지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교계 복지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에는 복지의 개념이 '다가가는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변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구본사중심체계로의 전환이다. 이같은 필요성은 교계 복지관계자의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미금오사회복지관 김휘연 과장은 "종단의 복지체계가 교구본사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할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을 수탁자격요건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정서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중심이 아닌 현지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 복지관계자들 한결같은 견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재단의 불합리한 구조와 전문인력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 모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해도 종단 결재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개발과 양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별도법인임에도 종단에 예속된 현재의 구조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복지법인 불국토의 박용하 사무국장도 "현재와 같은 구조는 오히려 지방의 복지관련시설에 부담만 더해줄 뿐이다. 복지재단이 불교복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관 13곳 수탁 등 70여 시설 관리 '성과'

복지재단이 96년부터 추진해오다 유야무야된 승가복지문제도 마찬가지다.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 해성스님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스님들은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종단이 무성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변화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재단에 없다는 데 있다. 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불자들과 복지관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재단도 충분히 공감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결정권과 집행권이 없으니 현재로서 실현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종단의 결단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남북의 상처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1000일 정진 불교연대' 출범

운영위원장에 성태용교수



21개 통일관련 불교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이하 1000일정진연대)는 3월1일 오후 1시30분 1000일 정진 기도 입제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다.

1000일정진연대는 2월21일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운영위원장에 성태용 건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사진)를 선출하고, 입제식을 기해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뤄가지 위한 불자들의 용맹정진의 마당을 펼치기로 했다.

입제식은 공동발원문 낭독 및 헌공, 각 단체의 활동계획 발표, 발원 찬탄의 합창, 평화의 북소리 울리기 등으로 진행돼 불자들의 통일 열기를 모아낼 계획이다.

한편 100일정진연대는 '한마음 한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천주교와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과의 연대활동도 추진중이다.

김재경 기자



포교논문 공모 시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월22일 회의실에서 포교논문 공모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월호스님(쌍계사 교무)이 '그릇이론에 의한 정예불자교육'이라는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탄해스님(순천 흥륜사주지)이 '장애인 포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이흥섭씨(강원불교주간)가 '인물선양 불사를 통한 21세기 불교포교방안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포교원은 이번에 수상한 논문을 자료집으로 발간돼 각 사찰에 배포, 포교현장에서 사용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월호스님은 "그릇이론은 저마다 그릇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릇이 변화하는 단계를 체계화했다"며 "일반인들과 물자들이 선을 쉽게 실수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수행방법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대각회 "조계종 종지 종통 봉대"

이사회 정관개정 의결…조계종 "행정제재 풀기로"

대각회(이사장 도문)는 2월 21일 서울봉익동 대각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사장 도문, 상무이사 흥교스님 등 11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대각회는 정관을 개정, △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로 하고 △목적 조항에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봉대하고 △임원은 조계종 재적승려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산시 잔여 재산은 조계종에 등록한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사찰)에 기증한다고 규정했다. 대각회는 곧 문화관광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 흥교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뜻에서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각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조계종은 대각회 소속 스님들에게 행해졌던 승적증명서 등 각종 서류발급 및 행자교육원 입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계종에서는 대각회 소속 스님들이 조계종 승려이면서도 사찰은 조계종단이 아닌 재단법인 대각회에 등록함에 따라 각종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대각회는 1969년 민족독립과 전통불교의 수호를 위해 평생을 보낸 용성스님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동안 용성스님 생가 복원 불사 등을 펼쳐왔다. 98년에는 대각사상연구원을 열어 용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대각회에는 200여 사찰이 소속돼 있다.

정성운 기자

"종교NGO 강화할때"

이진구박사 '포럼'서 주장

종교계의 대사회운동 즉 종교NGO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구 박사(서울대 강사, 종교학)는 2월21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열린 '지구화 시대의 종교와 종교운동'이란 주제로 열린 재가연대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박사는 "한국사회도 점차 탈종교화, 세속화되어 갈 것이며 따라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위상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면서 "환경, 인권, 소득분배, 사회복지 문제 등과 관련한 사회비판 및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NGO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자민련 이총재 발언 교계인사 초청간담회서

"불교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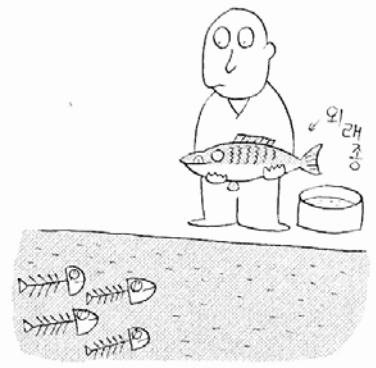
자민련 이한동 총재의 '불교보수론'이 교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불교보수론에 대한 교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불교를 요모조모로 성격지은 것도 그렇지만 보수주의로 본 것은 바른 불교관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운다.

이한동 총재는 2월 23일 종단 협의회에 소속된 종단의 총무원장과 부장급 스님, 신도회 간부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자민련에서 이한동 총재, 박철언 부총재(자민련불자회장) 등이,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춘광스님, 관음종 총무부장 법명스님과 일승종 보문종 원효종 총화종총무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오찬간담회는 이총재의 인사, 원융종 종정 일공스님의 답사, 원택스님의 건배 제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보수론을 펼쳤다. 이 총재는 "나라를 지키고 세운 것은 보수인데 지금 보수세력은 수구반동, 기득권층, 반민주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불교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종교라고 믿는다. 우리의 보수통합 노력에 공감해달라. 이 길이 한국불교가 선택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불교보수론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불교를 보수니 진보니 하며 선을 긋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보수-진보로 나누어 본다면, 정체되는 것을 거부하는 성격을 지닌 종교"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방생할때 조심하자…

조계종 임시종회 3월14일부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월21일 오전 의장단, 총무분과위원회, 각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46회 임시중앙종회를 3월 14일부터 5일 동안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임시종회에서는 △2544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 승인 △종법 제.개정(계단법, 승려법, 지방 종정법, 승적제적법, 총림법, 포교법)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위 구성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 결의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 정성운 기자

"사미의제 착용해야 기초선원 입방허용"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월 14일 전국선원 운영사찰 주지및 선원장과 입승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사미의제착용을 권고했다. 교육원은 또 3월 6일 기초선원 봄교과 안거시 사미,사미니가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대법원서 기각판결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유지담)는 22일 정화개혁회의 정영스님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조계종총무원은 "정화측은 전부승소하고도 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해 전례도 없는 '부적합한 소송'을 지속하였으나,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정화측의 모든 기도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정성운 기자

올예산 2억4천여만원 중앙신도회 총회서 확정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2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4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신행혁신사업등 올해 사업과 예산안 2억4천4백여만원을 확정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펼칠 신행혁신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5월경 위원회 발족과 함께 신행혁신프로그램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환경지침서 발간 추진 조계종 사찰환경위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양산)는 19~20일 남원 실상사에서 불기 2544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으로 사찰생태문화기행 실시 및 환경지침서 발간, 지리산 불교문화 및 생태조사 실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사찰환경보존위원회는 향후 지리산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 각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공동의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신시대(新時代) 신세대(新世代)를 위한 신행수첩!

진작에 이런 경전이 나왔어야 했다.

선물용(膳物用)으로 최적(最適)!

■ 시스템 다이어리식으로 기획 · 제작되었다.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하다.

■ 불자(佛子)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망라되었다.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에 인쇄되었다.
- YUPO지에 인쇄되었다.

■ 가로쓰기에 내용이 미려하다.
- 원색인쇄를 했다.



■ 중요내용을 찾기가 아주쉽다.
- P.V.C. 인덱스를 다섯부분으로 배치하였다.

■ 법당에서 독송하기 편하다.

■ 신행생활(信行生活)에 유익한 공간이 기획 되었다.
-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성지참배기(聖地參拜記)를 요약기록할 수 있다.

■ 내용을 재구성 하기가 편리하다.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拏元企劃 TEL.3492-5885 H.P. 017-742-8815 정가:25,000원

목어

부드러운 전쟁에는…

"밝아오는 새천년, 이제 우리 민족의 천년입니다."

요즘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매체들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이 문구에는 무언가 분명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민족이 살아왔고 또 살아갈 세월이란 그것이 웅비의 모습이든 불운한 것이든 어디까지나 우리의 백년이고 우리의 천년이지 남의 것이 될 수 없는 일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축'이 되겠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세계의 변방이나마 굳건히 지키겠다'거나 그런 서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우리 민족의 새천년'을 빛내기 위해서는 오래 전 이미 시작된, 그리고 승패가 거의 가름나 보이는 '문화전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문화전쟁이란 민족생존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전쟁은 분명 전쟁이로되 폭력이 배제된, 그러면서도 패자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달콤하기까지 한 '부드러운 전쟁'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에는 (무엄하긴 하지만) 어쩌면 패색이 드리우는 것 같다. 그 증후야 이 좁은 지면에서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음을 본다.

자국의 문화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증거는 시킴왕국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킴은 20세기 지도에서 사라졌고, 불교문화를 근간으로 고유문화 유지에 힘썼던 부탄은 지금도 세계에서 독특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

한국문화에 드리우는 패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도 예부터의 모든 전통문화를 아우르며 독특하고 고유한 정신문화의 지평을 끝없이 넓혀왔던 한국불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불교는 위로는 한국선(禪)으로 대표되는 높은 정신성과 아래로는 많은 신회 전설 등으로 대중예술성을 풍부히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서구문화에서 '뜨는' 그 무엇은 세계화의 힘을 빌어 전에 없는 강한 전파력으로 금세 지구촌을 정복한다. 지구촌은 또 그것을 현대인류문화의 보편성인양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불교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공원내 사찰 역할 너무 몰라

'문화재 관람료' 또다시 화두로

참여연대 소송 놓고 조계종 "오해푸는 계기로" "국립공원 10%이상 사찰소유 토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기했던 예전과 달리 시민운동단체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입장은 신중하면서도 조계종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가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내겠다는 이유는 "관람하지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입장 "현재 국립공원 입구에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함으로써 문화재관람을 원하지 않는 공원탐방객에 대해서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이에 다른 민원과 여론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가 분리징수로 전환되고 각각의 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용연 간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강제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우리는 문화재를 관리해온 사찰이나 종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며 소송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 입장 조계종은 2월 22일과 24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존에 기여해온 사찰과 스님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합동징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찰의 토지, 문화재,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에 제공했음에도 시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 동안의 공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참여연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체 국립공원 지역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조계종 사찰토지가 국립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획실 황찬익 과장은 "스님과 사찰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시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금전적 권리를 지키려하기보다는 자연환경권이나 전통문화 향유에 관한 보다 큰 권리를 일깨우고 추구하도록 계몽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에 요구했다.

조계종은 또 문화재를 개체 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국보 1호 남대문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남대문이 지닌 가치와 위용이 손상된다며, 따라서 문화재의 관람 행위도 공간적으로 확대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화재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문화재를 둘러싼 환경이나 비지정 유적·유물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될 신흥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참여연대의 소송에 대해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불교 바로세우기 재가연대의 한 회원은 "해인사 통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사찰내 방객인데, 참여연대의 논리대로 한다면 공원입장료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시민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불자는 또 "참여연대에서 조계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특정종교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망 참여연대는 "7일 열리는 토론회 결과에 따라 소송을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론회를 기점으로 문화재관람료 반환 및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공원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문화재 관람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해야 하므로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매표인력 절감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현행의 합동징수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관람료 징수 현황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39조(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에 근거해 62년부터 받고 있다. 관람료는 성인 1인 기준 700원에서 2000원까지이나, 대체로 1000원 또는 1200원이다. 반면 국립공원입장료는 70년부터 받아왔다.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65개 사찰이며, 이 가운데 합동징수하고 있는 곳은 19개 사찰이다. 관람료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는 국보 40, 보물 167점 등 모두 521점에 이른다.

지난 해 조계종 관람료사찰 입장객은 2천1백1만여명, 관람료는 267억여원이었다. 올해 조계종 예산안 가운데 관람료사찰의 특별분담금은 25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20%를 차지, 직영사찰분담금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정성운 기자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스님의 안내로 법주사를 관람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포교-교육 역점 종단체질 개선을"

조계종 교육원 '승가의 과제' 좌담회

"총무원 집중 예산 편성 종권 분쟁 계속 발생"

"종단의 체질이 포교와 교육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2월 23일 개최한 '종단사태와 교훈과 승가의 과제' 좌담회에서 교육원 강원과 중앙승가대학 종회 선방 대표등 종단의 스님들은 종단분규 원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권력구조 형식의 총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전법도생의 종단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포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이는 교화, 수행, 교육의 3대 이념을 구현하는 곳이 종단인데 정작 중요시되는 포교, 교육분야는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고 종단을 유지하는 총무원 조직만 비대화돼 권력집중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올해 종회에 상정된 예산안의 경우도 교육, 포교예산이 22%, 13%인데 반해 총무원 예산은 39%에 이른다. 예산 증액도 총무원이 5억9천여만원, 교육원 7천2백만원, 포교원 2억3천만원으로 승풍진작과 전법에 역점두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여론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산편성과 종책의 결정권이 총무원에 집중돼 종권유지를 위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대한 구시대 구조를 청산하고 내실을 기하는 교육과 포교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종헌종법을 제·개정하여 총무원의 규모를 줄이고, 종무직제도 평등한 승가의 운영원칙에 맞게 권한보다는 일하는 소임으로 자리매김하여 권력구조적인 문제를 해소시키자는 것, 또 비효율적인 하향식 구조도 개선해 서비스위주의 종무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후 종단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승풍진작을 통한 승가의 바람직한 진로를 위해 종단의 정체성확립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승가교육과 포교분야에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국 교구 본·말사스님들의 바램과 같이 종단운영이 승려의 자질향상, 수행정신회복, 승가제도와 법계제도 실시, 행자교육원 신설, 중앙연수원 건립,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승려 계율교육, 승려 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행위교육실시로 압축된다.

좌담회에서는 또 종단분규 발생시 폭로전, 대규모 집회, 물리적 충돌로 진행되는 것은 불교집안에 만연한 세속주의에서 기인한다 분석하고 승가문제 발생시 해결주체 선정과 불교정신에 맞게 풀어갈 자질함양, 방법연구, 토의및 평가문화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종단분규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천주교처럼 문제발생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출가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법리에 따르지 않고 종단내부 결정에 따른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날 좌담회는 향적스님(종회교육분과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무비(승가대학원장) 종범(중앙승가대 교수) 도법(화엄학림 운영위원장) 지오(해인승가대학장) 혜국(남국선원장) 계성(교육원 교육부장)스님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단별-조불련 회동 '우려'

대북 교류창구 단일화 안되나

조불련이 일정 기간을 정해 개별적으로 남쪽의 종단 및 통일운동기구 대표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이전에는 부처님오신날과 8·15를 앞두고 공동발원문을 협의키 위해 상호협의에 의해 조계종과 평불협이 조불련과 만남을 가졌다.

조불련이 여러 종단을 차례대로 만나는 것은 각 종단별로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조불련이 적절히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불련의 사정상 한번에 북경에 나와 여러 종단을 접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 우리측 종단·단체들과 잇따라 개별적으로 접촉하자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제안에 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단간의 과시적 경쟁을 부추겨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조불련의 의도에 충실히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다. 조불련이 남쪽 불교계와 대화테이블을 갖는 것은 불교교류라는 명분과 함께 지원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는 조불련과의 회동이 남북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불교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 장기적인 남북불교교류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가운데의 만남은 만남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난 해 11월 북경에서 조불련 대표들을 만나고 돌아온 종단협의회와 각 종단은 남북불교교류는 종단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나 창구는 종단협의회로 단일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남북불교교류와 관련해 종단협의회에서 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종단협으로 창구단일화'는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불교교류위원회의 실질적인 가동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 남북불교교류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종단간 대북불교교류협의와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기사 넘쳐 '선과 21세기' 한주 쉽니다.

쌍용양회 석회석발파로 인한 삼화사 사찰환경보전 대법회

두타산 삼화사는 지금부터 1,300여년전 신라시대(A.D 642년)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염원지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의병들의 은거지로써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등에 기재된바와 같이 민족의 염원과 호국의 성지입니다.

지금도 신라시대의 국가지정문화재 철불(보물 제1292호), 석탑(보물 제1277호) 등이 봉안된 도량으로 천삼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동해시 제10호)입니다.

그러나 지난 1977년 국가의 산업화정책으로 60여만평의 사찰부지와 전답이 쌍용양회측에 강제 매수되어 공장부지와 석회석 채취장으로 변모하여 지금의 무릉계곡 입구로 이주하여 있습니다.

1998년 폐사된 법당 등을 신축 복원하고 국가지정문화재(철불·석탑)를 지정 받는 등 계속 불사를 진행하며 기도 참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쌍용양회의 매일 2회 석회석 채취 발파로 인하여 신축된지 2년도 안된 국가지정문화재 철불보호각인 법등이 훼손되고 지반이 흔들리고 목재가 뒤틀리며 벽이 금이가고 균열이 생겨 사찰수행 환경 파괴와 종교활동(참선.기도)을 할 수 없는 불안 공포 스트레스의 정신적인 장애요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삼화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종단적인 사찰환경수호와 국가지정문화제보호와 백두대간 등 환경파괴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며 입장을 천명하고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삼화사 사찰수호환경보전대법회

일 시 : 불기 2544년 양 3월 6일(음 2월 1일) 오전 11시
장 소 : 두타산 삼화사

결 의 사 항

1. 쌍용양회는 삼화사 주위에서 석회석 채취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강원도 건축사회에서 조사한 피해 감정액을 전액 보상하라.
2. 강원도와 동해시는 삼화사 국가지정문화재(철불·석탑) 보호와 사찰수행환경 보전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3. 강원도는 쌍용양회 석회석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환경 등의 영향평가를 위한 각 기관 단체(조계종총무원, 쌍용양회, 문화재청, 환경부, 강원도, 동해시.)의 조사위원회 구성과 공청회를 개최하라.
4. 쌍용양회는 경제성장을 빌미로 하여 국가지정 문화재훼손과 사찰수행수행환경 파괴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5. 상기 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이천만 불교도와 범종단적 궐기 및 항의 투쟁 민형사간 법적 투쟁을 결의한다.

불기 2544년 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사 사찰수행환경보존 대책위원회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0394)534-7661~3, 7668, 8313
FAX (0394)534-7546

"전군차원 포교활동 강화"

국군불교 총신도회장 이종옥 중장



"호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역할에 비해 현재 군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군 간부급 불자의 체계적인 조직과 활동은 타종교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군불교총신도회 결성을 계기로 각급 제대별, 군사찰별 기존의 활동은 물론 전군 차원에서의 불교 활동과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25일 결성된 국군불교총신도회의 초대회장을 맡은 이종옥 중장은 앞으로 신도회의 하부조직을 강화해 부처님의 가호 아래 신행활동을 활성화하며 종단과의 협조기구로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내 종교활동의 대표성을 띄는 단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장은 98년 11월부터 국방부 불교신도회의 회장을 맡아 신도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군 내부에서 신앙으로 군 전투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종교활동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는 이 중장은 이번 국군불교총신도회의 결성으로 전군을 대상으로한 불교 포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종옥 중장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예하 일선 부대에 이르기까지 국군불교총신도회의 결성으로 인해 부처님의 정법을 통한 군 장병들의 호국의지를 북돋우는 신앙활동의 여건이 한층 향상되기를 발원합니다"라며, "종단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교계 지도자들과 사부대중에게 감사하고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주문

강원불교대 졸업식



백운 강원불교대학장은 2월26일 동대학 강당에서 제10기 졸업식을 거행하고, 3월18일 오후 2시 제11기 입학식을 갖는다.

'한국사찰의 편액…' 출판회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일 오후 6시 30분 마포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한다.

학교설립 논의차 네팔방문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2월20일 동산불교대학 불교학과 졸업식을 개최했다. 한편 네팔을 방문해 네팔 산간오지 초등학교 설립, 포카라 지역 불자들과의 협의 및 네팔 내 한국불교단체 활동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월22일 출국했다.

전통문화 포탈사이트 개설



이호식 연세행정학회장(Bnet21회장)은 최근 인터넷에 전통문화 포탈사이트 B-net21을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세계무형문화재 소개, 문화정보 검색, 문화예술장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주소는 www.bnet21.co.kr이다.

'법률신문' 편집상무에 취임



이두석 불교언론인회 고문(미디어포럼 회장)은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은 법조계 전문지 '법률신문'의 편집상무로 21일 취임했다.

퇴행성관절염 무료 수술

본사 길병원에 감사패



본사·김광삼사장은 2월19일 본지 창간 5주년을 기념해 무료 퇴행성관절염수술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인천길병원 이수찬 원장(사진)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의료복지 지원사업으로 노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8명에 대해 양쪽 다리무릎을 무료 수술해준 이원장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퇴행성 관절염수술을 가장 많이 집도한 의사로 알려져 있다. 위영란 기자

송광사 종회의원 현묵스님



송광사 조계선원 유나 현묵스님〈사진〉이 2월 23일 열린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위원장 정대 총무원장)에서 선원대표 직능직 종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원대표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은 현봉스님의 송광사 주지 임명에 따라 실시됐다. 현묵스님은 단독입후보 했다.

현묵스님은 구산스님을 은사로 송광사에서 출가, 72년 사미계, 76년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6년 송광사 수선안거 이래 24 하안거를 성만했다. 현재 송광사 선원 유나.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부산불교교육대학 수료식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2월19일 교내 강당에서 제1기 경전연구반 과정 및 제9기 포교사 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총동문회 박학률 회장을 비롯 3백 여명의 수료생들이 동참한 이날 수료식에서는 경전연구반 45명과 포교사 과정은 통신반 20명을 포함한 176명이 수료했다.

이하우 학장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불법을 전해주는 전법과 실천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선학연구원 개원1주년 법회

한국불교선학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가 2월22일 서울 논현동 무불선원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 등을 비롯 불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장스님은 "선수행을 통해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샘물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타스님 '북한불교연구' 출판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상임대표 김도현) 2000년도 정기총회 및 사단법인 설립인가 기념법회를 겸한 법타스님(대구불교방송 사장·평불협 공동대표) 〈북한불교연구〉 출판기념회가 2월22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스님,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평불협 고문) 등 3백 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승가대 제18회 졸업식

중앙승가대(총장 현성)는 2월 24일 정진관에서 제18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24명, 사회복지과 42명등 총 6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총장 현성스님은 "졸업은 출발과 수행이 교차하는 승가생활의 시작이다"며 "한국불교의 선진화를 위해 책임과 임무를 완수해 줄것"이라고 당부했다.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전달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스님)는 2월 20일 길상사 가족법회에서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중·고생 2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은 불교종립학교 추천 학생 10명과 성북구 관내 불우청소년 및 길상사 신도 및 맑고향기롭게 회원의 추천을 받은 12명으로 선정됐다.

"장학·복지사업 앞장"

부산불교실업인회 최용원 신임회장



IMF의 한파가 몰아치고 2년, 한숨을 몰아쉰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재도약을 기하고 있다.

2월 21일 롯데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용원(58) 동산레미콘 대표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산불교실업인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해 온 최 회장은 "장애인, 불우이웃 돕기 등의 복지사업으로 기업이윤을 사회곳곳에 회향하여 복지를 일구는 실업인회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3대에 걸친 불자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 맺은 최 회장은 실업인회 자체 법회의 내실다지기와 아울러 이사회를 거쳐, 힘닿는데 까지 복지사업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원의 부인 30여명으로 구성돼 불우시설 방문, 장학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마야부인회의 활동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불법을 세상에 펴고자 하는 열의와 신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 회장은 재가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사업이 많다고 토로한다. 어려움을 나누는 복지사업에 뜻 있는 스님들이 적극 동참해 승가와 재가가 따로 없이 불국토 구현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상좌불교 찰나설 규명"

英 옥스퍼드大 박사학위 현광스님



현광스님이 지난해 12월 '상좌부의 찰나설연구-기원과 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동양학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지난 85년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스리랑카 국립 페라데니아대학과 인도 뿌나대학 등지에서 공부해 왔다. 이번 논문은 6~7세기 불교논리학부분에서 거론돼 온 찰나설을 고찰한 것으로,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곰브리치교수(팔리경전협회장)가 논문을 지도했다.

스님은 "원시경전에 나타나는 무상설이 상좌부의 찰나설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비교분석했다"면서 "상좌부에서 찰나설의 이론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서구불교학자들의 연구가 잘못 됐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논문에서 5세기 이전 싱할리어(sinhalese)로 쓰여진 주요 주석서와 5세기 이후 부다고사가 팔리어로 번역한 〈청정도론〉, 바수반두의 〈구사론〉 등의 비교를 통해 상좌부에 찰나설이 나타나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스님은 이같은 상좌부 연구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대학원에 포스트박사과정을 지원해 놓은 상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창생활도 마음닦는 수행"

위덕대 수석졸업 강영지씨



"4년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마음 닦는 공부라 생각하고 극복했어요"

2월22일 열린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졸업식에서 평점 4.24로 수석을 차지한 불교학과 강영지씨(23, 대구시 서구 비산 2동). 강씨는 "대학생활도 수행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수석소감을 피력했다.

조부모가 진각종 대구 신익심인당 정사와 전수였던 인연으로 위덕대 불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강씨는 모태신앙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을 염송하며 성장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왜관읍에 있는 칠곡종합유선방송 리포터로 채용됐으며 지역민방인 TBC 대구방송의 '열린아침' 프로에도 출연하는 등 언론계에서 활약중이다.

전공과 무관해 주변의 반대가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어 그 길을 택했다는 강씨는 후배들에게 인내심을 키우고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윤호 기자

2000학년도 (제 13회)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신입생 모집

① 취 지
본 대학은 1988년 개교 이래 13년간 1천5백여명의 학인을 배출한 불교교육의 명문교양대학으로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통신과정 개설을 요청해와 금년에 통신강좌를 개설하고 신입학인을 모집함.

② 교육과목

학 과	교육 과목	수업시간(야간) 오후7시-9시
불교학과 (16학점)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설, 불교와 생활, 천수경강독, 대승불교사상, 금강경강독, 불전개설	매주 목·금요일
법사과 (16학점)	반야심경, 초발심자경문, 불교와 동양사상, 한국불교사상, 선사상, 의식실수, 포교이론과 실제, 비교종교학	매주 목·금요일

③ 모집요강
◆모집학과 : 불교학과(150명) / 법사과(150명)
◆지원자격 : 불교학과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법 사 과 : 본 대학 불교학과 1년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 가진 분
◆교육년한 : 1년 ◆구비서류 : 입학지원서 1매, 반명함판 사진 3매
◆정규출강반은 매주 목·금(오후 7~9시)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입학식 : 2000년 3월 5일(일) 오후 2시 본대학 큰법당

④ 기 타 (통신과정)
◆강의 테잎 매주 우송(정규반과 진도 동일) ◆학교신문(월간) 및 학교 발행물, 각종자료 우송
◆정기등교일 : 입학식, 졸업식, 성지순례, 수련대회, 연2회 특강(동,하계)
◆통신강좌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금융기관으로 수강료 입금후 전화 또는 팩스 연락바람.
전북은행 003-02-0042737 예금주 강건기

⑤ 통신 강좌반을 위한 강건기 교수 '알기 쉬운 불교' 특별강좌
· 전북불교대학 강건기(전북대 철학과 교수) 학장의 알기 쉬운 불교가 통신강좌반을 위해 특별히 진행됩니다.
·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부처님 생애 - 인도·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져 오늘에 이른 불교를 시대·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교 서사시
· 이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눈높이를 맞춘 통신 대강경으로 불교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전북불교대학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8-5
☎ (0652)226-7878 FAX (0652)226-7879

연흥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연흥불교 대학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절에 수십년을 다녔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마디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많으시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뚜렷한 불교관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려보던 불보살님의 모습이 교리와 경전을 배우면서 참된 진리를 설하신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모습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기초교리부터 경전까지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배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 실천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각 과목마다 선착순 30명씩 모집합니다.

초보자와 무종교인·불교가 어렵다는 분을 환영합니다.

▶ 개강일시 : 2000년 3월 7일 화요일부터
▶ 불교기초교리: 매주 월,목요일 오후2시~3시(1시간씩 교육)
▶ 한문교육 : 매주 화,금요일 오후2시~3시(1시간씩 교육)
▶ 한글교육 : 매주 수,토요일 오후2시~3시(1시간씩 교육)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불교-불교기초교리, 예절, 의식, 사원구조, 중요경전등
한문-천자문, 고사성어,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
한글-가나다라 부터 읽고, 받아쓰기 등
▶ 대상 : 누구나 알고저 하시는 분

법회안내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일
	⊙인등기도법회	매월 음력	8일
	⊙보 름법회	매월 음력	15일
	⊙지장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관음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의례부안내	
⊙영가 시다림 및 49재 천도봉행	
⊙선망 조·부모 기제사 및 공일재 봉행	
⊙태중(수자)영가 천도 및 제사	
⊙위패봉안(매월 지장재일 제사 천도)	

성주산 기도도량 연흥사 주지 법경 지상 합장.
☎ (032)348-6602~3 / FAX (032)347-660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85-29

"생명 다루는 농업행정 연기법 밑받침 돼야"

농림부 불자모임 '농불회' 결성 나승렬씨

"농림부는 자연과 가깝고 생명에 대한 정책들을 직접 다루는 곳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은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모임이 흐지부지 사라지고 만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농림부 나승렬 농지과장(43)은 농림부에 불자회 결성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생명에 관한 일은 불교의 연기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도 불자모임 하나 없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불자회 결성을 위해 농림부내 불자들을 조사해온 나 과장은 10여일 전 몇몇 불자들과 만나 불자회 결성에 대해 논의를 했고, 3월 초순 구체적인 일정과 임원진 선출 등을 통해 창립할 것을 결정했다.

3월 초순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인 농불회(가칭)에는 현재 40여명의 임직원들이 회원 가입의사를 밝혀왔다. 나 과장은 불자들의 속성이 불자임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다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잘 몰라 불자회 결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힌다. 이 때문에 불자회 결성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차분히 실무를 추진해 불자회를 결성하고 이후 활성화를 꾀한다는 생각이다.

농불회에서는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마음다스리는 공부를 우선시 할 계획이다. 경전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적 이론으로

이달초 창립…회원 40명

마음 다스리는 공부 역점

쌓아질 뿐 마음의 공허함은 오히려 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군대에서도 불교활동을 했던 나 과장이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한 것은 5년여 전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을 만나면서부터이다. 대행스님에게 마음다스리는 법의 중요성을 배웠던 것이다. 이후 미국 농무성에 파견근무를 나가게 됐을 때 남들이 여가를 즐기는 동안 나 과장은 가족과 함께 매주 절에 나가고 대행스님의 법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등 불교공부에 전념했다.

"미국에 가서 저는 선진 농업정책을 배웠고 집사람(배금자 변호사)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언제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불법을 알게 됐고 정기적으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공부하게 된 것이 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잘 따라 주는 것도 감사하구요."

오늘도 나승렬 과장은 발원한다. 열심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며 불법을 널리 올바르게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불법을 결칠 수 있도록 불국토를 만들자고.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원우회 무비스님 강좌

조계종 원우회는 2월23일부터 2주에 한번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강좌'를 개설했다.

5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일반인들도 쉽게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재비는 5천원. 접수 및 문의는 원우회 신행부장 박성수씨에게 하면 된다. (02) 732-4923

수원 기사불자모임창립

수원내 운전기사불자들의 모임인 '마하연'(가칭)이 1일 오후5시 경기불교회관 법당에서 창립식을 갖는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인 '마하연'은 신행과 불교혁신 사회운동을 겸비한 단체로 활동할 계획이다. (0331) 225-8471

향지모임 장병 떡국공양

연천 향지모임은 2월13일 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장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신병 1천2백여명에게 설날맞이 떡국공양을 실시했다. (0355) 832-0719

자민련 신년 하례법회



자유민주연합 불자회(회장 박철언)는 2월23일 자유민주연합 중앙당 당사에서 불자회 신년하례 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성조 통리원장, 원융종 종정 일공,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 관음종 총무부장 법명,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과 천태종 금강합창단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02)718-7354

전국산악인련 3일 총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3일 타워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상·하 양원제 종회, 대사면을 통한 승단 화합, 1백만인 서명운동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14일 열릴 조계종 종회에 이같은 사항을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02)2232-6948

진주회관 '불해' 61호발간

진주불교회관은 법보시로 제작되는 〈불해〉 61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무봉산 영남사지, 여주 신륵사 등 사찰 순례기와 한정섭(금강선원 이사장) 법사의 '희망의 2천년대를 향하여', '팔정도는 붓다 설법의 모든 것' 등이 실렸다. (0591)747-0108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유 화 영
〈서울구치소 교무과〉

어느 누구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부터 내 근무지가 바로 부처님 정법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됐다. 내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란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여 주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럴 때에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나도 본받아 구치소에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을 세우기도 한다.

언젠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구치소에 와서 고통받으며 고민하던 이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법화경〉 사경을 권해주면서 진실로 행하면 부처님께서도 감응할 것이라고 상담



을 해준 적이 있다. 그는 매일 〈법화경〉 사경을 하기 시작했고 〈법화경〉을 열번 이상 사경했을 때 예정보다 빨리 출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신심이 놀랍기도 했지만 부처님 가피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보니 언제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는 조그마한 법당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기 위해 오는 것을 보면 어떤 때에는 눈물이 나기도 한다. 부처님께 저 많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도 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해있는 곳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할 수 있다는 신념만 있으면 포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실천행이 중요하다. 실천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법화경〉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법화경〉 약왕보살님의 원력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인연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베풀어 줄 때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부터 연꽃이 피어나게 하려는 원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더욱 신심을 내어 이곳을 정토세계, 부처님 마을로 거듭 깨어나도록 서원을 세우려고 한다.

그동안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말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하며 새롭게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용맹정진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나 있는 곳부터 연꽃 피우자"

이곳을 부처님의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서원도 더불어 세우고자 한다.

오늘도 부처님 전에 발원하면서 법당에 켜져있는 초와 같은 마음으로, 향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모두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지니길 바라면서 언제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는 포교에 관심가지기를 바란다. 이 순간에도 부처님 서원으로, 지장보살의 서원으로 출소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함을 느낀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부처님에 대해 잘 모르다가도 이곳에 오게 되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구라도 절에 다니면 종교란에 불교라고 쓴다. 그들은 언제나 합장주를 손목에 차고 있는데 한 개의 합장주로 많은 이들이 마음에 위안을 느끼는 것 같다. 또 합장주 낀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자랑스럽게 염불을 하기도 한다.

수많은 이들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오늘도 부처님 전에 무릎꿇고 발원한다.

새 글 아이콘 눌러 첫화면 제작

홈페이지 만들기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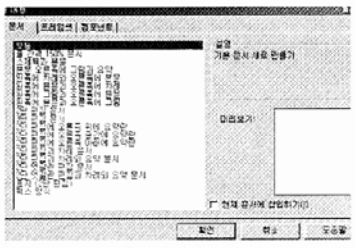
나모 웹에디터를 실행해 메뉴의 새 글을 누른다. '새 내용'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보통'을 선택해 확인을 누른다. '새 내용' 대화상자에서는 '소제목과 본문' '2단 편집문서' 등 19종의 문서양식을 제공한다. 〈그림 ①〉

도구 막대의 새 글 아이콘을 이용하면 '보통' 선택사양과 같은 형식의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내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만들어 보자. 우선 첫 화면에 환영의 글귀를 넣는다. 다음 도구막대에 있는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파일이름을 'test1'로 주고 저장한다. 〈그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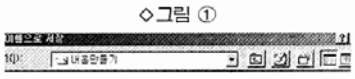
문서 탭의 noname1이 'test 1'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파일 메뉴의 저장하기를 선택하거나 문서 탭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호상자에서 고르면 된다. 우선 문구 앞에 커서를 놓고 '삽입' 메뉴에서 '기호'를 선택한다. 기호상자가 나타나면 'XS Symbol' 탭을 클릭한다. 기호 중에서 ♡를 클릭하고 삽입을 누른다.

커서가 있던 위치에 ♡가 삽입된 것이 보인다. 문장의 끝에도 같은 기호를 넣어 준다. 〈그림 ③〉



◇그림 ①



◇그림 ②



◇그림 ③

클릭! 새 홈페이지

■부산 보현의 집(http://bohyun-home.or.kr)-보현의 집 소개와 쉼터 활동 현황, 후원회 조직 등 보현의 집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동사섭(http://cafe.daum.net/dongsasub)-2월22일 개설. 동사섭을 체험하고 같이 토론하는 모임.

■금륜사 청년들의 모임(http://cafe.daum.net/buddhas)-2월13일 개설. 금륜사에 적을 둔 청년회 모임.

■O.N.E(http://cafe.daum.net/oneclub)-2월15일 개설. 천태종 사찰을 다니는 80년생 불자들의 모임.

■무추재(http://cafe.daum.net/budsi)-2월17일 개설. 화두와 참선 수행에 대한 대화 페이지.

■창원자비사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jabisa)-2월18일 개설. 창원 자비사 불교학생회 회원들의 모임.

■울산여고 연화지(http://cafe.daum.net/lotusake)-2월12일 개설. 울산여고 불교모임인 연화지의 창립회원부터 현 회원까지 참여하는 정보 교류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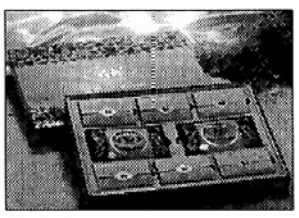
■용안사 청보리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bluestudent)-2월19일 개설. 용안사 청보리 불교학생회와 동문회 모임.

알림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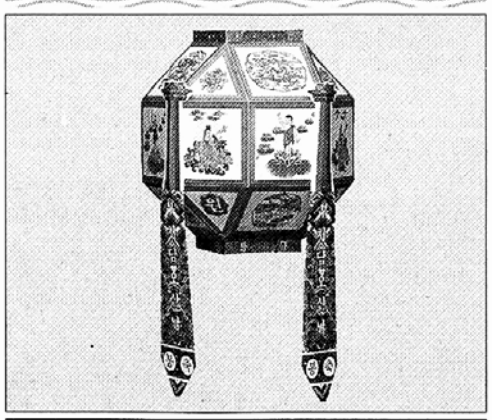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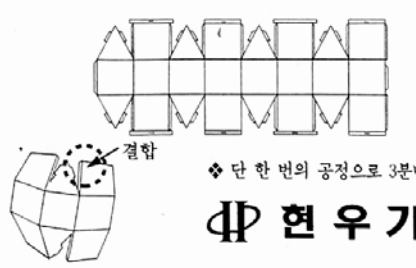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사 설

불교사회복지의 과제

조계종 복지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았다. 오랫 동안 불교계에 있어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복지의 영역을 개척하여 어느 정도 토대를 쌓았다는 점에 우선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12개의 복지관과 55개의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게 된 양적인 팽창과 〈불교사회복지총람〉등 불교복지 정보화 업적들은 불교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지재단이 거둔 큰 성과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아직까지 불교계의 복지사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조계종 복지재단의 성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승가복지 분야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복지를 추진하는 집안 내부의 복지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집밖의 일을 어찌 해결하느냐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승가복지는 단지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승단의 청정성과 수행풍토 조성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복지 추진의 핵심 주체가 힘을 지니게 된다는 인식아래 하루빨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교 복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지 중앙 종단 중심의 복지 사업을 우선은 각 교구본사차원의, 나아가서는 각 사찰 단위의 복지사업 차원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 불교인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불자의 기본 신행으로 복지가 자리잡게 됨으로써 위로부터의 복지사업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복지사업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단 차원에서는 전문가 양성이나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찰 단위의 복지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복지 사업의 성과가 불교의 중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전시적인 효과가 아닌, 지도적인 종교의 본분으로, 또 불교의 근본정신의 발양으로서의 복지 사업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큰 틀을 짜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구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범 종단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자 신행의 질을 높이는데는 복지사업의 확대 이상의 것이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불교 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불교복지재단의 5년을 통해 쌓아온 성과를 한단계 고양시켜야 할 때이다.

통일발원 1000일 정진

불교계 21개 단체가 모여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연대'를 출범시켰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과제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 민족의 최대 화두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은 민족적 자존심에 더할 수 없는 멍에를 지우고 있다. 더욱이 반세기를 넘어선 분단의 아픔은 이제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들보다 더많은 무관심한 세대들로 교체되고 있다.

통일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북한의 굶어죽는 어린이에게 동족으로서의 안타까움보다는 우월감을, 도움의 손길보다는 외화의 눈길을 먼저 보내는 그런 반민족적 발상들이 우리 주위에 건재하는 한 우리는 통일을 일궈낼 수 없으며,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 민족으로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눈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사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우리 불교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했다. 불교계가 단합이 잘 안된다거나 역사의식이 희박하다는 교계안팎의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니다. 구법과 이타의 대승보살정신이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는 불교계로선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 불교계가 과거를 참회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정진에는 민족화해의 과제를 위한 통일강좌도 연다고 한다. 여기에는 교계안팎의 전문가들이 초빙되며 토론도 벌이고 북한동포돕기 모금, 문화체험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용된다고 한다.

통일은 낭만적인 환상으로 약속되지 않는다. 일회성 캠페인으로도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을 원한만큼 빨리 다가오고 통일을 준비한만큼 쉽게 성취될 것이다. 불교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불교인들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누가 후일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것이 없는 불교가 된다면 다가올 통일의 시대엔 더욱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이 대작불사에 적극 동참해야겠다는 점이다. 통일은 외세나 군사력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깨달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할테니까 말이다.

열 린 마 당

방생, 이대로 좋은가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저녁뉴스 시간에 임진강 상류의 한 방생법회를 보도하며 '방생 오염'의 폐해(얼어죽은 방생용 미꾸리지와 쓰레기 오염 등)를 지적했다. 음력 정월 대보름부터 3월 삼짓날까지 많은 사찰에서 방생법회를 갖는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리는 의식의 방생은 5계중 첫 번째인 불살생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덕목으로 전통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왔다. 그러나 일부러 물고기를 사서 놓아주는 와중에 수온이 맞지않아 어류가 떼죽음을 당한다거나 수입 물고기에 의한 토종어류의 멸종 위기, 촛불, 쓰레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 그 폐해가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도가 충주호에 방생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강원도가 5월 단오날(6월6일)에 지역불교계와 협의해 '새천년 방생 기원제'를 열기로 하는 등 최근 지자체가 방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극적으로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생명존중 의식의 적극적 실천행으로 확산시켜야 할 바람직한 방생이 어떠해야 할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방생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법현〈중단협의회 사무국장〉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계의 적극적인 실천 덕목인 방생을 보다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계방생(法界放生)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정신세계에 따라 현상세계의 차별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함부 계경(界經)의 사상이다.

중생계는 중생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중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깨달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둠의 세계라는 뜻이다. 따라서, 어둠속에서 고통받는 중생계를 깨달음의 빛으로 구제하는 것 자체가 방생의 중요한 뼈대이다.

이제까지의 맹목적인 물고기 살리기 차원을 한 단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양한 종류의 생명 즉 중생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들을 살리는 방법론 역시 다양하게 전개해야 한다.

물고기, 새, 나무,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려주기, 치료해주기, 먹이주기, 쓰레기 줍기, 샛강 살리기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각종 조치 취하기, 생태기행을 통한 생명존중 의식 높이기, 질병·전투·투옥 등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 구하기,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 구하기 등 찾아야 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생명존중 방생의미 새겨야

성덕〈불교자원봉사련 회장〉



방생이란 무엇인가. 놓을 放, 살릴 生 곧 생명을 놓아서 살리는 것을 말함이니, 협의적으로는 '생태계 방생'을 의미하고, 광의적으로는 '진리계 구현'을 뜻한다.

먼저 '생태적 방생'은 사생(四生, 태·란·습·화) 공존의 큰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바, 모든 생명체의 안온과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 생명종(種)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방생행위이다. 즉 자연보호, 굶주린 야생조수 먹이주기, 희귀동식물종 보호, 나무심기, 물고기 방생, 개고기 식육방지법 제정, 환경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진리계의 구현'을 통한 방생은 '진리생명과의 합일'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런 방생의 유일한 행은 방하착(放下着)이다. 자기라는 모든 아상을 놓아버리고, 정신활동의 모든 중심점을 우주적인 조율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주 대조화'의 방생이다.

여기에는 '사람 방생'과 '마음 방생'을 들 수 있다. 사람 방생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해 그 사람의 고통스런 입장을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방생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방생은 부자유한 중생의 마음을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놓아서 살려내는 마음 방생이다.

수질오염등 생태파괴 우려

유정길〈불교환경연구원 사무국장〉



전국 사찰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호수에서 자라와 미꾸라지 등을 방생한다. 또 어류들이 잘 먹고 자라라는 뜻에서 쌀도 강에 함께 뿌린다. 하지만 양어장에서 인공적으로 키워진 대부분의 자라와 미꾸라지는 수온이 아직 낮은 탓에 환경에 적응 못하고 물에 들어가자 마자 곧 죽는다. 물고기를 살리려는 좋은 의도가 뜻하지 않은 살생을 낳는 것이다.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의 무분별한 방생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상업성이 결합된 지자체의 방생관광 코스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토종어류를 방생한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해 부영양화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유람선을 타고 방생을 실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종어류들을 놀라게 하는 등 생명보호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제 어류 방생 차원을 넘어서 토착어종 보호운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산림보호 등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생태적 방생을 생각할 때다. 환경을 생각하는 방생이 결국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진정한 '생명 해방'이 될 것이다.

불교자원봉사련 환경친화적 방생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어떠해야 할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가 '생태계 평화운동 2000' 캠페인을 통해 생태계 보존을 도모하는 방생법회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연합회는 이미 지난 1월 지리산 뱀사골 등지에서 '생태계 평화운동 2000'의 일환으로 '제1차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 해마다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3월에는 '국토 푸르게 가꾸기'를 위한 은행나무 심기, 4월 기러기 방생, 7월 새사랑의 먹이주기, 11월 나무 보살피기 방생법회 등 매달 어진벗 방생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방생법회가 종전의 물고기 위주 방생에서 상생의 개념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불자연합회는 이와 함께 '인간방생'을 실현하기 위한 '어진벗 봉사은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봉사기록 수첩에 봉사시간, 봉사내용을 기록해 뒀다가 매달 발표하고, 연말엔 이를 바탕으로 포상도 실시할 계획.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아 보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목탁소리

거꾸로 가는 전산화교육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스님들의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조계종 교육원의 올해 1차 전산교육이 취소됐다. 이유는 35명 정원에 불과 7명만이 참가를 신청, 너무나 적은 수여서 교육이 이루어질수가 없었던 것.

스님들에게 종무행정 및 수행, 그리고 정보매체를 이용한 포교활동에 도움을 주려했던 교육원의 정성은 물거품이 됐다. 이는 한국승가가 얼마나 인터넷에 무관심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불교계도 공감대를 가지고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선사스님들이 이룩해 놓은 유업에만 의존한 채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이때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타종교에 비해 퇴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한국의 2천2백여개 종교인터넷 사이트중 기독교는 1천9백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불교는 고작 1백73개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 정도로 변화된 세상에서 외연하게 전통포교방식만을 고집(?)하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걱정된다.

2월22일 열린 교육원 좌담회에서는 한국불교의 자기중심화 귀족화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젊은스님들이 세속과 출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는 것을 높은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변화에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려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포교와 복지등에 나서려는 스님들이 많다. 디지털 시대에 중생제도에 나서려는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터넷이다. 찾아서라도 배워야 할 판인데 예정된 교육마저 사람이 없어 취소되다니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서구불교의 융성, 동양에로의 문명이동등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불교 포교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불교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스님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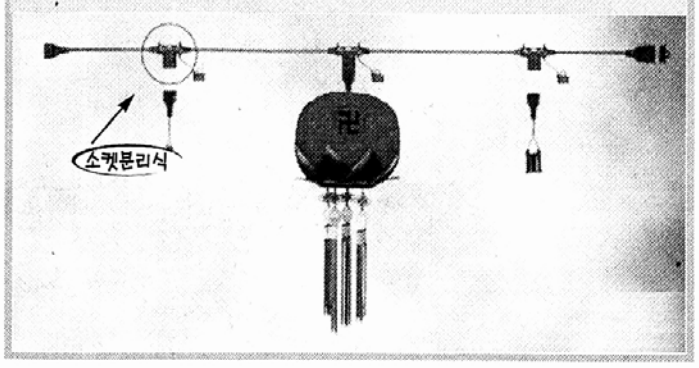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 케이블)

사 용 용 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 대원기업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전 등 배 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의 에밀레종 탁본.(410×167.5)

에밀레종 비천상서 한국 인물화 원형 찾는다

이대박물관 '한국고대 회화의 흔적' 특별전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飛天像)의 모습에서 고대 한국인물화의 원형을 찾는다.

이같은 시도가 이화여대박물관이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는 '에밀레종 : 한국고대 회화의 흔적' 특별전에서 이뤄진다. 이 전시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탁본이다. 악기를 들고 구름에 올라탄 형상으로 그려진 비천상은 7세기 한국 인물화의 걸작으로 손꼽는다.

극도로 정교하게 표현된 비천상은 신성하면서도 기쁨에 넘쳐 보인다. 원음(圓音)이 울리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리듬감 넘치는 동작으로 극락으로부터 내려올 것 같다. 또한 이 전시회에는 상원사종, 실상사종의 비천상 탁본들도 함께 전시돼, 입체적인 범종과는 다른 독특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불교에서 비천(飛天)은 하늘을 떠도는 천인(天人)으로 항상 주악(奏樂)과 산화(散花)를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8세기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하며 세련된 양식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데, 성덕대왕신종과 상원사종, 실상사종 등에서 가장 전형적인 양식을 보인다. 통일신라의 비천상은 고려 조선의 범종, 승탑 단청을 비롯 각종 공예에까지 시대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비천상이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적 측면에서 고대 한국인물화의 원형을 찾아가는 모티브로 채택된 것이다. 이화여대박물관 장남원 학예관은 "에밀레종에 표현된 비천상은 그것이 범종 위에 부조의 조각으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한폭의 인물화로 먼저 구현되었다"면서 "이는 조선시대 이전의 회화적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대에도 뛰어난 인물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옛 조각가들과 화가들의 손을 거쳐 의인화되면서도 동물들 각각의 본성을 완벽하게 표현된 경주 원원사지 동탑 십이지신상, 김유신 묘 십이지신상, 괘릉(掛陵)의 십이지신상 탁본 등에서 초기 한국인물화의 기초를 감상할 수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 남아 있는 이 십이지신상 부조들은 대부분 7세기에서 8세기경에 제작된 것들로, 초기한국인물화에서 십이지신상의 인체 표현기법을 엿볼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회화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온 한국회화사에서 벗어나 그 이전의 회화유물들을 고찰하고, 한국고대 회화의 흔적을 좇아간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다.

이번 전시에는 이화여대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비천상 탁본을 비롯해 선사시대와 삼국시대의 토기, 청동기 등의 유물과 통일신라시대 십이지지신상 탁본 및 와당, 금속공예품 등 총 150점이 선보인다. 비천상과 십이지신상 탁본 전시품의 사실적 전통외에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나 청동기 유물에서는 우리 회화의 기하·추상적 전통도 찾아볼 수 있다.

전시와 더불어 이화여대박물관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국립경주박물관 강우방관장의 '한국고대 조각으로 본 회화의 흔적(가제)' 특별강연도 마련해, 한국회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찬불가 연습을 위해 피아노앞에 앉은 정률스님.

찬불가 모음집 낸 정률스님

"아름다운 선율로 부처님 가르침 대중 가슴속에"

곱고 맑은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울려퍼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느낌일까! 더욱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수행의 길을 걷는 스님이라면.

수행자이면서 대중 속에서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정률스님이 최근 찬불가 모음집 '영겁을 하루같이'를 발표하고, 활발한 음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찬불가 한곡에 감흥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청중을 대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음포교에 직접 나서겠다고 다짐해 왔다"는 스님은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찬불가 앨범을 제작했다. 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 가운데 '향심'을 비롯, '영겁을 하루같이' '작은 마음의 노래' 등은 스님이 직접 작사한 것이다.

"'향심'은 제가 노랫말을 쓰고, 작곡가 조영근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마음의 먹물 들이고 모든 것 다바치렵니다'는 노랫말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고, 출가자로서 제 자신의 길을 표현하려했습니다."

스님은 원광대 대학원 음악교육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음악도이면서, 운문사 승가대학 등지에서 스님들에게 불교음악을 강의하고, 또 주말에는 각종 음악공연 현장에서 아름다운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등 누구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88년 삼소회 음악공연을 계기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한 후, 올 1월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기금 음악회를 비롯, 청주공군사관학교 초청음악회, 강화도 선원사 초청음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4월16일에는 인천 간석2동 천주교 성당에서 열리는 작음음악회에서 타종교인들에게 찬불가를 통해 불교의 정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찬불가 앨범 발표와 더불어 사찰합창단 지휘자와 대학강사 8명으로 구성된 '부루나 솔리스트 앙상블'을 결성, 앞으로 보다 폭넓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일상의 갈등 중도적 표현

이왈종씨 '제주 생활의 중도展'

19일까지 가나아트센터

"욕심을 버려야 한다. 집착을 끊어야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다"며 제주도로 떠났던 화가 이왈종씨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제주 생활의 중도'전을 연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중도(中道)를 화두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씨가 지난 10년간의 창작생활을 총 결산하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이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도조작품 31점과 장지그림 41점, 보자기작품 3점 등 75점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중도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꽃, 돌하르방, 배, 새, 노루, 말, 물고기, 자동차, 텔레비전, 전화기 등을 소재로 일상사의 대립과 갈등을 중도적으로 표현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찔레꽃으로 표현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동백꽃으로, 증오하는 사람을 새로, 고통받는 사람을 텔레비전으로, 희망과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물고기로 승화시켜 외인화하는 등 평상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화폭에 그려내고 있다. 이밖에 흙에 갖가지 무늬를 새겨 넣은 항대와 부조, 천을 사용한 콜라주 형태의 대형 보자기 등 새로운 기법과 소재로 한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02)3216-1020


◇한지에 옮겨낸 '제주 생활의 중도'.

이은자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밤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밤'이 12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태평무, 처용무, 살풀이, 승무, 학연화대합설무 등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공연과 지난해 7월에 열린 '제1회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 수상자들의 발표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신진 무용가들의 전통무용 계승수준을 확인할 수 의미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02)3675-6501

해인사 대장경판 DB구축

문화재청, 2004년까지

해인사 대장경판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해 신탁기금 10만달러가 유네스코를 통해 지원된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2월 22일 '2000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문화재 기록 전산화 작업의 하나로 2004년까지 해인사 대장경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강원도 삼척의 준경묘와 연경묘 지역을 문화재 보수용 천연림 육림지로 집중 육성한다. 또 고구려 고분 등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해 10만 달러를 유네스코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북한문화재의 세계유산 등록·신청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만 6천여 기가 보고된 남한 지역 고인돌 보호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해 고인돌마다 고유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한편 12월 세계유산등록이 유력한 고창·화순·강화지역 고인돌의 주변 토지를 매입·정비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만다라 예술제전 현장에서 법명스님이 행위선서화를 시연하고 있다.

만다라 예술제전

새천년 만다라 예술제전이 23일까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화랑에서 열린다.

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전에는 티벳 만다라 120점을 비롯, 도예가 설봉스님의 신작 발표 예비전시품과 법명스님의 행위선서화 시연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진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지정 박정자씨의 금니탱화도 전시되며, 티벳, 네팔의 승무 등 전통민속음악 공연과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몽고 등 7개국의 전통 문화 소품 500여점이 전시판매된다.(02)732-6372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혼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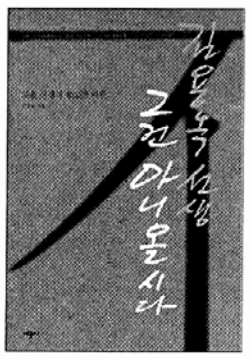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려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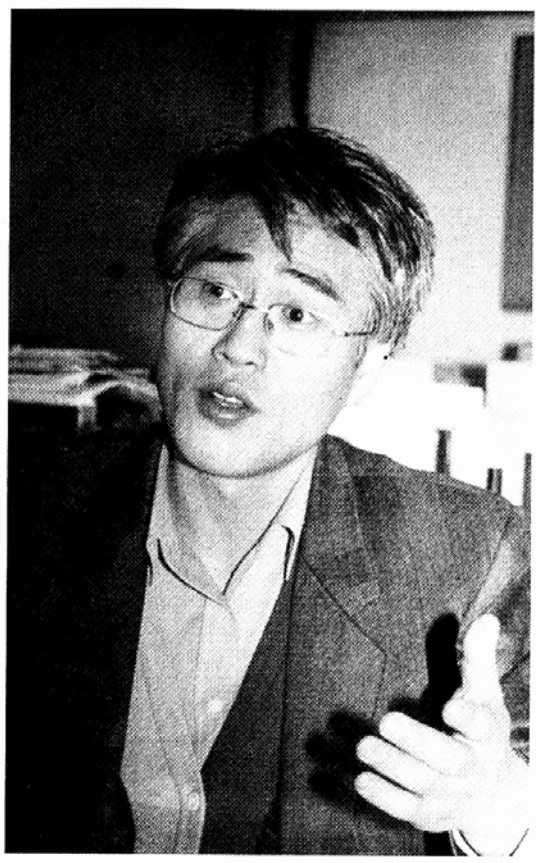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禪의 실참-이론으로 '도올비판'

변상섭씨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도올 김용옥씨의 불교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책이 나왔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 시각들이 표피적으로 던지는 볼멘소리였다면, 소장 불교학자 변상섭씨(동국역경원 역경위원)가 펴낸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시공사)는 선(禪)의 실참과 이론으로 중무장한 논사의 비장한 진검승부라 할 수 있겠다.

김용옥씨를 비판한 글들이 더러 있기는 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씨는 "우주적 정신을 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가 쓴 〈벽암록〉에 대한 해설과 〈금강경강해〉를 읽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 동기를 밝혔다.

글쓴이 변상섭씨는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수좌 생활, 그리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선학을 전공하며 아함·유식·중관학의 논서들을 공부하고 동국대 역경원에서 〈섭대승론석〉을 완역한 소장 불교학자이다.

'화두, 혜능과…' '금강경 강해'
엉터리 번역과 해설
선에 대한 무지의 결과

변씨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김씨의 불교관을 보여주는 〈화두(話頭), 혜능과 셰익스피어〉와 〈금강경 강해〉. 변씨는 이 두 권의 책을 낸 김씨에게 "어째서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바로 "애초부터 선(禪)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도올의 불교사상 비판을 시작한다. 이 책에서 도올 비판은 크게 불교와 선에 대한 무지, 잘못된 번역 두 가지이다.

가장 먼저 비판의 초점을 맞춘 대목은 화두 해설이다. 변씨는 대표적 저서인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라는 책을 도대체 왜 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화두의 본질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화두란 의심을 일으켜 모든 번뇌와 망상을 끊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선가에서는 해설을 금기시해 왔다"며 "김용옥씨가 〈벽암록〉을 해설하고 있는 것은 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즉 화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예로 〈벽암록〉을 설한 원오 극근 선사의 제자 대혜 종고 선사는 스승의 역작을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이는 공연히 말꼬리에 붙들려 헤매는 후학들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씨가 최초로 〈벽암록〉을 해설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경축, 선종사상 최초의 어리석은 바로 출현'이라고 광고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의 또 다른 초점은 번역의 문제다. 변씨는 김씨가 〈금강경 강해〉에서도 웃지 못할 엉터리 번역을 쏟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번역은 불교와 선에 대한 무지와 실수가 합쳐진 걸작(?)이라는 것. 경전을 성경처럼 장과 절로 나누어 번역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는 불교의 대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 그는 도올은 군더더기에 대해서는 잡다한 설명을 길게 늘어 놓으면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개불가취불가설 비법비비법(皆不可取不可設 非法非非法)'이 무슨 뜻인지 한 마디 설명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도올이 이 부분에 침묵하는 이유를 그는 법의 개념을 모르고, 불교의 인식이론인 이제(세속제·승의제)가 무엇인지도 모를뿐 아니라, 비법과 비비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라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이밖에 변씨는 방(棒)과 할(喝)이 선사들의 유치하고 치사한 짓이라고 매도하거나, 열반이 죽음이다, 선은 반불교다 등의 언사는 불교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과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김용옥씨의 불교관에 대한 비판의 엄정함 말고도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여나, 스타급 학자를 비판했다는 화제의 대상으로만 변씨의 작업을 바라보면 비판의 기본 전제인 불교 본질에 대한 투철한 이해라는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아함, 유식, 중관학 등의 논서들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불교의 대의를 깊이 있게 파악하게 하는 훌륭한 불교 입문서로서의 격도 갖추고 있다. 한편 글쓴이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www.buddha-mind.net)도 개설했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좆대가리가 커서 큰 스님이냐?
나는 똥숫간에서 불경(佛經)을 읽는 취미가 생겼다.
방(棒)과 할(喝)같은 어색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짓…."

김용옥씨가 이렇게 삼보를 능멸하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난도질하여도 불교계에서는 그 동안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입각하여 김용옥씨를 비판하는 책을 내게 되었다. 그런 한편 불제자들은 김용옥씨를 비난하기에 앞서 반성해 보는 기회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현대인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의 바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김용옥씨는 불교계를 마치 '임자 없는 빈 산(無主空山)'인줄 알고 삼보를 능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어처구니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도하고 있는데도, 학계와 승가의 일각에서는 김용옥씨의 무지(無知)를,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도적놈을 자기 자식인 줄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닌가. 이제라도 우리는 불법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우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21세기는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사회라고 한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아상실이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고 마음을 닦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구원의 메시지로 새롭게 인식되리라고 확신한다.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강의가 이토록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동양의 사상이 현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이념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요즈음 서양에서도 선(禪)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노자사상에는 불교에서처럼 확고한 인식이론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닦을 수 있는 수행방법도 없다. 그러나 불교는 '대장경'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신이론이 담겨 있고 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갖추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얼마나 종교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 불제자들은 기독교인들처럼 확고한 종교적 확신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내 마음 하나만 깨치면 곧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든다는 것 아닌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번뇌하고 망상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만 끊으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자, 이제는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가자. 이 마음 하나만 닦으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마음을 닦는 공부를 진실로 열심히 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라는 책을 내면서도 김용옥씨를 비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선을 닦는 이유가 무엇인지, 화두란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교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二諦)가 무엇이며, 열반이 무엇이며, 법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쉽고 바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책의 성격상 비판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다보니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릇되게 전한 것이 있었다면 그 죄업을 어디에서 용서받아야 할지…, 두렵고 조심스런 마음에 내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김용옥씨가 저지른 잘못은 충분히 바로잡을 정도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가 말하는 '책으로 못다한 얘기'
"삼보능멸 참을 수 없었다"
"불교 입문서로 읽혔으면…"

통일 염원 詩로 형상화

고은시집 '남과 북'



"꿈속에서 전작시집 남과 북 구상을 자세히 했다. 남과 북에서 함께 읽히는 시집이기를 바란다." 1999년 4월30일 금요일, 고은 시인의 메모다.

고은 시인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통일을 염원하는 시들로 엮은 전작시집 〈남과 북〉(창작과비평사)이다. 이 시집은 1998년 여름, 보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느낀 감회를 노래한 것들이다. '저녁'을 서시로 하고 있는 이 시집은, 남과 북의 수준 낮은 정치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뼈아픈 자각인가 하면, 비정치적인 조율과 문화로서의 음향을 지향하는 분단 이전의 노래이기도 하고, 분단현실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사과 꽃 따는 여인들' '삼수' '언 감자국수'와 같은 시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또 이 시집은 분단 이후 남쪽 시인이 북쪽의 정서를 시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고은 시인은 "현재 상황에서 남북체제를 아우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금만 비켜서기로 한다면, 남북이 함께 살아온 장구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관조스님 사진집
'불단장엄' 출간



불단은 예배대상인 불상이나 탱화를 모신 곳으로, 법당 안에서도 가장 성스럽고 존귀한 자리이다. 이렇게 보면 불단은 가람건축에서 핵심이 된다. 불단의 장엄은 신앙심의 또 다른 표현으로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단에 새겨진 다양한 조각들을 사진으로 담은 〈불단장엄〉(미술문화)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사진집은 사진작가 관조스님이 펴낸 '우리문화보기' 다섯 번째 권으로 보물 제562호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통도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전등사 대웅보전 등의 불단 사진과 도관 해설이 자세히 실려 있다. 또 불단의 기원과 전개, 형식과 유형 등에 대한 이기선씨(미술사학자)의 논문이 실려 있어 불단 장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준다. 값 3만5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금강경 강해	김용옥	통나무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4	노자와 21세기(하)	김용옥	통나무
5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6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7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8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미첼	여시아문
9	선시	지 현	민족사
10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상섭	시공사

도서 안내:(02)737-0695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1시간 3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

이 오디오 북은, 티벳 '死者의 書'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쇼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배경 음악 : 신미야(Jammya) / 번역 : 최항석 / 목소리 : 정두석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90분, 5,000원).
오쇼는이 테잎에서 바르도에 대한 선명과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쇼 -

행사 기간 : 2000년 5월 31일까지(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 우 리 가 정 에 꼭 있 어 야 할 책 들 입 니 다 ·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화제의 신간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방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끌리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오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최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뚝!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 방문사절, 전화상담 -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전화 3471-5008 팩스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21세기와 역경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2역경원은 불교학의 견인차
3.디지털시대와 역경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번역 치중 탈피 학문적 접근 필요

인력-재정난 해결 급선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담은 경전은 불교연구와 신행생활의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 불교문화의 지적 기반으로서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오랜 노력 끝에 완간되는 〈한글대장경〉이 불교연구활동의 기본 텍스트로서 널리 활용되고,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박제화된 고서에 불과할 뿐이다.

〈한글대장경〉은 그동안 불교학자와 일반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학자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번역이 상당부분이고, 일반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옛 문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상의 불완전성은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디지털시대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역경원도 현실 적응력을 갖추어야 할텐데, 올바른 번역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다면 기계적인 디지털화 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간과 더불어 진행될 〈한글대장경〉의 개정작업은 단순한 원문 번역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전본래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유려한 우리말 형상화를 빨리 이루어야 한다. 특히 한글세대에게 부처님이 누구인지,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서는, 다음세대에게 관심밖의 대상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개정작업에서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오역 문제 해결이다. 한 역경관계자는 번역된 〈한글대장경〉중 상당부분이 오역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는 역경인재 부족과 역경내규의 부재,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업적중심주의 등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을 펴낸 조현춘교수(경북대)는 "〈한글대장경〉이 쉽고 바르게 번역되지 않고서는 불교의 대중화는 물론이요,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세계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또한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글대장경〉의 많은 부분에서 번역상의 오류가 발견된다. 이는 한역장경의 집성인 〈고려대장경〉 자체의 오자로 인한 오역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번역자 스스로가 원전을 완벽히 소화하여 온전한 우리말로 옮기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조당집〉(1995)의 경우는 처음 번역당시 〈고려대장경〉의 〈조당집 권제1〉부분의 전사된 글자를 잘못 읽어 오역한 경우다. 이를 법장스님(백양사 강사)은 지난해 역경원에서 펴낸 〈조당집 주해1〉에서 밝히고 있다. "〈조당집〉 해동신개인판기 사문석광준기 편에 '이제 중국에서 편집한 이가 법을 아끼는 흔적을 영원히 떨어버리고 이 땅의 미약한 무리들이 선법(禪法)을 펴려는 미덕을 다하여야 할 것을 사문석자(沙門釋者)들은 소망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금이사문석광준(今以沙門釋匡旛)'의 석광준(釋匡旛)부분을 〈고려대장경〉 보유판의 글씨가 흐릿한 관계로 판독을 잘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이제 사문(沙門) 석광준(釋匡旛)의 바라는 바는 중국에서 편집한 이의 법을 아꼈던 흔적을 영원히 떨쳐버리고 이 땅의 미약한 무리들에게 선법을 홍포하고 찬미하여 깊이 다 환하게 깨닫도록 하는 데 있다'로 번역하고 있다.

한문을 한글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역불전 자체가 번역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승석교수(동국대)는 "한역경전 자체를 석가모니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한역불전은 불론이요, 범본원전을 함께 비교하면서 본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경원 최철환부장은 "초기번역의 경우 서지학적 측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한글대장경〉의 여러부분에서 오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오역을 바로잡기 위해 역경원에서는 대장경 용어집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기 보다는 〈한글대장경〉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활성화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정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한글대장경〉은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조당집〉 〈능엄경〉 〈원각경〉 등 〈한글대장경〉번역본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에서 최초로 번역된 것들이고, 이에 대한 주해서도 발간해 학문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의 성과들을 학문적인 발전으로 끌어올리지 못한채 단순 번역의 수준에만 안주해 왔기에 역경원은 번역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재정과 인력난 등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역경원 스스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능동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경원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디지털시대에 아나로그식의 역할 밖에는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법계불교도협회 인터넷 사이트.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법계불교도협회

휴아스님 설립…불교사회운동 활발

미국에 본부 세계각국에 지회 운영

법계불교도협회(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는 남녀노소를 망라한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종교 공동체이다. 협회의 본부는 미국에 있으며 캐나다, 대만, 말레이지아, 베트남, 홍콩,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지회를 두고 있다. 불교사상을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불교정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교사회운동 NGO이다.

중국 위앙종의 19대째 법통을 이어 받은 과거 중국 만주 지역 출신인 휴아(Hua) 스님(1908~1996년)이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다수의 불교사찰과 참선수행 센터를 건립하였다. 이곳에서 휴아 스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거의 30년 동안 불교경전과 사상에 대한 강연을 포교와 수행의 일환으로 전개하였다. 스님의 불교 사상에 대한 해설서들은 이미 100여권이 넘게 출판되었으며 또한 6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불교사상을 서구세계에 포교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불교사상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서원으로 삼고 있다. 불교의 대각사상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협회의 전신으로 알려진 중국미국불교협회(SinoAmerica Buddhist Association)는 1959년에 설립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세계에 포교하는 일을 주요 설립 목표로 삼았다. 그 뒤 현재의 협회로 활동 반경과 명칭을 확대·변경하였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찰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불교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협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모두 5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협회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인 3년 과정의 승가교육과 2년 과정의 평신도 교육은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3년 과정의 승가교육은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전통적인 승려 품계 절차에 따라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협회 소속 구성원들의 수행풍토는 주로 대승불교 계열의 다섯 가지 불교 종파들의 수행가풍을 따르고 있다. 불교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율종, 참선수행에 매진하는 선종, 불교교리를 연구하는 교종, 주문과 기도에 주력하는 밀교, 염불을 열심히 하는 정토종이 바로 그것이다.

협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는 불교경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협회 산하 기구인 불교경전번역협회(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에서 도맡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100여권의 불교경전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 발행하였다. 협회는 또한 전세계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고품격의 윤리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http://www.drba.org

"21세기 과학 이론적 틀 불교사상서 찾아야"

소광섭 교수 '21세기 물리학의 전망' 발표

물질과 우주의 궁극을 추구해 온 물리학이 가야할 방향은 어디일까? 현대물리학이 직면한 한계를 불교사상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포럼이 열려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대와 대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5회 21세기 발전 모델 포럼에서 소광섭교수(서울대대학원 물리학부)는 '21세기 물리학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에는 물리의 심리가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한 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의의를 갖는다는 불교의 연기론이 과학적 연기론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교수는 이날 고전역학의 과학철학적 관점과 20세기 물리학의 위치를 진단한 후, 미래 물리학의 전망을 불교의 연기론(緣起論)과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소교수는 고전역학은 자연현상의 실재성과 법칙의 객관성에 바탕을 두고 정신과 물질, 관찰자(주관)와 관찰대상(객관)을 엄격히 분리했으나 이같은 관점은 20세기에 들어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해 밑바탕부터 무너지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부파불교시대의 설일체유부(設一切有部)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20세기 물리학의 자연관도 중관불교(中觀佛敎)나 유식불교(唯識佛敎) 혹은 불교적 유심론의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개념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루스타프 융(1875~1961)이 심리학과 물리학의 접점과 관련된 공시성(共時性)의 원리를 발표한 후 국내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물리와 심리의 통일을 다루었다는 점과 불교적 관점에서 물리학의 미래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법화사 복원은 탐라의 역사찾기"

'장보고 선단과 제주법화사' 학술대회

고려 왕실의 원찰이자 장보고가 해상 무역의 안녕을 기원한 사찰이었던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제주도 기념물 13호)는 복원을 앞두고 실체 규명과 함께 복원된 법화사의 역할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화사와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제)는 2월 26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신해양시대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장보고 선단과 제주 법화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중국 산동반도 적산촌 법화원과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법화사 개창 목적과 사적, 복원의 의의 등이 집중 논의된 이번 학술대회는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국제자유도시와 법화사 복원의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데 이어, 김문경 숭실대 교수가 '장보고와 법화삼사'를, 이재룡 숭실대 교수가 '조선 전기 대명(對明) 관계와 제주 법화사 금동아미타삼존여래상'을, 윤명철 동국대 교수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고대 해양교섭에 관한 연구-고대 항로를 중심으로'를, 김덕수 군산대 교수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와 장보고의 법화사'를, 강창화 제주대 교수가 '법화사 발굴유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시몽스님은 "19세기 거대한 화산폭발로 제주의 거의 모든 것이 묻혀 버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화사의 발굴 복원은 가장 오랜 탐라의 역사를 되짚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법화사지는 1982년부터 8차례에 걸친 발굴로 사찰의 규모와 성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화사는 2004년까지 구품연지와 극락전, 선원, 문루 등 13개 동의 당우를 복원해 제주도민들의 정신적 귀의처이자 역사교육의 산실, 문화관광 자원으로 가꿔갈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단신

원효사상 현대적 조명

'원효사상과 21세기-원효로 돌아가자' 동북아 평화센터가 주관하는 원효사상 국제학술대회가 21일,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성배 교수(뉴욕주립대) '화쟁사상의 본질', 신오현교수(경북대) '현대철학의 한계와 원효사상', 카와이교수(일본 동경대) '원효사상과 세계평화' 등이 발표된다. 학술대회에 이어 22일 경주에서 열릴 초청강연회에는 김진홍 목사, 박성배 교수, 신오현 교수 등이 참가한다. (02) 782-0087

무불선원 '덕숭선학' 발간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에서 〈덕숭선학〉을 발간했다.

김지견박사(국제일본문화센터 객원 교수)의 '경허선사 재고', 현각스님(동국대 교수)의 '경허의 선정사상', 최병헌교수(서울대)의 '근대 선종의 부흥과 경허의 수선결사' 등 5편의 논문과 이에 따른 5편의 논평이 담겨있다.

이 책은 지난해 경허대선사 열반 87주년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경허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한 제1회 한국선학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엮은 것이다.

한국종교 제24집 펴내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한국종교 제 24집〉을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불교로 이어진 중·한 두 나라의 우의', '전통사상과 한국종교', '민족종교와 한국사회의 발전' 등 12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화제의 책!



진현종 편저 / 혜명스님 감수
올컬러 / 값 6,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령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절로 외경감을 품게 하는 마이산 탑사!
이제 현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찾아 떠나보기로 하자.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

은행나무 전화(02)3143-0651 팩스(02)3143-0654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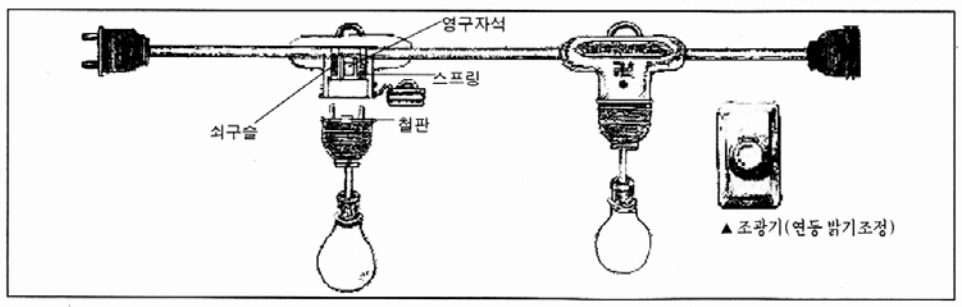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이 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자석식 분리형 연등배선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징
1.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 신성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공장 0341)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부처님 苦·樂 버리고 중도로 깨쳐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8>

오계상경-2

기원전 623년 북인도서 출생
45년간 300회 강경·80세 열반

우리는 부처님을 칭송하면서, 성인 가운데 성인(聖中聖)이시며, 온 세상(三界)의 법왕이시고, 만 생령(四生)의 자비로운 어버이라고 한다. 지면 관계상 불타관의 변천을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1. 가세(家世): 석가모니불의 속명은 싯다르타(siddharta;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이고,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다. 출가하기 전의 아내는 야소다라이고 아들은 라훌라이다. '석가'는 '능인'이라 번역하고 '모니'는 '적묵'이라 한다.

2. 적관(籍貫): 부처님은 북인도 카필라 국의 태자였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분만 전에 당시 풍습에 따라 친정인 천비성에서 해산할 예정이었다.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태자를 낳으니 곧 지금의 세존이다.

3. 시대 : 부처님이 탄생하신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은 남전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원전 623년을 세계 공통으로 하고 있다.

4. 출가(出家) : 태자는 어릴 때 바라문 스승으로부터 문무를 닦아 모두 통달하게 된다. 나중에 성 밖으로 소풍을 나갔다가 늙고, 병들고, 죽은 이와 출가 수행자를 보고 인생의 고통과 무상을 깨닫고, 마침내 29세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게 된다. 6년 동안 스승을 찾아다니며 고행을 한 뒤, 35세에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고, 45년 간 설법하신 뒤 80세에 열반에 들었다.

인도에서 외도들은 대부분 3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세존은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외도들에게 배운 바를 모두 닦고 익힌 뒤에 자신도 알고 저쪽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행이 성도(成道)의 원인이 아니라 불고불락의 팔정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른 도를 깨닫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5. 성불(成佛): 태자는 고행이 성도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곧 고행을 버리고 니련선하 강에 가서 목욕을 하였다. 소 치는 아가씨가 준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뒤, 가야촌의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서 49일 동안 중도를 실천하여 마침내 12월 8일 동이 틀 무렵 대각을 이루고 부처가 되니 바로 35세 때이다.

6. 발심(發心): 『대지도론』 권4, 『구사론』 권18에서, "3대아승지겁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다. 세존이 보살로 계실 때 이 부처님을 만나서 발심하면서 그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발심이다."고 하였다.

7. 수기(授記): 세존께서 옛날에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이름이 '선혜'였다. 제8 부동지(不動地)를 증득한 뒤에 연등불로부터 "장차 91겁을 지난 뒤를 '현겁(賢劫)'이라고 하리니, 그 때 마땅히 부처가 되면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수기를 받았다.(『불본행집경』과 『서옹경』 참고)

8. 전법륜(轉法輪): 세존의 설법은 녹야원에서 시작되어 쿠시나가라에 이르러 끝났는데, 45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300여 회의 강경으로 마땅히 제도할 자를 모두 제도하시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도 역시 제도될 인연을 얻게 하셨다.

9. 원적(圓寂):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사이에서 한밤중에,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여 길상와로 누우신 후, 제자들에게 최후의 가르침을 남기고 조용히 입멸하셨다. 최후의 가르침은 남전과 북전이 서로 다른데, 북전은 『대반열반경』이고, 남전은 『불유교경』이다. 한밤중에 원적하신 것은 중도의 뜻을 나타낸다.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한 이유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했다.

『증일아함경』에 이르기를, "왜 부처에게 공양해야 하는가? 부처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을 항복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며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케 하며, 열반하지 않은 이를 열반케 하고, 보호할 이 없는 이를 보호하고, 장님에게 눈이 되어 주고, 병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악마나 천신보다 뛰어났으니 가장 훌륭한 복전이요,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만 하니라.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였다.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일은 기본이다. 마명 보살이 『붓다차리타』에서 "이 삶을 부처의 삶으로 하겠다(此生爲佛生)"고 하였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인총림 율원장〉

"아미타불 염불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법회중계

광주불교능인회

〈2000년 2월 19일〉



정암 스님
〈옴천사 주지〉

믿음·대원·실천행으로 앉으나 서나 누우나 늘 염불할때 정토 왕생

철오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문과 수행은 마음을 밝히는 것에 긴요하니라. 마음을 밝히는 요건은 염불이 제일이니,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면 반드시 아미타불을 뵙게 되어 다른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연히 마음이 열리나니, 이렇게 염불함이 마음을 밝히는 요건이 아니겠는가. 또한 마음을 밝히는 요건도 염불이 제일이니, 일념으로 염하며 서로 상응하면 일념이 부처님이요, 염마다 상응하면 염마다 부처님이다. 구슬을 흐린 물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듯이 부처님 명호를 산란한 마음에 두면 산란한 마음이라도 부처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렇게 염불함이 마음을 밝히는 요건이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간경·염불·참선·주력은 불교의 4대 수행법입니다.

불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번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중 한가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의 바른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미와 특기가 다르듯 자기에게 맞는 수행의 방편 또한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염불을 강조할까요? 또 시방에 존재하는 부처님이 무수한데, 왜 굳이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는 것일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방에 계신 부처님은 모두 신통력이나 지혜는 같습니다만, 부처님마다 원력과 인연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시방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 원력과 인연이 제일이신 분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이십니다. 〈무량수경〉을 보면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부처님을 찬양하지 않은 부처님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바세계의 중생과 특별히 인연이 가깝고 자비가 무량하신 분이 아미타부처님이십니다. 때문에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빌면 그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여 주듯, 죄를 많이 지은 중생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은 자비를 베풀어 죄업을 소멸하며 주시고 극락왕생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행방편은 길을 갈 때 두 발로 걷는 것과 같고, 아미타불은 목적지를 향하여 우마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을 염하기에 앞서 수행자와 불자님들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원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는 실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공염불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명심하여 염불을 하다보면 나로 인해 아미타부처님의 위신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나도 모르는 새 마음이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말세중생과 재가자들에게는 염불선이 가장 좋은 수행의 방편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는 이 몸이 누구인가를 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여의주는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망상을 여의고 자꾸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장이 소멸되니 염불은 정토에 왕생하는 좋은 수행법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미타불을 근본수행법으로 삼아 무한행복과 큰 깨달음을 이루길 서원합니다.

정리=주용직 광주지사장

"불교는 가장 합리적인 철학"

세계의 불교학 <8> 영국 ③

근본교리와 英 근대사상 접목
학자들 연대 불교학 심층 연구



◇영국에선 다양한 인접학문의 학자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불교를 연구한다. 사진은 캠브리지대 불교 연구팀.

영국에서 빨리어 경전에 대한 번역·해설서 등이 출판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 영국의 불교학계는 이들 연구서를 텍스트로 불교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런던대 토마스 킹턴(Thomas Kington·역사학) 교수는 "이 시기에 불교는 영국인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철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며 단순한 교리 연구에서 철학 연구로 선회했던 불교학 풍토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 신지학회와 같이 영국의 사상계에서는, 불교를 수용하면서부터 풍부한 영감을 토대로 논리를 펴는가 하면 동양적 사유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우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불교가 영국의 근대 사상과 접목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은 영국 특유의 불교철학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다분히 빨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의 학문적 업적에 힘입고 있다. 이 학술단체는 영국의 대표적인 빨리어 경전 연구학자 리즈 데이비스(Rhys Davids·1845~1922)에 의해 1881년 창립되었다. 빨리어 삼장과 주석서를 영역하기 위해 설립된 이 협회는 창립 이후 줄곧 빨리어 삼장에 대한 연구와 번역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20여 년만에 무려 1만5천 쪽 분량의 성과물을 내놓았다. 이들 성과물은 19세기 말부터 영국의 서점가에서는 51권의 낱권의 번역서로 소개되었다. 또 〈팔리어-영어사전〉 〈영어-팔리어 사전〉 〈팔리어 용어색인〉 〈팔리어 입문〉 등 기초 문헌의 발간을 촉진시켜, 불교학자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 연구가들이 불교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협회는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주석서 연구·번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협회를 창립했던 리즈 데이비스는 팔정도를 세상에서 최상승의 진리로 알고 실천한 영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다. 그는 경전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중요시되었던 영국의 불교학 풍토에서 빨리어 경전을 연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선각자다.

1924년 런던불교회(London Buddhist Society)를 창립한 험프레이즈(Chrismas Humphreys, 1901~1983) 또한 빨리경전협회의 번역서를 연구해 불교철학 분야에서 괄목할 업적을 남긴 학자다. 그는 1936년에는 일본 불교학계의 석학인 스즈키 다이세츠와 교류하면서 선불교의 직관적인 지혜를 통해 전쟁의 혼돈에 빠진 영국 사회에 이타적인 연구 활동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소그룹 규모로 불교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부 비판이 일어났다.

당시 영국에서의 불교학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류학, 동양학, 비교 종교학, 법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신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심도 있는 불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맨체스터에서 활동했던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주제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학문적인 연대를 위해 영국불교학협회(United Kingdom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의 창립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협회를 이끌고 있는 맨체스터대 커신스(Cousins·비교종교학) 교수는 "협회의 창립은 불교학계가 본격적으로 불교학 연구에 나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는 현재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불교, 서구불교의 발전을 포함하여 불교의 역사적·현대적 측면에서의 연구, 사회문제의 이론적·수행적·방법론적 연구, 불교의 경전적·언어학적·고고학적·미술사학적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 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전세안내

구분	비고
2인 1실	전세
1인 1실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단 입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

시방세계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조흥은행 189-13-03929-3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발우. 사찰의 모든 큰방에는 키낮는 곳쯤에 발우를 올려 놓는 선반이 만들어져 있다.



◇발우공양 하기 전 게송을 외우는 모습. 수식게(受食偈)를 외울때는 양손으로 어시발우(밥그릇)를 잡아 이마 높이로 올리고 게송을 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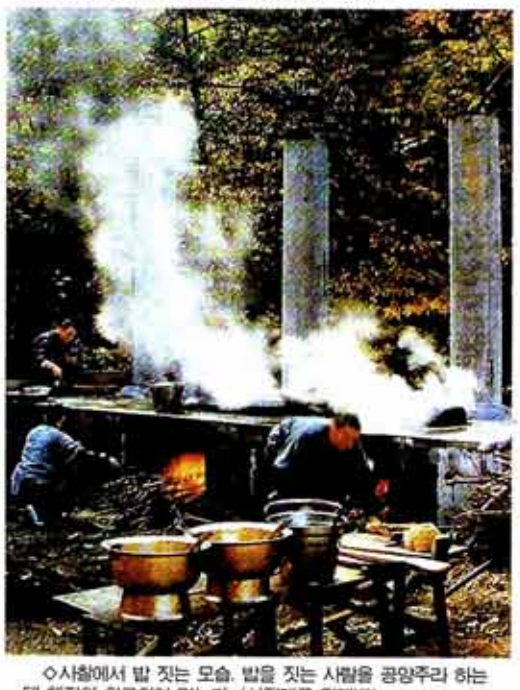
'밥먹는 일'도 수행

발우공양

절약과 공생 배운다



◇발우공양 시작. 죽비 소리로 시작하여 천수, 밥, 국 등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나름대로 엄한 법도가 있다.



◇사찰에서 밥 짓는 모습. 밥을 짓는 사람을 공양주라 하는데 행자의 최고참이 맡는다. (사진제공:김대벽)

사찰 경내의 큰 방에서 한 번의 죽비 소리와 함께 '계공다소양피래처(計功多小 量彼來處) …'라는 게송이 들리면, 이는 분명 스님들이 발우공양을 시작한 것이다. 발우공양이란 스님들의 식사를 말한다. '이 공양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가를 헤아리고 …'라는 이 게송의 뜻만 큼이나 스님들의 공양법은 일반 사람들의 식사와는 다르다. 출가 수행자에게는 '밥 먹는 일'도 수행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행자가 음식을 매개로 중생과 함께하는 자비의 정신이 승겨져 있다. 예배·감사·반성·자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정신은 공양 예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소심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경전에 따르면 발우공양은 모든 중생의 노고와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의 수행에 대해 반성하고 발원하는 마음의 점검이며, 모든 중생과 함께 평등히 나누어 먹겠다는 자비심의 표현 그 자체다.

세간에서는 음식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환경친화적 식사법이라고 극찬하고 있지만, 공양을 하는 수행자의 마음과 발우의 쓰임새를 안다면 결코 놀랍지 않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놀랄 일은 포식과 포만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세간의 음식 문화다.

발우란 '밥다리'의 중국어 음차로 '양에 알맞은 그릇'을 뜻한다. '스님은 옷 세 벌과 발우 한 벌(三衣一鉢)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행자는 한 벌의 발우를 평생 지니고 다니고 또 전법자에게 전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발우공양에는 찬그릇·청수그릇·국그릇·밥그릇 등 모두 네 개의 발우가 사용된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한 개의 발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걸식하여 공양했지만 차츰 공양 횟수와 발우 수 등이 늘어났다. 아침마다 끓주림을 참지 못해 우는 라훌라에게 미음을 먹게 했던 것이 아침공양으로, 또 병자들을 위해 '약석'이라는 이름으로 허가했던 식사는 저녁공양으로 각각 자리잡았다. 발우 수도 걸식 공양에서 절에서 밥을 지어먹는 형태로 바뀌면서 네 개로 늘어났다.

발우공양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지만 그 본질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큰스님부터 갓 출가한 행자까지 같은 반찬과 같은 밥을 먹는 데서는 평등의 정신을 찾을 수 있고, 또 숭늉과 김치 조각으로 발우를 깨끗이 닦아낸 뒤 찌꺼기 하나까지 알뜰히 먹는 과정에서는 절약정신을 찾을 수 있고, 찬이 모자라면 서로 반찬을 덜어 모자란 사람과 나누며, 공양을 마친 후 대중공사를 벌이는 모습에서는 공동체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절약하며, 평등하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맛에 탐착하거나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여기는 방편이 발우공양에 짙게 배어 있다.

발우공양은 '준비'에서 '수발계(收鉢偈)'까지 모두 10단계를 거친다.

▲준비=법당에서 예불을 마친 스님들은 장삼을 입은 채로 밥·국·찬통 등이 마련된 큰 방으로 가서 각자의 발우를 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앉은 채 입승스님의 공양을 알리는 죽비 소리를 기다린다. 밥·국통은 약 1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며, 반찬은 네 가지로 준비된다.

▲회발게(回鉢偈) 및 진발게(展鉢偈)=죽비 소리와 함께 스님들은 발우를 앞에 두고 부처님의 일생을 상징하는 회발게를 송(誦)하고, 자기 앞에 가지런히 발우를 펴면서 공양하는 사람, 공양받는 사람, 공양물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진발게를 송한다.

▲십념(十念)과 진지(進止)=대중스님들이 발우 펴기를 마치면 입승스님은 한 번씩 치는 죽비에 맞추어 십념을 염송하고, 이어 법랍이 낮은 스님들이 일어나 진지를 시작한다. 이때 밥은 진지를 맡은 스님이 임의의 양으로 퍼주는데, 다시 밥통을 들고 돌면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밥과 국을 돌리는 동안 앞에 있는 찬통에서 각자 반찬을 발우에 옮겨 공양할 준비를 마친다.

▲수식게(受食偈)와 봉찬 그리고 오관게(五觀偈)=밥을 담은 발우를 두 손에 모두어 이마에 정대하고 수식게를 송하고, 입승스님의 죽비에 다시 발우를 내리고 합장하여 오관게를 송한다.

▲생반게(生飯偈)와 헌식(獻食)=오관게가 끝나 죽비를 한 번 치면 각자 자기의 공양 중 3~7알의 밥알을 떼어 손바닥에 놓고 생반게를 읊고, 헌식기(獻食器)를 돌려 손바닥 위의 생반을 모두 모아 밖으로 보낸다. 이것은 시방의 귀신들과 함께 공양한다는 뜻이다.

▲공양=생반게송이 끝나고 죽비를 세 번 치면 비로소 공양을 시작한다. 이때 음식 먹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데, 아귀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면 기갈이 더욱 심해지고 욕망의 불이 붙어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또 일체 말을 하지 않는데, 음식 먹는 일이 깨달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임을 생각하고 공양에 대한 고마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허리를 숙여 입을 발우 가까이 해서는 안되고 발우를 들어 입 가까이에 가져와야 한다. 대중스님들의 공양이 끝날 때 쯤 되어서 입승스님은 죽비를 두 번 치는데, 이때 몇 명이 일어나 준비된 숭늉을 들고 들어와 윗 스님부터 차례로 따른다. 숭늉을 받은 스님은 남은 김치 조각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자신의 어시발우와 국발우 그리고 찬발우를 잘 닦은 후 모두 마신다.

▲천수물 돌리기와 발우 씻기=숭늉을 모두 마시면 발우를 씻기 위해 천수물을 돌린다. 천수물은 미지근한 온도인데, 차가우면 발우 씻기가 어렵고 또 뜨거우면 물을 버릴 때 땅 속의 미물들이 상하기 때문이다. 발우 씻은 물이 양동이에 모아져 어간에 가지런히 모이면 방장 스님은 천수물이 깨끗한가를 살핀다. 이 물을 천수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장에 봉안놓은 천수다라니가 이 물에 비치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절수게(絶水偈)=발우의 천수물을 천수물통에 모으면서 각자 자신의 발우를 다시 싼다. 입승스님이 죽비를 한 번 치면 발우를 싸는 동작을 멈추고 모두 수인을 하고 절수게를 송한다. "발우 씻은 물맛이 하늘의 감로수와 같아서 너희 귀신들에게 주노니 모두 배부를 지어다"라는 뜻이 담긴 진언 '옴 마휴라새 사바하'를 세 번 읊는다.

▲대중공사=절수게가 끝나고 아직 공양을 완전히 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에게 알릴 말이나, 공개적으로 해야 할 말을 한다. 특히 새로이 방부를 들여 대중 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반드시 이때 인사를 한다.

▲수발게=전달사항과 주의사항을 모두 알리고 나면 입승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추어 수발게송을 읊는 것으로 공양을 마친다. 이 게송에는 공양을 마치니 삼세의 영웅들도 제압할 힘이 솟고, 일체중생들이 신통을 얻기를 바란다는 대승사상이 녹아 있다.

이와 같이 발우공양은 '식사'라는 단순한 행위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또 수행으로 승화시킨다. 공양이 단지 맛을 탐닉하는 행위가 아니라 평등, 절약, 감사, 공생, 발원 등 불가의 정신을 튼튼히 하는 수행의 한 부분인 것이다.

글=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두광 주위를 깊게새겨 상반신의 입체감을 부각시킨 충북 음성의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신라말 거구 불상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거구마애불입상이다.

마애불을 찾아서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두광주위 깊게 새겨 상반신 입체감
계단식 옷주름·V자형 옷자락 '특색'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에 있는 이 마애여래 입상은 자연 암벽을 이용하여 불신(佛身)을 고부조하였는데 두광 주위를 감실처럼 깊게 새겨 상반신의 입체감을 부각시켰다. 높은 육계, 부피감있는 네모난 얼굴, 눈 코 입의 처리 등에서 형식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으며 손은 몸에 밀착된 채 오른손은 밑으로 내렸고 왼손은 들어 가슴앞에 댄 모습등에서 당시의 서 있는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판적인 신체와 신체의 윤곽을 직선적인 선으로 표현했고 여기에 얇게 빚은 듯한 계단식 옷주름과 V자형의 옷자락 등에서 신라말의 거구 불상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거구의 마애불 입상임을 알게 해준다. 도유형문화재 130호.

글·사진 = 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 금동카드



달마도-앞면 달마도-뒷면 관음도-앞면 지장도-앞면

수맥을 차단하는 동판에 금박을 입힌 카드로 백년 후까지 영원히 간직하실 수 있는 액운을 막아주는 부적과 같은 카드입니다.
※관음도와 지장보살님 카드도 제작되었습니다.
※주의 : 그림으로 인한 색상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금 점안비 : 15,000원

용도:새천년 새해 소원성취부 안전운행·불안정한 분·건강유지 기획 금동스님 제작·공급처 반야원

※ 10장 이상 사찰 법보시용은 할인해 드립니다.
※ 전국 어느곳이나 우편배달 가능합니다.
※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통장금융리언
대구은행:179-08-084837 우체국:7022217-0031235 예금주:연화선원

반야원 (053)943-4170

◆달마도 금동 개금 점안 목걸이◆



달마도 메달 관음도 메달 지장도 메달

※ 목걸이 줄은 별도 구입하셔야 됩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④

但是不見性人 妄稱是佛
단시불견성인 망칭시불
此等衆生 是大罪人
차등중생 시대죄인
誑惑他一切衆生 令入魔界
광타일체중생 영입마계
若不見性 說得十二部經教
약불견성 설득십이부경교
盡是魔說 魔家眷屬
진시마설 마가권속
不是佛家弟子 旣不辨早白
불시불가제자 기불변조백
恐何免生死 若見性卽是佛
공하면생사 약견성즉시불
不見性卽是衆生
불견성즉시중생
若離衆生性
약리중생성
別有佛性可得者
별유불성가득자
佛今在何處 卽衆生性
불금재하처 즉중생성
卽是佛性也 性外無佛
즉시불성야 성외무불
佛卽是性 除此性外

보시지계정진 광흥복리
得成佛否
득성불부
答曰 不得
답왈 부득
又問 因何不得
우문 인하부득
答曰 有少法可得 是有爲法
답왈 유소법가득 시유위법
是因果 是受報 是輪廻法
시인과 시수보 시윤회법
不免生死 何時得成佛道
불면생사 하시득성불도
成佛須是見性
성불수시견성
若不見性 因果等語
약불견성 인과등어
是外道法 若是佛不習外道法
시외도법 약시불불습외도법
佛是無業人 無因果
불시무업인 무인과
但有少法可得
단유소법가득
盡是謗佛 憑何得成
진시방불 빙하득성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불즉시성 제차성외
無佛可得者 佛外無性可得
무불가득자 불외무성가득

但有住着一心一能一解一見
단유주착일심일능일해일견
佛都不許
불도불허

만약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 일컫는 다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으로서 많은 중생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12부 경을 모두 연설한다 해도 다 악마의 말이요,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이렇듯 검고 흰 것을 분간할줄 모르는데 무엇에 의지해 생사를 면하겠는가. 만약 견성하면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성품 밖에 부처가 없으니 부처가 바로 이 성품이다. 그러므로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 성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만약 견성을 못해도 염불하고, 경 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으면 부처가 됩니까."대답했다. "될 수 없다." 다시 물었다. "어째서 안됩니까."대답했다.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이는 유위법이요, 인과법이고,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부처를 이루려면 견성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등의 말이 모두가 외도의 법이 된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業)도 없고 인과도 없다.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짓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마음이라든가, 기능, 견해, 소견 따위에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부처는 이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問曰 若不見性 念佛頌經
답왈 약불견성 염불송경
布施持戒精進 廣興福利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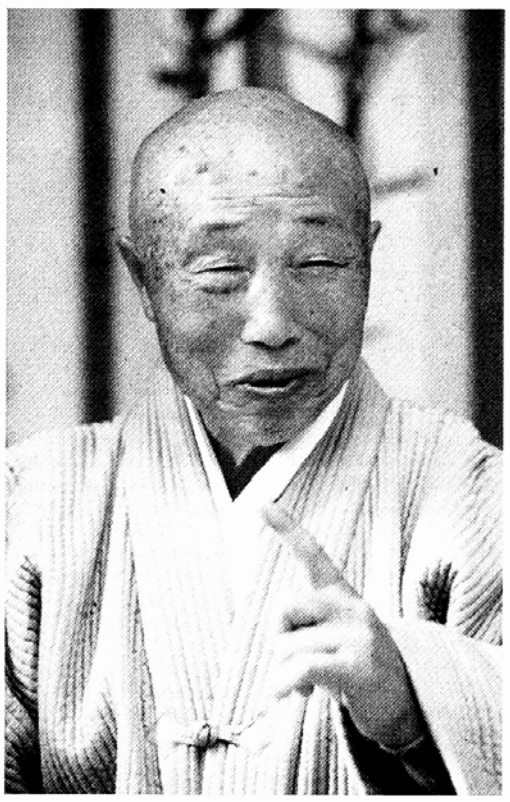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성수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원

음력 정월 초아흐레, 경진년 세배를 드린 기자에게 성수스님은 "오늘까지만 절을 받는다"며 빳빳한 1만원 신권 한 장을 세뱃돈으로 주면서 "작년 한 해 사람 짓하고 산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재보고 달아보고 복되게 살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큰 절에서 모셔지는 여느 큰스님들과는 달리 성수스님은 굽이굽이 흐르는 덕유산 끝자락 마을 속에 선원을 세우고 주석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 안희면 황대마을 황대선원. 붉은 벽돌로된 30여평의 슬라브 법당과 또 다른 건물 선실에는 동안거중인 15명의 스님들과 20여명의 보살들이 결제대중으로 정진하고 있었다.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수행.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해 하거나, 벅찬 일이라며 지레 겁먹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새해이니 만큼 수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스님께 특히 재가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쭈었다.

"생사관 알고 수행 몰입해야"



- 1923년 경남 울주生
- 44년 부산 내원사서 성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8년 범어사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7년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 주지
- 68~72년 범어사 해인사 주지
- 78년 세계불교지도자 대회 (일본주최) 한국측 대표
- 81년 조계종 총무원장
- 94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현재 황대선원 주석

—스님께서는 새해 덕담으로 사람같이 사는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같이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사람 인(人)자를 아는 것이지요.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받들고 위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어른은 거느리고 용서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작년 갈팡질팡하고 살았지만 사람 인자의 원리원칙이 지켜지면, 수행 수십 수도는 절로 됩니다. 입은 헛말 하지 말 것, 손은 헛일 하지 말 것, 발은 헛걸음 걷지 말 것. 이렇게 세가지를 잘 쓰면 집안도 나라도 망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관리 잘하는 것일 뿐입니다.

—스님의 수행처소는 다른 큰스님들과는 달리 전통사찰도 아니고 단출하게 새로 지은 선원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 30대때 통도사 극락암 경봉노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평생 조실 주지로 후학을 이끌어 오신 스님께서는 당시 70세이셨습니다. 내가 "도 닦으러 왔습니다"고 고하니 스님께서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 보시고 "잘왔네. 40년 선에 있어도 눈 뜬놈 안왔어. 이 철에 인물나겠네"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쉬면 될텐데 발심이 성성했던 나는 스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40년 사업을 해도 직공이 제대로 일해내지 못하면 사장의 허물도 있는 것 아닙니까?"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대답 잘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또 나는 아뢰었어요. "아랫사람 탓을 깔아 뭉개시는 것입니까? 책임지십시요"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죽 뽑아 올렸습니다. "춘화만발은 누구든지 좋아하지만, 노화만발은 어느 누가 좋아하리오"라고 말입니다.

지나간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첫째는 탁마의 중요성과 둘째는 절도 중도 새땅에 새 나물을 심어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께 무례를 범한 것이 아니예요, 탁마는 어른에게는 어른 말, 아이에게는 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스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탁마해 주신 것입니다. 내 사상은 새 땅 좋은 곳에 선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원을 가지고 있어요.

6년전 이곳에 황대선원을 지었습니다. 5천여평되는데 넉넉한 편이 아니라, 지금 건천쪽으로 새 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인연터의 중요성에 대해 스님의 각별한 열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설을 보냈으니 곧 봄입니다. 만물이 인연터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없이 도움을 받아 가을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땅의 득(地得)이 있어야 합니다. 새 땅에 새 기운이 나는 것이거든요. 도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부처가 돼 보세요. 천탑 만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고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이라도 다시와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스님들과는 달리 생활인인 재가자들에게는 수행을 해야지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죄의식까지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행하기 전에 인생관부터 알아야 합니다. 즉 왜 수행을 해야하나 하는 목적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삶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고(苦)를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으로 향하는 정진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은 성장하고 또 20년 동안은 여물고 다시 20년은 당당하다가 마지막 20년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어야 80년 인생인데 죽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갈 곳을 찾고, 갈 길을 알아두고, 갈 놈이 누구인지 만나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도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 불교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인색한 편입니다. 사실 수행을 하고싶어 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도 닦기 전 단계의 과정을 실제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해야 하는지 일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첫째, 매일 자고 일어나서 첫 말 한 마디만큼은 득이되고 복이되는 말을 한다. 둘째, 매일 첫 걸음은 무게있는 걸음을 걷는다. 셋째,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동안이라도 부처님 몸 모양으로 당당하고 원만하고 뚜렷하고 투철하며 자상하게 앉아 마음을 집중한다. 이 세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실천해보세요. 수행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왜 해야 하는가 스스로 물어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공부 공자(字)에 빠져 죽는 바보 온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쟁이'가 되지 말라는 뜻이예요. '참선쟁이' '보살쟁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발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자기 걱정들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 발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들은 쉽게 발심해라 혹은 발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심은 어떤 것인지요.

▲발심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천추만세토록 살 것이라는 착각에 몸뚱이를 태산같이 믿고 기대를 거는 어리석은 중생심을 깨는 것이 발심입니다.

—수행은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발심을 했으면 수행의 장도에 나서야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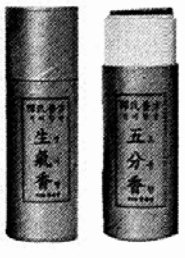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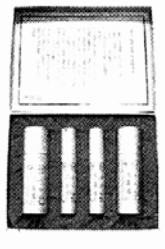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생사가 고(苦)인줄 분명히 알았으면,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목수를 찾아야 하고 글을 배우려면 학자를 찾아야 하듯이 도를 닦으려면 명안종사를 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마음속의 탐진치(貪嗔痴)를 없애야 합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그릇을 비우고 와서 나의 법을 배우라"고 하셨고 과거의 선지식들께서는 "쉬어가라. 끝없는세월동안 익혀온 나쁜 버릇 고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불보살의 가피를 입는 것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갖가지 장애를 막아주어 수행의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합니다.

—스님께서는 '쟁이'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를 잘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율입니다. 수행에 들어가지 전에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계율이 승가의 규율정도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계율은 수행에 밀접한 '도우미'입니다. 수행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조성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외부의 장애를 막아주기도 하고 수행자의 마음이 밖으로 치닫는 장어 또한 막아줍니다. 원효스님은 수행자의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계를 가짐이 청정해야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약 청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참회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라면 응당 계율을 외워야 하며 또 재가자라면 보살계본을 외워야한다고 가르치신것입니다. 심지어 삼귀오계 등을 외면 귀신이 도리어 도망간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은 애정을 지녔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의 출가인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7살 되던해 고향 울주에서, 영웅호걸들은 도사들을 만나 도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원효스님 같은 도사를 만나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수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산문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동래 범어사에 도착했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있으면 나와보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동산스님이 나와 보시더라구요. 그래 내가 "원효대사 같은 도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녀보니 스님들이 산 좋고 물좋은 곳에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놀고 먹는데 전국민이 출가해서 절에서 놀고 먹는다면 누가 그 식량을 댈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면, 이 절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동산스님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네"하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도사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통도사 조계암에 들어가 수도를 하다가 은사이신 성암스님을 만나 출가하게 됐고, 은사스님의 권유로 원효대사가 공부했던 함백산 토굴에 움막을 지어 10년동안 풀만 뜯어 먹으면서 수행했습니다. 원효대사 이후 300년이전 진묵대사 뒤로는 진짜 자기일 제대로 하는 도인들이 흔치 않아요.

—스님께서 오랜 구도의 길에서 선지식들과 교유도 많으셨지만, 재가자들도 많이 이끌어주시면서 뜻깊은 인연도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당대의 고승 중진스님들과 모두 법거량을 나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은 재가자들과의



◇인물이 인연터를 잘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성수스님은 인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밝음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것

철저한 믿음은 장애 없애주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다시 재발심을 내 수행하곤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생사 자재한 법을 구하기 전에는 밥도 물도 먹을 여가 없이 애간장이 녹아 다 타서 무가보배를 얻어서 무애춤을 춘 뒤에 눈 밝은 선각자에게 하루 십여차례 문의해서 실오라기만큼도 헛점이 없어야 정진이 됩니다. 또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길일수록 묻지 않고 가다가 한 발만 헛놓으면 무간지옥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산은 갈수록 높고 물도 갈수록 깊습니다. 도를 안 뒤가 더 어렵습니다. 불조 모두가 은산철벽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수미산이라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원효스님에 대해 깊은 애정을 지녔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의 출가인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7살 되던해 고향 울주에서, 영웅호걸들은 도사들을 만나 도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원효스님 같은 도사를 만나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수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산문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동래 범어사에 도착했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있으면 나와보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동산스님이 나와 보시더라구요. 그래 내가 "원효대사 같은 도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녀보니 스님들이 산 좋고 물좋은 곳에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놀고 먹는데 전국민이 출가해서 절에서 놀고 먹는다면 누가 그 식량을 댈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면, 이 절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동산스님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네"하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도사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통도사 조계암에 들어가 수도를 하다가 은사이신 성암스님을 만나 출가하게 됐고, 은사스님의 권유로 원효대사가 공부했던 함백산 토굴에 움막을 지어 10년동안 풀만 뜯어 먹으면서 수행했습니다. 원효대사 이후 300년이전 진묵대사 뒤로는 진짜 자기일 제대로 하는 도인들이 흔치 않아요.

—스님께서 오랜 구도의 길에서 선지식들과 교유도 많으셨지만, 재가자들도 많이 이끌어주시면서 뜻깊은 인연도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당대의 고승 중진스님들과 모두 법거량을 나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은 재가자들과의 귀한 인연들도 많이 맺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분은 대한불교진흥원을 창설한 장경호거사입니다.

내 나이 31세 당시 그분은 62세였습니다. 내가 통도사 건너편 천성산에 법수원(法水源)이라는 토굴을 짓고 도인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법수원을 근원 원(源)자로 쓴데는 도의 근본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도를 이루려는 원이 강했지요. 당시 스님들은 함께 탁마합시다 해도 오지 않았던 그때 장거사가 한달간 수행하겠다고 왔습니다. 장거사는 절구통수좌로 유명한 효봉스님처럼 2~3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돌부처처럼 정진하는 겁니다. 하루는 자연스럽게 수행체험담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거사가 이렇게 말합디다. "내가 도를 닦았다고 하는 30년 동안 헛일을 했습니다. 10년은 도 닦는다며 또 10년은 도 되는데 나머지 10년은 도를 아는데 쏟았습니다. 결국 헛일을 한셈입니다." 순간 출가 스님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장거사는 거룩한 불사를 하고 싶어했고, 그것을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방 그것도 작은 토굴에서 1~2명이 정진하는 납자들에게 먹을 걱정 없게 해주는 불사를 권했고 내말대로 이행했어요. 6년여 뒤 다시 찾아온 장거사에게 본격적인 인재불사를 권했습니다. 물질만드는 공장에 수억원씩 내면서 사람만드는 공장에는 돈이 많이 드네 적게드네 말이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밥없어서 집없어서 도인 안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후 두달여를 산이 수려하고 강이 좋은 부지를 물색하느라 다녔고, 언양 석남사앞에 터를 잡아 100만평을 측량하는등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대토보상욕심이 늘어나면서 결국 인재도량 조성불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현재의 서울 남산에 대원정사를 지은 것입니다. 장거사는 훌륭한 재가수행자입니다.

—스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를 바로 키우는 사회를 만들 도량이 꼭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너른 데만 보면 눈이 환해져요. 늙은 척 해봐야 반가워 할 이 없고, 나 자랑해도 좋다할 사람 없어 나혼자 기대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달리 만드는 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진인이 나오도록 나는 심부름을 할 생각입니다. 사찰들이 이제는 기복에 그만 빠져들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는 곳'이 절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도인을 길러내는데 온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대담=위영란 부장
(yryu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호탕한 견진스님

무상한 것이 세상의 일이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높고 높은 태산도 무너질 때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야 무엇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작년 초여름때의 일이다. 암으로 일년 여를 고생하던 견진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세납으로 60도 넘기지 못하고 열반에 든 것이다.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가셨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법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더니 결국 과로하여 명을 재촉하지 않았나 싶다. 경기도 광주에 보현사라는 작은 절 하나를 짓기 위하여 몇 년을 무던하게 고생했다. 장례식에 모인 스님의 도반들도 "홀홀 단신으로 사는 비구승이 너무 지나치게 몸을 무리하면 탈이 나는 법이여" 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전에 혈기가 왕성할 때의 일이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서 살다가 산판 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져 그만 결제중의 몇몇 젊은 선객들이 절을 나오고 말았다. 그 길로 우리는 서울로 올라와 도봉산 망월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춘성노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다.

망월사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사람이 춘성노스님의 제자인 견진스님이었다. 묵언(默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결제중에 찾아온 사연을 말씀드리고 방부를 부탁했지만 스님은 묵언을 핑계삼아 말없이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그때 견진스님을 처음 만난 것이다.

법회위해 동분서주하더니

끝내 과로로 열반에…

그후 다시 내가 스님을 만나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몇 년이 지난뒤 오대산 상원사에서였다. 처음 만났을 때 묵언을 하던 것과는 달리 스님은 유머가 풍부하고 입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방선시간 같은 때에 지대방에 앉으면 으례히 스님의 입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은 모두 스님의 주변에 모여 귀를 기울이곤 했다. 동진(童眞)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된 이후 춘성 노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량과 기질을 가꾸고 여러가지 범절을 익혔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 들은 일이 많아 절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일들을 소상하게 잘 알았다. 문헌으로 전해지지 않은 옛날 큰 스님들의 일화 같은 것을 견진스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춘성 노스님의 무애자재한 일화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평소에 정리해 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구참 스님들을 모시고 살면 배우는 것이 많은 법이다.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일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절집안에도 없어진 것이 많은데 그런것을 아주 잘 아는 분이 견진스님이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큰 법회를 할 때 금란방(禁亂榜)을 붙이고 재계를 하는 것 등을 잘 알아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견진스님이었다.

그런가 하면 기질이 막힘없이 활달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망설이지 않고 실행했다. 또 장난을 좋아하여 스님의 주변에는 항상 재미있는 일이 따라다녔다. 거기다가 몸이 날쌔고 힘이 장대했다. 한번은 대중이 모여 짐을 나르게 되었다. 리어카에 짐을 실어 나르는데 지름길로 간다고 하여 길도 없는 산언덕으로 리어카를 밀고갔다. 여럿이 달려들어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는 밀고 해서 끌고가는데 도저히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아예 리어카를 둘러메고 갔다. 그렇게 힘이 넘쳐났다. 젊은 후배들에게는 대선스님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있었다. 어디를 가도 우리 후배들을 여러명씩 데리고 다녔다. 우리도 스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해 지리산 설악산 같은 등산도 스님을 따라서 했고, 만행도 여러번 했다. 스님이 해인사에 살 때는 스님을 따라서 해인사 선원에 방부를 들인 스님들도 많았다. 아무리 모가 난 사람이라도 스님은 그냥 좋아했다. 천성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

하지만 스님도 나이가 들면서 대중처소에 나오지 않았다. 성남에 작은 절을 하나 만들어 그곳에 주석했다. 목청이 좋아서 염불을 특히 잘했는데 많은 스님들이 견진스님을 초청해 염불을 듣고 스님의 법문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법회에 초청법사에 다니기를 몇 년이나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힘으로 좋은 절을 하나 지어 보겠다는 것이 평소의 소박한 원력이었다. 그래서 그 원력이 성취하게 되어 경기도 광주에 땅을 장만해 제법 규모를 갖춘 절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 · 문병성

헌데 세상일이란 무상하기만 한 것이어서 마음먹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건강식품을 잘못 먹어 병원에 갔다가 엉뚱하게도 암 진단을 받았다. 그것도 악성이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져 있어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문병을 갔더니 그때는 음식까지 먹지 못해 기력이 완전히 쇠잔해 있었다. 그런 중에도 절을 짓는 일은 계속 진행하여 지난해 초파일은 미쳐 다 짓지 못한 보현사에서 보냈다. 그것이 마지막 초파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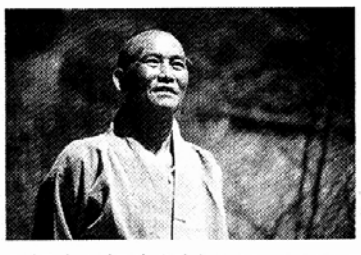
열반소식을 듣고 달려가니 옛날 같이 해인사 상원사 등지에서 공부를 했던 스님들이 와 있었다. 다비를 하는 날은 비조차 내렸다. 한 사람의 선객이 가는 길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다. 스님의 도반스님 한분은 조사에서 "우리들중에 가장 건강하여 늘 건강 하나는 장담을 하더니 어찌하여 가장 먼저 가신단 말이요. 이것은 도대체 어느 조사의 가풍이오? 말 잘하던 언변으로 한번 일러나 보시오"하며 비통해 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리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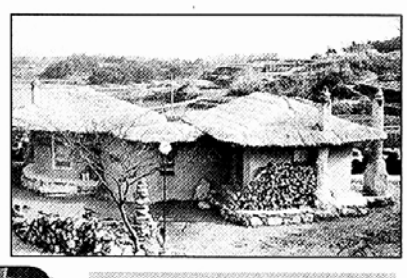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환경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우주의 생명에너지
레이키(REIKI · 靈氣)법 전수

레이키법은 기공수련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속성식 氣 능력자 양성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법은 우주에 가득차 있는 무진장한 레이키(사랑=빛=우주생명에너지=氣)를 언제나 스위치를 넣으면 전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원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법입니다. 레이키법은 소주천을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주천의 천지 기운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ATTUNEMENT)등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레이키에너지는 어튠먼트를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흐르고 사람, 동식물, 생활용품 만물(환경도 포함)에 작용합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중남미, 일본, 동남아, 오스트랄리아 등지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면 21세기에는 레이키에너지는 세계 인류의 각가정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생활도구로서 자리잡혀 갈 것입니다. 의료비의 절감과 생활의 질의 향상 등의 인류의 복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키에너지 입니다. 레이키법은 좋은 기공법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공 수련을 하는 사람이 레이키법을 전수받으면 능력이 향상하고 레이키 요법가도 기공수련을 하면 능력이 향상합니다.

나(박회준)는 지난 20년간 氣, 정신세계분야의 번역저술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에 10권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번역서를 내면서 여러가지 기공수련도 해 보았으나 氣 치료 능력자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부터 여러차례 외국을 내왕하면서 폭넓게 레이키법을 전수받고 상당한 氣치료 능력자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세계에 손색없는 레이키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레이키법을 전수받을 것을 권합니다.

·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사업관련자
·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 ·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소요 70만원⊙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섬세한 공예미 갖춘 고려가람

수덕사 대웅전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나라의 종교를 불교로 삼았던 고려시대는 불교문화가 가장 번창했던 때다.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고려시대의 불화나, 이제는 박물관의 유물로만 전해지는 불교 공예품을 보면, 고도로 발달한 당시 불교 예술의 힘과 정신에 넋을 잃는다. 불교 건축도 대단히 발달하여 중국의 사신으로 개경에 온 서긍이란 사람은 개경 가람들의 뛰어난 감동을 〈고려도경〉이라는 책에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려시대의 가람이 온전히 남은 곳은 하나도 없고, 단지 몇 개의 목조 건물들만 흔적으로 남아있다.



◇수덕사 대웅전의 빼어난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 측면.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재들로만 이루어졌으면서도 정확한 비례체계와 완벽한 조화로 공예품에 가까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가람의 장면들 22

기둥과 기둥 잇는 쇠꼬리 모양의 들보 정교한 비례구성 백미

남한 땅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건물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영천은해사 거조암의 영산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정도다. 북녘 땅에도 성불사 응진전 정도가 남아 남북한 모두 합해 꼽아도 열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건물들이 고려시대 건축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들은 아니다. 수덕사 대웅전이나 봉정사 극락전은 갖은 전란과 사회적 탄압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보존된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불교 건축들은 당연히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있었을 것이고, 남아있는 예들은 극히 평범한 시골 사찰들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건물들의 그 당당한 기품과 아름다움은 대다수 조선시대 건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현존하는 고찰들과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들이며, 그나마 99%는 17세기 이후의 근세 작품들이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란 수적인 우세로 판가름되지는 않는다. 몇 안되는 고려시대의 범작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조선시대 건물들보다 한차원 높은 건축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 건축이 추구했던 이상들을 잘 보여준다. 수덕사 대웅전은 한마디로 잘 짜여진 커다란 가구이며, 건축이라기 보다는 공예품에 가깝다. 대웅전의 아름다움은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5개의 기둥은 건물의 벽면을 정확히 4등분하고 있으며, 가운데 높은 기둥으로 나누어지는 정사각형의 벽면은 정교한 비례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붕틀은 기둥들과 정확하게 결합되어 있어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다. 부엌보다 아름다운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곡선형의 휘어진 들보이다. 쇠꼬리 모양으로 휘어졌다고 해서 '우미량'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부재는, 기둥 사이를 단단히 얽어매 전체 건물을 일체화 시키려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섬세한 아름다움 때문에 장식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다.

훌륭한 공예품은 쓸데없는 장식을 붙이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요소들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기 편하고 튼튼하기만 하다면 예술품이 될 수는 없다. 그 최소의 요소들을 가지고도 아름다움을 창조한 것만이 예술품이 된다. 수덕사 대웅전의 모든 기둥과 들보들은 불필요한 것이 없다.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재들로만 이루어졌으면서도 그 부분부분에서 미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전체적인 구성도 정교한 비례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들은 전부가 이러한 공예적 정신에 충만해 있다.

지금이야 덕숭총림으로 중요한 가람이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산골 사찰이었단 이 곳에 이처럼 훌륭한 건축물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덕사 대웅전을 통해서 고려시대 건축과 예술의 그 높은 수준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작은 사찰 건물을 짓는 지방의 이름없는 건축가나 장인들도 완벽한 기술은 물론, 뛰어난 심미안을 가졌던 위대한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산 수덕사는 여러 가지로 일화가 많은 가람이다.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주석처로 근세 불교의 선풍을 크게 일으킨 성지이며, 개화기의 여류 시인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김일엽 스님이 수행하고 입적한 곳이기도 하다. 절 입구의 수덕여관에는 현대 미술계의 거장, 이응로 화백이 조각한 바위그림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처럼 세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관광명소로 성장한 수덕사에 일대 중창불사의 바람이 불었다. 대웅전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강당을 지었는가 하면, 호젓하게 올라가던 오솔길은 커다란 연못과 거창한 돌다리로 바뀌었다. 거대 강당은 대웅전을 3배쯤 뻥튀기한 형태였고, 돌다리는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를 흉내낸 모사품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려 장인들의 공예적인 솜씨도 없었고, 섬세한 정성도 없었다. 물량만이 투여된 현대의 천박한 과시와 거친 기계적 솜씨만이 있었다. 다행히 이 흉물들을 정리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번 파괴된 모습은 쉽사리 복구되지 않는다. 고려시대의 솜씨를 능가할만한 예술적 건축적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일단은 보존에만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은 그 보존 노력이 선조들의 유산을 파괴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불교 환경운동 '봄바람'

지역·환경·시민 단체와 활발한 연대활동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9년 투쟁 끝 가야산 골프장 무산시켜
불교환경교육원 종교인 환경모임 추진
금산사 '새만금' 갑사 '계룡산' 보존운동

지난 1월7일 서울행정법원이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10일 제기한 해인골프장 '공원사업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결심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사실상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계가 74개 전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 9년동안 끈질기게 투쟁해 온 연대활동의 성과라는데 더욱 의미가 있었다.

최근 불교계가 이처럼 교계내·외 환경·시민단체와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어 정보 취합, 각종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전문지식과 사업의 기획·방법 요령 습득 등을 통한 불교환경운동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오는 4월 춘천에서 '지역생명운동 네트워크 포럼'을 계획하는 등 종교의 벽을 넘어선 지역 환경시민단체 연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지난 90년 출범 이후 전국귀농운동본부 민간환경정책협의회 환경교육전문가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과 각각 연계해 환경운동을 벌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3월중에 '종교인 환경운동 네트워크 모임'도 구성한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양산)도 19~20일 남원 실상사에서 불기 2544년도 1차 회의를 개최, 지리산함양댐백지화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리산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같은 날 제2회 '지리산 열린 학교'를 개설한 실상사(주지 도법)는 지난해 8월 지리산 주변 7개 시군의 80여 종교·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를 구성해 지역생명·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에 앞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7개 교단은 1월28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를 창립했다. 단위 사찰별로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김제 금산사가 1월30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새만금간척사업 부안군대책위' 등 7개 환경단체와 함께 '새만금 매향제'를 봉행하고 새만금 갯벌 보존운동에 나선 것을 비롯 공주 갑사가 지난해 11월 지역 종교인,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들이 참여하는 '공주 계룡산 환경 지킴이 모임'을 구성해 환경보존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경남 산양 용화사가 지난해 10월 불교·시민·산악인단체들로 구성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대구 대자연보전환경협의회 회장을 맡아 대구지역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 대구불교산악회 녹색환경감시단은 영월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금정산 가꾸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환경운동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 침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종단과 해당 사찰은 물론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환경관련 분쟁 사찰은 김천 직지사, 구미 원각사, 울산 청룡암, 구미 보현사, 수원 청련암, 강남 봉은사, 통영 용화사 등 7곳.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김영구간사는 "올해 안에 〈사찰환경 지침서〉를 발간해 환경분쟁 사찰의 사례와 대처방안을 홍보하고 초입주지연수회와 전국본말사주지연수회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 지역 환경·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위원들이 2월22일 댐건설 예정지에서 지리산 함양댐백지화대책위 관계자와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통일 千일강좌 개설
좋은벗들 3일 개강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은 통일 강좌를 143주(1,000일) 동안 상설 운영한다.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 마당 143'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총 12주제로 분리, 실시된다. 3개월 단위로 1개 마당(총 12마당)이 진행되는 통일 강좌의 첫 마당은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계속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리며 강좌는 90분 강의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02)5878-996

◇통일·미래 배움마당 일정

날짜	주 제	강사(총 12강)
3월03일	인류의 미래와 통일시대의 비전	법륜스님(입재식)
3월10일	문명의 전환기에서 바라본 통일	박노해(시인)
3월17일	내안의 분단의식, 통일의 심리학	이장호(서울대교수)
3월24일	북한역사와 사회의 이해	강정구(동국대교수)
3월31일	분단 50년, 남북대화 50년	정세모 (한국종합연구원장)
4월07일	분단의 경제학, 통일의 경제학	임원혁(KDI박사)
4월14일	남성적 질서의 분단과 국복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4월21일	대포를 평기문·군비축소의 평화문제	이철기(동국대교수)
4월28일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난민문제	
4월~5월	숙박교육(북한의 문화체험)	북한영화감상회
5월05일	내가 만난 한국사람들, 내가 만난 조선사람들 (북한 기이점상 소개)	스티브 탈튼(유럽 팀)
5월12일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질서	김영희(한양대교수)
5월19일	북한사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서동만(연세대연구원)
5월26일	21세기 통일미래를 이야기한다	심포지엄, 회향식
5월20일	영동 모금캠페인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일제 한국침략 불자로서 참회"

대행스님-日 정토종 총장 미즈다니 스님 대담

일본 정토종 종무총장(우리나라의 총무원장과 같은 지위) 미즈다니 고오쇼(水谷幸正)스님(72)이 2월 17일 방한해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과 만찬,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과의 대담, 홍윤식 동국대 교수의 정년퇴임기념 논문봉정식 참석 등 일정을 마치고 19일 출국했다. 한일 불교우호교류협의회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한국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크게 기여해 온 미즈다니 스님은 일본 대정대 이시가미 젠노 교수, 동국대 법산스님·홍윤식·염준근 교수 등과 동행해 18일 오전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았다.

미즈다니 스님은 혜원 주지스님의 안내로 먼저 법당을 참배했다. 법당에서 정진중인 스님들 및 신도들과 만난 미즈다니 스님은 "불교를 일본에 전해 준 한국은 마치 형님과도 같은 존재인데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잘못에 대해 불교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참회하고 있다"면서 "21세기에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마음을 합쳐 새 시대를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과 정토종 종무총장 미즈다니 스님과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즈다니 스님=한국에 올 때마다 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겠습니다. 특히 새로 신축된 한마음선원을 방문하니 21세기 앞서가는 새로운 한국사찰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인상이 새롭습니다.

▲대행스님=시대가 변화하니까 불교의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포교방편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진리 그 자체인데 진리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한 주머니에 들어있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미즈다니 스님=오늘 법당에 많은 신도들이 와서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절에 교양강연 들으러 오기는 하지만 수행하러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대행스님의 법력과 수행심에 영향을 받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신도들에게도 각자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를 해도 선 아닌이 없어요.



◇2월 18일 안양 한마음 선원을 방문해 대행스님과 대담을 가진 일본 정토종 종무총장 미즈다니 고오쇼스님. 오른쪽부터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대행스님, 맞은편이 미즈다니 스님, 이시가미 젠노교수, 통역을 담당한 홍윤식 교수.

"진리는 하나…실천이 중요"

"신도 수행모습 보고 감명"

▲대행스님=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실천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 하나 하나가 공생이면서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이나 외부의 일체 생명체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미생물 하나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미물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가 되고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일본은 불교국이라 할 만큼 불교가 성행해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토종은 염불을 주로하는 종단이라 들었는데 종파가 다르다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 안합니다. 찰나찰나 돌아가고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염불하게 해 깨우치는 그 길은 제각기 찾는 것이니까요. 배우는 것도 깨우치는 것도 천차만별이지요. 말을 해도, 움죽거리는 것도, 선을 해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요. 깊은 수행력이 신도들에게 감화를 주어 이렇게 많이 와서들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불교는 해외활동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교민을 위한 불교이고 현지인 교화는 부족합니다. 한마음선원에서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 9개 지원을 설립해 현지인들에게 포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디든지 가 무연중생을 포교하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정토종의 행정책임자로서 그동안의 해외포교에 반성을 하고 현지인 포교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종 조동종, 정토진종 본원사파, 정토진종 대곡파와 더불어 일본 4대 종단중의 하나이다. 스님 1만여명, 사찰 7천여개, 신도 6백만명.

미즈다니 고오쇼 스님 9세때 출가 했으며 지난해 11월 임기 4년의 정토종 종무총장에 취임. 현재 일본불교대 이사장과 전일본불교대 총장도 겸직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삼계에 있으면서도 마음 고요해야 참선

꿈에서 깨어있는 경우 있어…

문 저는 꿈속에서 깨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의도대로 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도 주인공에게 맡기고 나아가야 옳겠지만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것인데 풀리지 않아서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의 법문중에 "꿈속에서도 꿈인 줄 알아야 꿈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스님! 그러면 꿈인 줄 아는 상태에서 몸이 깨어날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 상태가 모든 마음이 마음자리에 모여있는 상태여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는 생각되나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 업식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나오면 그걸 놓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꺼내가지고 생각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말입니다. 일부러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부풀려서 답답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잖습니까?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듣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먹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다니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냥 놓고 다닐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서 몽쳐 놓고는 답답하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생각나면 나는 대로 마음의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온다고 그렇게 일러줘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성계의 얘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지혜롭게 해몽을 해 주었다는 얘기 알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다니고 바로 다니고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거꾸로도 되고 때로는 바로도 되기 때문이죠. 사는 것조차 그런데 꿈이 고정됨이 있겠습니까? 그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들어갈 꿈이고, 색경이 와르르 깨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것이고, 꽃이 와르르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허수아비가 대문 밖에 매달린 것은 모든 만민들이 쳐다 볼 꿈이라고 해몽을 해줬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됐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정물을 새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로 굴려서 나쁜 상황을 바꿔놓는데 의미가 있고 묘미가 있고, 거기서 아주 지혜로운 실천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봤으면 진짜로 믿어야지 봤다가도 못 믿고 도로 끄집어내고 하면 안됩니다.



그림 · 최주현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지고 편안하기 보다 상대를 편안하고 자비롭게

결혼하면 해롭다고 합니다

문 저는 종교가 없는 한 젊은이입니다. 어느 분께 물어야 할지 몰라,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저는 만난지 2년 반이 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님은 절실한 불교신자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의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의 스님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여자쪽 집안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국 10 주년
www.bbsfm.co.kr



진흙속에 연꽃 처럼
다시 피어나겠습니다

불자들의 염원속에 태어난 불교방송이 영광과 시련의
10년을 뒤로하고 새천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불교방송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부처님 법음을 전파하는
미디어로서 새롭게 태어나 혼탁한 세상에 등불이 되겠습니다

불자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포교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서울 FM101.9 MHz
부산 FM89.9 MHz
광주 FM89.7 MHz
대구 FM94.5 MHz
청주 FM96.7 MHz

BBS 불교방송
서울·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02)705-5114/ FAX(02)705-5229
후원회 ARS전화 (02)700-0108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나' 고집하는 생각 놓아야 참나 드러나

☞ 15면에서 계속

하셨답니다.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과거에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결혼하실 때도 두 분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바로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실제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지금 제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첫째,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도 그냥 남들이 다 그러고들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마음이 제대로 성숙되지도 않은 채 모여서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상대를 대하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대화가 없고 하다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쁜 시대에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나는 고등동물이라는 사람으로서 바른 생각과 뜻을 지니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두뇌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잠재해 있는 의식쪽을 음미해보지 않고, 생각해 볼 여유도 두지 않고 현재에 보고 들은 그 의식으로만 살면서 거기에 급급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 소견으로 그대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소견으로 살지 말고 지견(智見)으로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지견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려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한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자리와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 나도 편안한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세요. 진짜로 상대방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에다 굴려 놓으세요.

불교를 모른다고 하니 더더욱 자기 근본 마음자리에 믿고 맡기는 공부를 모르겠기에 주인공 자리를 그냥 '마음자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그 표면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게 하고 먹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내 근본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뿌리로 인해 꽃도 피고 잎사귀도 열리고 나뭇가지도 자라죠. 그거와 같이 인간도, 아니 생명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자기 근본 뿌리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0%의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50% 안 보이는 무의 세상도 있습니다.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100% 계합이 돼서 둘 아니게 합일된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어 자유스럽게 활보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오히려 내가 뛰어다니면서 안달복달 하는 것보다 백곱 천곱 좋은 결과의 씨를 거둘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조화 못 이뤄

문 스님 말씀을 4년 전쯤 처음 책으로 접한 후 불교에 귀의하게 된 젊은이입니다. 선원에 나가 공부를 시작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중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늘 주인공 공부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부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화제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달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며 추구하는 것들에도 별달리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만나기가 귀찮아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주인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인지 찾는 마음과 응대하는 마음이 서로 조화를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행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의 한 말씀 구합니다.

답 마음의 인등을 켜세요. 날마다 말입니다. 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나가는데…'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 놓고 산다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시할 것도, 내가 사는 모습이 고귀할 것도 따로이 없겠죠. 모두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나의 주인인 근본의 나툼일 뿐이니까요. 삼계에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늘 수박 얘길 합니다만 수박 씨는 수박 안에 들어 있으니 들어오고 나가는 일체 생활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온갖 행을 다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앞 뒤 없는 대피리처럼 안과 밖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찰나찰나 돌아갈 때, 꼬집어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이니, 앞 뒤, 안과 밖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 좌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과 밖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되겠지요.

집에 있으나, 번소에 가나, 절에 오나 가나, 법우님이 있는 곳마다 부처님은 계시니까요. 법우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법우님이 없다면 모두가 무효지요. 그러니 법우님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자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몸 떨어지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 공부는 가난하다거나 못 배웠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육신 장애자보다 정신 장애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신 장애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설하고 계시구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대견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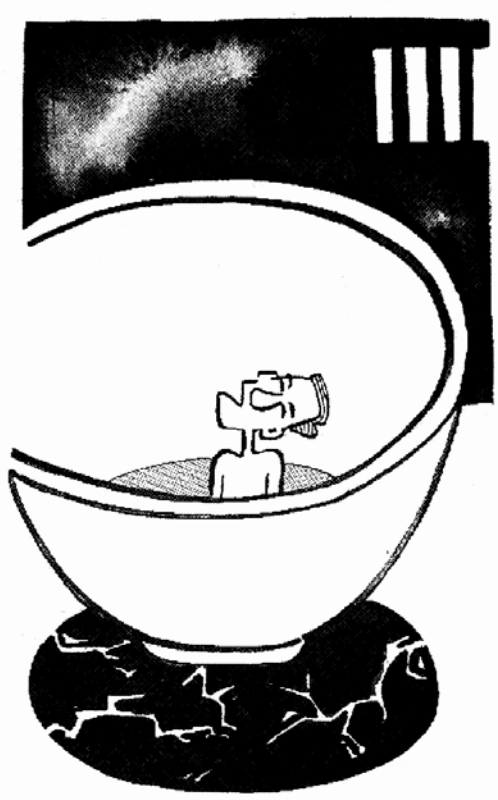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기 실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그 용량을 필요한 대로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두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걸 해냈어도 내가 이걸 다 했다, 내가 해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으려고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이 미치질 못하고 있어 송구스런 마음으로 질문 드리오니 우매한 제자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본래부터 여여하다 했는데, 왜 우리 중생들은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윤회의 고를 벗어나지 못하는지요.

답 인생은 고(苦)가 아닙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불멸의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닌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고 하나 만나고 헤어짐의 당체가 또한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윤회와 괄자와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그릇을 벗어나야 한다고 항상 말해오고 있습니다. 내 그릇이란 나를 고집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를 단단한 통 속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싸워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점점 높고 두텁게 쌓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벽이 높아지고 두터워질수록 내 마음은 가난해지는 것인 즉 그런 것들은 남을 막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 나를 버린다면 두려울게 없습니다
>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두려움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진실로 무서운 감옥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감옥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감옥으로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재판관의 선처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옥에 갇혀서도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유인이라고 활보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집하는 생각을 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런 벽을 허무는 것이요, 가난한 내 마음에 봄바람을 불러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생각이 푹 쉬게 되면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참나의 세계는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복락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벽을 허물기만 하면 이미 내 안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둘 아니게 진실한 마음으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올바르게 마음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문 큰스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는데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막막한데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힌트를 좀 주세요.

답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이의 마음가짐은 다 똑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보는 세상은 참으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원하는 것 모두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운 생각마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학생들은, 당장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다 묵살할 수 있고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이 생기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되구요.

다시 말해서 내일 죽는대도 걱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실하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몸은 물론, 아무 것도 가질 게 없다는 얘기죠. 가진 게 없는 반면에 어차피 죽어도 무엇에도 착이 없다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 어른스럽게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니 매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제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을 길러서 삶의 목표를 물질이나 허망한 일에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발현하는 현명한 학생으로 살길 바랍니다.

자기 소견 아닌 智見으로 살아야 진정한 삶

無의세계 · 有의세계 100% 계합돼야 자유인

성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문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고 성공해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생각조차 버리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하고 지향해야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그 생각조차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날마다 목표를 생각하며 집중해야 하나요? 잠재의식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자를 옳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고요. 뭐가 옳은 걸까요. 진심으로 성공을 바란다면요. 아니면 스님, 이 모든 저의 생각이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는 허망한 건가요? 그래도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답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력을 용도에 따라서 만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 그릇대로 쓸 쓸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 쓰고, 또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얼마를 쓰고, 용량을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무명때문에, 이 색(色)을 보고 너무도 취하는 겁니다. 사랑, 성취, 욕심, 착, 이런 걸로 인해 하나서부터 열까지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놓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데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뭘 가지고 삽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요, 돈을 갖지 말랬나요, 다만 사람이 누구나가 다 육신이 자기 실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그 용량을 필요한 대로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두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걸 해냈어도 내가 이걸 다 했다, 내가 해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으려고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이 미치질 못하고 있어 송구스런 마음으로 질문 드리오니 우매한 제자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본래부터 여여하다 했는데, 왜 우리 중생들은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윤회의 고를 벗어나지 못하는지요.

답 인생은 고(苦)가 아닙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불멸의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닌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고 하나 만나고 헤어짐의 당체가 또한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윤회와 괄자와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그릇을 벗어나야 한다고 항상 말해오고 있습니다. 내 그릇이란 나를 고집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를 단단한 통 속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싸워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점점 높고 두텁게 쌓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벽이 높아지고 두터워질수록 내 마음은 가난해지는 것인 즉 그런 것들은 남을 막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서운 감옥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감옥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감옥으로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재판관의 선처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옥에 갇혀서도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유인이라고 활보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집하는 생각을 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런 벽을 허무는 것이요, 가난한 내 마음에 봄바람을 불러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생각이 푹 쉬게 되면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참나의 세계는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복락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벽을 허물기만 하면 이미 내 안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둘 아니게 진실한 마음으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올바르게 마음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문 큰스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는데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막막한데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힌트를 좀 주세요.

답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이의 마음가짐은 다 똑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보는 세상은 참으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원하는 것 모두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운 생각마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학생들은, 당장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다 묵살할 수 있고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이 생기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되구요.

다시 말해서 내일 죽는대도 걱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실하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몸은 물론, 아무 것도 가질 게 없다는 얘기죠. 가진 게 없는 반면에 어차피 죽어도 무엇에도 착이 없다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 어른스럽게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니 매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제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을 길러서 삶의 목표를 물질이나 허망한 일에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발현하는 현명한 학생으로 살길 바랍니다.

답답한 무언가가 치밀어올라…

문 오늘은 촛불재 회향날입니다. 이번 촛불재는 작년보다 마음이 훨씬 달라서 스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몸이 아파서 몇번씩 입원을 되풀이하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이러다 또 딴 거를 합니다. 이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 스위치는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딴 일을 하려면 그거를 또 돌립니다.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쓰다가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불을 끕니다. 끄고 이쪽으로 또 와서 불을 켜고서 또 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하나 하나 놓고 가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놓고 갔는데도 불구해 놓고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고 나면 돌아서서는 딴 거하고, 그것은 놓고 벌써 또 딴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씀씀이를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의 용량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듯이, 자기의 살림대로, 차원대로, 생활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성공을 꼭 해야겠다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인공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일체를 모두 놓는다는 생각없이 그냥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주인공에 맡겨놓고 몸은 부지런히 뛰어보세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걸리지 않고 진정 자재로이 사방이 탁 터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윤회의 苦 벗어나려면…

문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큰스님 가르침 감사하오며 열심히 따르다가 실수하여 절에 한번 왔다 가기만 해도 두절됐던 통신이 터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법회는 왜 하며, 절에는 왜 다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그건 학교라는 곳에서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기 때문인 것처럼 마음 공부하는 신도들도 절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충전이 된다 이 소립니다. 누가 말을 해주고 안해주고 그걸 떠나서 법당에 와서 정성을 들이고 가고, 어디가 어떻든지 하나의 원을 세워서 다닌다면은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배우고 하면서 길을 가다가 한 생각을 해도 그냥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절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정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어렵거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두들 허공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도 한마음선원이 있으니 그곳 스님들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으니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토론도 하기 바랍니다. 혼자서 공부하다보면 넓혀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굳은 신심으로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믿고 맡기려면…

문 큰스님께서는 마음공부를 하실 때 정말 애절하고, 목숨도 놓아버리실 정도로 하신 것을 책에서 보았고 법문 하실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공부를 할 때 어떨 때는 절실히 하다가도 어느새 주인공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큰스님처럼 애절하고 절실하게 주인공에 믿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나를 버린다면 아무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법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고 아무 것도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꼭 하고 갈 것이 있다, 내가 무엇을 꼭 해야한다, 내가 꼭 했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다 부질 없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되면 죽으면 그만이고, 살면 사는 거고, 그냥 그저 길을 걸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생각 '나'라는 것을 다 버린다면 몸 속에 든 악업, 선업도 다 그냥 송두리째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덩어리 하나, 그것에 착을 두지 않는다면 '멸'하게 되고 그리고 '도'가 되는 겁니다.

법공양 페이지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되는지요

문 저는 인터넷을 통해 처음 큰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방황에 밝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주인공에 관하면서 달라진 것은 주변 사람들 거의 모두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저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또다시 컴퓨터를 통해 글을 올립니다. 규칙적으로 법회등에 참석하지 않고도 올바르게 주인공을 관하고 있는지 어쩐지 제가 제대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에도 근무할때가 많고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다보니 단지 한마음요전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음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저의 이기적인 상상력인지 아니면 주인공의 큰마음인지 궁금합니다.

답 공부하면서 그런 변화가 생겼다니 참 기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공부라는 이름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의 진리를 파악하고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주인공 찾으라는데 굳이 절에 가야하나?"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절에 한번 왔다 가기만 해도 두절됐던 통신이 터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법회는 왜 하며, 절에는 왜 다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그건 학교라는 곳에서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기 때문인 것처럼 마음 공부하는 신도들도 절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충전이 된다 이 소립니다. 누가 말을 해주고 안해주고 그걸 떠나서 법당에 와서 정성을 들이고 가고, 어디가 어떻든지 하나의 원을 세워서 다닌다면은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배우고 하면서 길을 가다가 한 생각을 해도 그냥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절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정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어렵거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두들 허공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도 한마음선원이 있으니 그곳 스님들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으니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토론도 하기 바랍니다. 혼자서 공부하다보면 넓혀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굳은 신심으로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믿고 맡기려면…

문 큰스님께서는 마음공부를 하실 때 정말 애절하고, 목숨도 놓아버리실 정도로 하신 것을 책에서 보았고 법문 하실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공부를 할 때 어떨 때는 절실히 하다가도 어느새 주인공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큰스님처럼 애절하고 절실하게 주인공에 믿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나를 버린다면 아무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법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고 아무 것도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꼭 하고 갈 것이 있다, 내가 무엇을 꼭 해야한다, 내가 꼭 했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다 부질 없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되면 죽으면 그만이고, 살면 사는 거고, 그냥 그저 길을 걸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생각 '나'라는 것을 다 버린다면 몸 속에 든 악업, 선업도 다 그냥 송두리째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덩어리 하나, 그것에 착을 두지 않는다면 '멸'하게 되고 그리고 '도'가 되는 겁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믿음과 만족을 드리는 동천 황토마을
황토방 흙벽돌 제조 · 판매
황토방 시공전문
대표 이 해 구 합장
충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10번지
0594)867-1988,4037

강좌

!불가 피아노 렛슨
신라 · 워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째즈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24-3517 (서울)
011)742-1999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신 사찰에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쵯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 · 중급반 · 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02)481-4482

구인구직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 비구니스님 2분
· 독채요사 및 독방 제공
· 가버운 소임에 최상의 대우
· 소임외 개인시간 보장(학원등 가능)
울산시내의 고요한 산사
조계사정토사 052)258-9944-46
정토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200명.
개강 : 3월 2일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6)342-7777

구 직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 곳을 찾습니다
0351)826-1152
주간에 전화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30~40대
목포
011)665-7037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고려선원
02)
419-0108

주방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50대
011)
525-4446

부전스님 구합니다
051)
508-5165
051)
508-677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
387-3004

배우자를 찾습니다
철학관 임법당 운영하는
42세 법사입니다.
30대중반 이상의 여성을
배우자로 원합니다.
연락 바랍니다.
011)9612-1904

배우자를 찾습니다
◆이름 : 양 00 ◆나이: 54년생(차남)
◆본적 : 서울 ◆현거주지: 서울
◆가족사항 : 15세된 중3학년 남1명
◆혼자된 사유: 이혼(93년초)
◆직업: 자영업(건축계통)
◆배우자요건: 자녀가 없고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주관이 뚜렷한 여성불자
◆저의 마음: 살다보면 육체적으로 고생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마음 고생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전화는 하지 마세요.
017)207-5049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임하
칠지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반야심경 액자
◆원목 CASE
◆추사체 영인본
◆반야바라 밀다심경
전체가 흑색판에 24k
도금으로 되었음
◆크기 73cm×46.5cm×3cm
◆사무실 또는 가정
거실에 어울리는 액자
◆가격 : ₩200,000
02)2272-1341

佛 파자명리 수강생 모집
한문에 정진해도 득도가 안되고
사주 철학 운명감정에 관심이 많은 분
1. 포교원 운영하시는 비구, 비구니 스님
2. 파자명리 학술을 완성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원장 직장으로 비법을 전수하므로 책임 지도 완성
※불교에 정진 하시는 불자님 환영합니다.
동래 학술원 (동래 등기소 정문앞)
051)554-1237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인천 시내 중심가
◆대지 : 50평
◆위치 법당 : 25평/요사 25평
◆위치 가액 : 2억
◆전국의 사찰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토굴 안내
◆ 위치 : 김천역에서 10분거리
국도변에서는 2~3분거리
◆ 전답 1,800평, 적벽돌과 기와집으로 28평짜리 집이 有
◆ 방 2, 거실, 법당 1(大), 목욕탕, 주방,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7천만원
◆ 산 45,000평(평당 3천원)
011)465-1017/0431)264-8220

사찰 안내
◆위 치 :경남 고성군
◆부 지 : 280평
◆법 당 : 30평 ◆요사채 : 30평
◆산신각 : 3평, 기타부속물 : 종각
◆가 액 : 1억 3천(절충가능)
0556)674-4024
011)581-1237

포교당 안내
◆위치 : 울산시 우정동
아파트 단지 2,500세대
◆시설비 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전세 2,500만원 가능
052)245-6689
011)9576-6338

토굴(전원주택) 부지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평수 : 422평
◆특징 : 산속 맑은 계곡 옆 평지 도로완벽 전기 전화 有.
◆가액 : 3천만원(답사후 결정)
0563)337-5156
※ 오후 연락

사찰 안내
◆위치: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번지
◆전체평수: 1.950평,
◆대지: 200평
◆법당: 40평 전통한옥(임법당15평)
◆특징: 우리나라 신장군 도량에 고래산이 좌우로 둘러 있음.교통이 편리하고, 신축 법당 기초 암벽 있음.
◆가격: 상담후 결정
011)655-3883

사찰 안내
◇위 치 : 안전
◇법 당 : 20평
◇지장전 : 40평
◇요 사 : 40평
◇부 지 : 43평
◇가 액 : 1억 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분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군포시 당동
◆대지 : 120평(3면도로접)
◆건평 : 120평
◆법당 : 30평
◆주택, 상가 90평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343)454-1133
011)386-6467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북고령
(대구에서 30분거리)
◆평수 5천 8백평
◆건물 : 법당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2동(각 30평씩), 공양실 12평, 납골당, 부도 적지 경관 수려
◆가액 : 답사후 절충
0543)954-0391
011)501-2219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 안내
◆위치 : 합천 근교
◆대지 : 250평
◆건물 : 법당 25평, 산신각 1동, 요사채 2동(25평 1, 20평 1), 용왕당 1동
◆가액 : 답사후 절충
0599)934-0076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
◆대지 : 477평
◆한옥집 40평, 임법당, 방5, 공양칸 욕실 완벽
◆국도서 1km정도서 좌우포장, 주차장 완비
◆가액 : 7천만원
◆별장도 좋고 가족묘로도 좋음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바랍니다.
011)655-3883

절터 안내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동마을
◆부지 1,080평
◆가액 : 상담후 절충
◆특징 : 감나무 10년생 50그루 천연 암반수
0667)772-2050(이병기)
011)390-205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 이상)
◆ 법당 28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55평, 삼성각, 창고, 주차장, 시설일체 A급
◆ 특징 : 계곡과 경관이 좋으며 교통 편리,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3천(절충가능)
0547)436-5036

사찰 안내
◆위치 : 이천시 대포동
◆대지 188평, 법당 23평, 주택 32평
◆가격: 1억 2천만원(사정상 싸게 양도)
전세가 6천5백만원
(장기 5년~10년 가능함)
◆이천시내에서 2km,
서울에서 45분거리 <이천시까지 2007년도 전철예정지임>
0336)633-3183/018)238-1760

포교당 안내
◆위치: 울산시 아파트
밀집 지역
◆건물: 2층 42평
◆가격: 전세2천 (월 30)
◆권리금·시설물:1,700만원
011)429-0222

토굴(급)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영각사 입구
◆대지 : 450평, 실평수 600평
◆건평 : 약80평, 황토방(大)1, 일반1, 창고1, 주차시설, 조경완비.
◆가액 : 8천만원(실비)
※ 수행승, 요양승 적합.
0591)747-4890
011)9601-4228

사찰 안내
◆위치 : 합천근교
◆대지 250평, 산신각1동, 요사채2동 (25평1, 20평1)용왕당1동
◆가격: 답사후 결정
0599)934-0076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3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음성군 소재
◆대지 : 2,400평
◆법당 25평, 요사 50평
◆법당 앞 잔디밭 500평과 연못 있음
◆산세좋음
◆실버타운 및 기도도량 적지임
◆가액 : 3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 양도 · 양수하실 분 구합니다.

사찰 안내
대가람 인수하실 분
찾습니다.
·답사후 가격절충
017)373-5998

사찰 안내
◆위치: 경남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국립공원 대원사 계곡
◆면적: 약 7만평
◆건물: 2층 콘크리트 산장
◆특징:지리산국립공원내 최고의 명당자리이며 산세가 수려하고 주변에 일체 번잡한 시설이 없음.별장 및 농장터로도 적합.14년생 잣나무등 다수 식재
◆가액: 소유자 사정으로 파격가에 양도함 (구체적인 금액은 답사후절충)
011-879-3328(주)
0591-746-9127(야)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하동 금남 소재
◆평수 : 약 300평
◆법당 22평 목조건물
◆요사채 35평 목조 기와집
◆창고, 화장실, 주차장완비 욕실
◆특징: 동네 어귀 산아래 천하명당 밭목터 남향지, 산수물 좋음.
◆가격: 2억 2천만원
0595)883-2448/011)831-4712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5천만원
02)2618-0767

사찰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
◆면적 : 330평
◆법당, 요사채, 유치원
◆가액 : 8억(가격 조정됨)
062)224-6696/011)601-6663

불자 세상보기

"재산모아 이웃에 나눌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부자"

부처님 재세시 유명한 부자였던 '마하나마'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하나마는 평생 싸라기밥을 먹고 남루한 베옷만을 입으며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됐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닫고 식사를 했던 구두쇠다.

〈본생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시비라는 나라의 제춧타라라는 도시에 산자야라는 왕의 아들 벳산타 태자는 백성들이 편안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보시해야 한다는 한 바라문의 말에 기꺼이 따랐다. 바라문은 아내와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만인의 행복을 위해 보시바라밀을 성취한 태자를 칭송했고, 제춧타라는 크게 번성했다.

최근 기부금의 소득공제범위에 대한 논란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부금문화를 다시 생각케 한다. 얼마전 밝혀진 우리나라 청소년 패션업계가 1년에 4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사회환원은 겨우 8억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우리 기업이 마하나마와 닮은꼴임을 잘 보여준다.

한국 기업은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다. 98년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이 한해동안 세전이익의 9.4%를 기록, 미국 기업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산업에 진출하는 등 재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또다른 투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실질적 사회환원은 저조한 상태다.

청소년 패션업계 1년 4천억 이익 사회환원 8억뿐

인색한 기부문화는 우리사회에도 만연돼 있다. 지난해말 국제아동기금(UNICEF)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아동기금 국가위원회가 설치된 37개국중 기부금 현황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불우한 이웃을 지원하는 '기부문화'가 결여돼 있다는 반증이다. 그나마 간혹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도 구멍가게나 김밥집 할머니들이다. 소위 '있는 사람들'은 나눠갖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벤처기업으로 큰 돈을 번 미국의 젊은 갑부들은 앞다퉈 자선사업에 나서고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현재 675개의 자선사업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영리 재단의 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얼마전 빌케이츠와 테드 터너가 제3세계 소아마비퇴치 비용으로 5천만달러(약 6백억원)와 2천8백만달러를 내놓은 것이나, 미국 기업들이 세전 수입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내놓고 있는 관행, 또 국민의 절반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럽기만 하다. 이들이 이렇게 사회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벳산타 태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기꺼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여지면 가치는 배로 늘어난다. 반대로 잘못 쓰면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돈이란 어떻게 모으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마하나마는 결국 그렇게 아끼던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하나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결코 훌륭한 재산가가 아니오. 그는 자기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요. 재산을 모아 가난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부자라 할 것이오"라고.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시론

속 차리자



류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 포교사회학〉

2월 20일 한국은행은 '최근의 수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상수지흑자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수입의 과다한 증가가 그 원인이며 여기에 사치성 고급소비재의 수입증가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제차 수입이 1년새 378%나 증가했고 골프용품(153%) 음향기기(111%) 담배(5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마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내실보다는 불요불급한 외형중시의 고질적인 병이 도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대가를 아직 채 치르기도 전에 벌써 또 샴페인 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나마나 과시소비와 도덕적 해이가 일상화된 유한계급의 짓 일게다. 마침 위정자에게는 정치적 업적의 과시가 요구되는 선거국면이 아닌가?

최근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공교롭게도 단군이래 최대의 국치라 일컫는 'IMF 체제'를 겪기 바로 직전인 1997년 말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과시정치와 과시소비가 만날 때, 1997년 말의 그 나물과 그 밥이 만난 것처럼, 국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경상수지와 물가는 불안해지는 등 정치경제적 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흥청망청의 결과 'IMF 체제'였는데 또 다시 반복하나"

이러할 때 유한계급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김치국이다. 마른 떡을 먹을 때에는 김치국이 제격이듯이, IMF를 벗어나려는 징후를 보이는 때일수록 유한계급은 억제된 욕망을 한꺼번에 마구 채우기에 앞서 김치국으로 속부터 차리는 것이 좋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에도, 그러나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남이 샴페인을 터뜨린다고 혹은 남이 김치국을 먹는다고, 김치국부터 마시면 당연지사 속만 쓰릴 뿐이다. 떡을 기다리느라 애간장도 탄다. 여차하면 떡 구경은 못하고 삿된 망상만 키워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는 김치국 이전에 떡이 우선 준비되어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대중 정부는 이전정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애국주의나 국수주의에 호소하여 고급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이는 경상수지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데는 기여할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일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정책은 국내 대기업의 시장 독점구조를 연장하는 효과에 다름 아니며, 이 효과는 다시 유한계급의 사치성 고급수입품의 구매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서민들에게는 떡 준비를 점점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정부는 유한계급에게는 김치국을 나눠주고 서민들에게는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국면은 정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일부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시각을 김치국이나 떡이 아닌 샴페인으로 돌려놓는 일에 혈안이다.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일부 몰지각한 유한계급은 샴페인을 터트리고 많은 서민들은 샴페인 터트릴 날만 고대하는 등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

최근의 경상수지악화 및 실업율 증가 현상을 보면, 이 모두가 부질없는 망상이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수준을 샴페인에서 김치국으로, 그리고 김치국에서 떡 준비로 낮추어 줄 수 있는 지혜가 긴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개입할 여지가 발생한다. 물질의 문제가 곧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즉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참 주인을 찾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유한계급이든 서민들이든 모두가 자신의 참 주인을 찾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회원로 및 각계 대표자



각계 원로 공명선거 촉구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들은 2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지역주의, 금권 · 탈법선거 극복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갖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고'

먼지 · 아황산가스 등 심각
2006년엔 물부족 국가

몇년 후가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길을 다닐 때 마스크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식수도 일주일에 두 세 번 제한급수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적어도 현재와 같이 환경오염과 물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면.

2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99년 환경통계 국가별 오염물질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SO_2) · 먼지 · 이산화질소(NO_2)등 대기오염물질의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선진국은 물론 한때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했던 멕시코보다 14~20배 가량 많아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단위면적당 한국이 151.1t으로 멕시코(11.0t), 미국(19.7t)에 비해 최고 14배 많았으며, 먼지 배출량도 42.6t으로 미국(3.6t) 프랑스(3.8t)에 비해 최고 20배 이상 수준을 웃돌았다. 이산화질소 배출량 역시 한국이 126.7t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5.5~16배 가량 높았다.

OECD통계는 또 1000ha당 먼지 배출량도 멕시코가 2.0t, 미국이 3.6t, 프랑스가 3.8t인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은 42.6t으로 최고 20배 이상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먼지오염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 자료와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지난달 20일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리비아 · 모로코 등 사막국가들처럼 '물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평균 물사용량은 395ℓ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프랑스(281ℓ) 덴마크(246ℓ) 독일(132ℓ)보다 최고 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은 1인당 연간 사용가능한 물이 1000t 미만이면 '물기근 국가군', 1000~2000t이면 '물부족 국가군', 2000t 이상이면 '물풍요 국가군'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법망경〉에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가르침 속에는 환경을 파괴하면 그 과보는 결국 파괴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불교는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니라는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 사상을 강조해 왔다. 환경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시화공단 인근 17개교 소음때문에 '확성기 수업'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배후에 조성된 시화아파트 단지내 학교 17곳(초등학교 8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3곳)이 차량 소음과 악취, 매연 등 각종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학교 앞과 옆으로 6차선 산업도로가 지나고 있는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봄 · 여름에는 마이크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한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에 확성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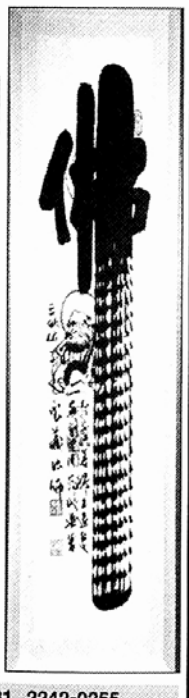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관할 안산교육청 등은 아직까지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 단지를 조성한 수자원공사측은 "교육문제는 관할이 아닌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시도 "시화단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데다 방음벽 설치 등은 예산이 없어 엄두를 못낸다"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다.

초조달마는 중국에 와서 소림사라는 명찰에 들어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머물면서 벽을 향해 9년간 좌선을 했다. 9년간의 좌선, 그것은 초조달마의 구도열과 소림사라는 환경이 한데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초조달마가 시화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과연 9년간의 좌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곳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교육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백년대계'라고도 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처가 있어야겠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천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온누리 자비 광명(光明)으로
두루하신 부처님!
21세기를 향하여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현대결혼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혼인문화를 새로운 각도로 구상하고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큰 사랑으로 현대를 지켜봐
주십시요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깃든는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맑게 해줍니다.
⊙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쉼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샘솟는 듯 합니다.
소납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집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末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혜총스님 지음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614-052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333-2 전화 (051) 865-4383 · 팩스 865-4821
혜총스님의 중노릇

東(교리)-西(응용)불교 '만남의 장'

네팔 제6차 국제여성불교도회의

비구니 교육·사회활동 중요성 강조

복지·과학·심리등 불교활용법 제시

21세기 여성의 해를 맞아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국제 여성 불자들의 모임인 사카디타(SAKYADHITA)가 주최하는 '제6차 국제여성불교도 회의'가 2월1일부터 6일간 네팔 룸비니에서 열려 세계 여성 불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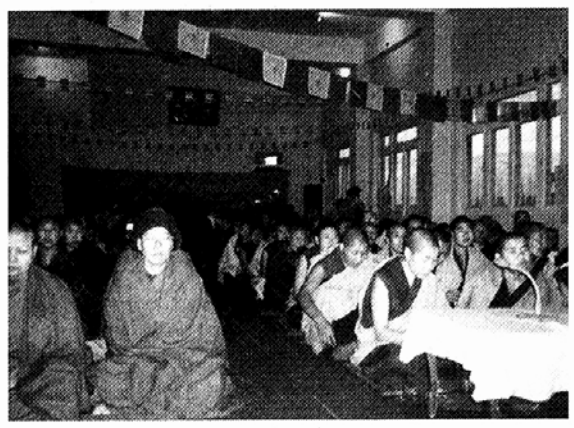
미국, 유럽, 아프리카, 티벳 등 25개국에서 여성 출가자와 여성불교학자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한국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운월스님(동국대 강사)이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운월스님은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을 제외하고는 비구니스님들에게 법문조차 말기지 않는 것이 세계 불교의 현실"이라며 "비구니스님들의 지위가 격상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교육과 현실 참여적인 사회봉사 등을 통해 독립적인 교단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 스님은 비구니회관 건립 추진, 승가대교수 본각스님이 준비중인 한국비구니사 정리, 불교여성개발원 세미나 등 국내 여성 불교의 활발한 움직임도 함께 소개해 한국 여성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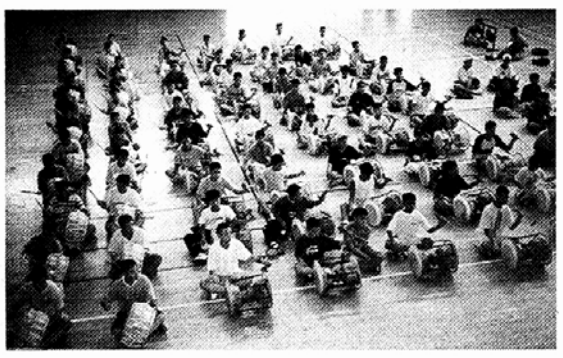
'평화주의자로서의 여성-자신과 가족, 사회, 세계에서'의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유럽 등 서양 불교학자들이 응용불교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 미국출신의 티벳스님 타모리아는 '복지사회를 위한 리더십의 기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불교의 자비 정신을 잘 활용한다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지도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한 여성 천문학자도 행성과 혹성, 별 등 천문학 자료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천문학 현상은 불교의 중중무진 세계에 대한 이론을 현실적으로 증명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해 참석자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충돌 했을 때 해소하는 불교적 방법론' '불교 사회에서의 여성의 건강' '불교철학적 접근을 통해 고독을 치유하는 방법' '감정과 힘을 다스리는 지혜로서의 리더십' 등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적 정신 수행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동양의 체계적인 불교 이론과 서양의 응용불교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대회에 일진스님(운군사 강원)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한 운월스님은 "한국 불교의 교세에 비해 여성 불교도들의 참석율이 저조해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2년 뒤에 있을 차기대회의 개최 후보지로 미얀마, 대만과 함께 한국도 올라 있는 만큼 여성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1987년 스리랑카의 라쟈니데실바, 미국의 카르마 렉시소머 등 4명의 여성 불교학자에 의해 인도 부다가야에서 처음 시작한 이 행사는 방콕(2차), 롤롬보(3차), 라다크(4차) 캄보디아(5차) 등 2년마다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열려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지난달 네팔서 열린 국제여성불교도회의의 한장면. 불교의 활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우리의 전통 예술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하며 배우는 '전통예술축제 한마당'.

봉사·문화프로그램 눈에띄네

청교련 올해 사업계획 발표

유해환경 추방·정신교육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이하 청교련)는 2월 26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견지동 명성식당에서 열고 유해환경 추방운동과 청소년 봉사활동,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등을 강화한 내용의 2000년 새해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통예술축제 한마당과 랩댄스 및 D.D.R(춤게임)경연대회 등 청소년들에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될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청교련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자는 운동을 각지부와 함께 연중 캠페인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려주는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를 매달 기획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교육에 힘쓸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교련은 △창립 34주년 기념대회(4월 23일) △제13회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5월 30일)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7월) △청소년 수련대회(8월) △청소년 전통예술 축제 한마당(9월) △청소년 문화기행(9월) △랩댄스 및 D.D.R 경연대회(10월 14일) △눈밭축제(12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조달현사무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새 천년에는 청소년들의 신행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사이버 포교강화"

대불련 올사업계획

급변하는 대학 문화에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선 사이버 매체를 적극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ㅇ향노, 이하 대불련)는 11일부터 2박3일간 대전 대진정사에서 전국지부장단회의를 갖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사업과 신입회원 적극 유치 및 기존 회원들의 조직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0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시범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전국 지부소개, 대불련의 역사, 대불련 관련 모임방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보강해 새내기 회원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다. 또 휴학생 및 군입대한 기존 회원들에게도 소식지나 엽서, 불교도서 등을 꾸준히 보내 는 등 특별 관리체제를 정비해 복학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녘 동포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돕기(5월11일), 제19차 한국불교1600년 대회(8월3일~7일), 통일순례단행사(8월15일) 등 수련회와 세미나, 봉사활동에 걸쳐 10여개의 각종 행사들이 펼쳐진다.



◇대불련은 11일부터 2박3일간 대전 대진정사에서 지부장단회의를 열고 새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청소년단신

보각스님 기초교리 강좌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4월부터 3개월간 기초교육원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보각스님(중앙 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오온·십팔계 △십이연기설 △삼학·오계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기간중에는 또 사찰방문 구도법회, 자원봉사, 사찰수계법회를 한달에 한 번씩 병행해 실시한다. (02)730-9108

불교지도자 자격 강습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29일~31일 걸스카우트 지역본부 강당에서 청소년불교지도자, 교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1기 불교청소년 지도자 자격 강습'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포교에 앞장설 불교지역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29일 자비의 날, 30일 정진의 날, 31일 지혜의 날 등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자비의 날'에는 불교의 근본이념과 걸스카우팅 개념 이해 및 게임과 노래, '정진의 날'에는 다른 나라 불교국가의 풍습과 불교국의 청소년 활동, '지혜의 날'에는 조직 운동에 대한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02)733-6807

대불어 지구 순회교육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 이하 대불어)는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대불어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지구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발표한 2000년 사업 계획에 따르면 3월 경남지구를 시작으로 4월 광주, 7월 제주, 9월 대구, 10월 서울, 11월 대전 지구를 순회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지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의 어린이포교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보육원 돕기 하루찻집

조계사 청년회에서는 26일 조계사 포교원내 1층에 위치한 '생각해보자'에서 시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혜명보육원 돕기 일일 찻집 행사를 갖는다. 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저녁7시30분까지.(02)735-3724

건강백과

코피가 날땐

머리숙이고 코밑을 눌러

갑자기 코피가 터지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코피는 코를 맞았거나 재채기, 코를 심하게 후비는 행위 등으로 인해 콧속의 혈관이 파열됐다는 증거다. 감기나 독감 등에 의한 급성 비염으로 콧속 혈관이 약화됐거나 고혈압을 콧속의 모세혈관이 이겨내지 못했을 때에도 발생한다. 아무튼 코피는 누구에게든지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끔 심한 출혈로 위험에 빠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할 응급상황이다.

처치요령 머리를 앞으로 급힌 상태로 환자를 앉힌다. 이때 환자 머리는 절대 뒤로 젖히지 말아야 한다. 환자에게 입으로 숨을 쉬라고 하고, 코뼈 밑부분을 꽉 막으라고 한다. 이때는 특히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말하기, 삼키기, 기침, 침뱉기, 등의 행위를 금지시킨다. 이어 약 10분간 코를 누른다음 압박을 중단하고 출혈이 계속되는지 확인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다시 10분간 압박한다. 출혈이 중단된 후에도 머리를 계속 앞으로 급히게 하고 물로 코와 입 주위를 닦는다. 계속해서 수시간 동안 휴식시키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생활정보

주부 인터넷 무료 교육

인터넷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은 오는 12월8일까지 본관 전산실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3월20~24일 △7월10~14일 △11월27~12월1일 △12월4~8일 등 4회에 걸쳐 모두 1백40명(1회당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희망 주부들은 교육기간을 결정해 관할구청 총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오후3시까지이며 점심과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 시에서는 수강 주부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 중심가를 연결하는 셔틀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032)562-8345

삼일절 종로 차없는 거리로

문화 3월1일 서울 종로1~4가 일대가 차로부터 해방된다. 서울시는 일제 통치에 맞서 거국적으로 독립만세를 불렀던 3·1절을 '시민자율축제의 날'로 정하고 종로1가 종각부터 4가 교차로에 이르는 1.2㎞를 오전11시~오후5시까지 '차없는 거리'로 만든다. 차가 사라진 이날, 종로에선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굴렁쇠 굴리기, 남사당 공중 외줄타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스케이트보드, D.D.R경연대회가 열린다. 또 정오엔 흰 저고리와 검은 고무신을 신은 고등학생들이 탑골 공원에 모여 '그날의 함성'을 재연한다. (02)731-1624

음주·무면허 사망도 자보적용

보험 4월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험기간중 일어난 사고 때문에 1년(현행 18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약관 개정을 다음달에 마치고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암·고혈압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의 경우 계약후 90일이 넘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철폐, 암을 제외한 모든 병에 대해 발병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아도 112전화 쓸수있다

방범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는 21일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범죄 및 구조 신고를 돕기 위해 농아인 휴대용 문자 송·수신기 '에어 포스트'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자수첩인 '에어 포스트'는 플라스틱 펜으로 글자를 입력한 뒤 전화를 걸어 송신하면 수신자측에서 이를 문자로 검색할 수 있는 장비다. 시중에서 20여만원에 팔리고 있으며, 월 사용료는 1만8천원이다.

신고방법은 휴대폰이나 '에어 포스트'(013-3333-112)로 전화해 문자 입력한 내용을 전송하면 112신고센터에 벨이 울리면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신고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代), 02)737-0090(直)

삼·부·농·산·은·슈·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1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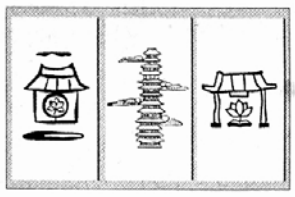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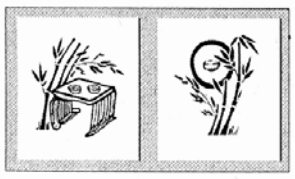
삼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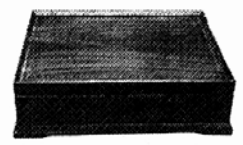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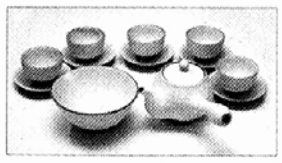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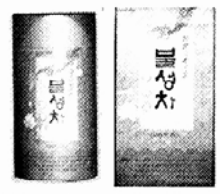
가격:₩12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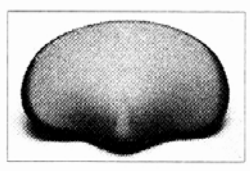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 1998-005109
- 의장등록 1-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직주보호

옥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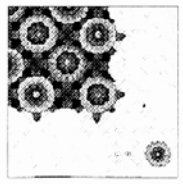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분)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기정품) 규격 8높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0분

■ 가격: 각 ₩25,000

윤순희 화선지

- 한지매수 20장
- 규 격 146cm × 74cm

한지는 섬유질이 많아 질긴 게 특징이며 통풍이 잘되 으 랜세월이 돼도 변질이 없어 서예, 고서, 공예 등으로 많이 쓰여 진다

■ 가격: 각 ₩30,000

주목단주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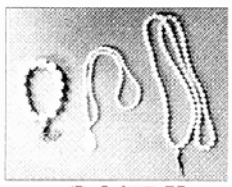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금등급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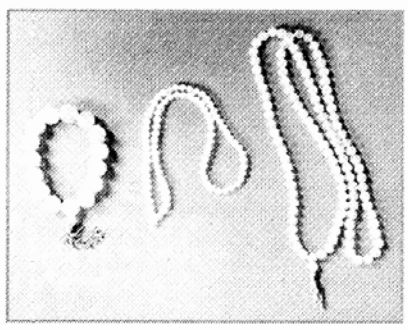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염주(念珠)



수주(數珠) · 송주(誦珠) · 주주(呪珠)라고도 하며 여러가지 재질로 만든 일정한 수의 작은 구슬을 꿰어 하나의 원을 만든 것을 말 하는데 보통 불보살에게 에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기도 하며 염불이나 절을 하는 횟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고, 기원할 때 또는 번뇌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염주를 헤아린다.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구의 하나인 염주는 원래 보리수 열매를 잘 골라 108개를 꿰어 둥글게 만들었으나 이후 여러가지 고귀한 재질로 만들기도 한다. 경전에 나타나 있는 염주의 재료를 보면 다라니경에는 금 · 은 · 구리 · 수정, 목환자 · 보리자 · 연화자 등이 있고, 제불경계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에는 놋쇠 · 구리 · 수정 · 진주 · 연화자 · 금강자 · 보리자,향나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08염주가 가장 많으며 그 재료로는 보리자 · 목환자 · 율무 · 금강자 · 수정 · 산호 · 향나무 등으로 만들고 있고 염주알의 수에 따라 108개로 한 것은 108번뇌를 참회하고 끊음을 표현한 것이며 절반인 54개로한 것은 보살 수행의 계위(階位)인 4선근,10신,10주,10행,10회향,10지를 의미하며 그 절반인 27개로 된 것은 소승의 27현성을 표시하는 것이라 한다. 단주,108주,1080주,3000주 이외에도 염주알의 수,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염주와 현대인의 선호도에 맞춘 다양한 모양의 염주들이 제작되고 있어 사부대중 모두에게 언제,어디서나 가까이 하는 불교인의 수행,생활 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 생광석백팔염주 35000
- 백옥백팔염주(대) 40000
- 청옥백팔염주(대) 40000
- 백옥백팔염주(소) 30000
- 청옥백팔염주(소) 30000
- 염주엘최고리세트(낱개 3개) 9000
- 전단향백팔염주 8mm 16000
- 천은사보리수백팔염주(소) 40000
- 주목백팔염주 10mm 14000
- 모감백팔염주 24000
- 보리수납작백팔염주(중) 30000
- 흑단백팔염주 10mm 16000
- 집대추백팔염주 10mm 7000
- 월성백팔염주 8mm 10000
- 대추백팔염주10mm 4400
- 향소원백팔염주 10mm 4000
- 향백팔염주 10mm 2400
- 야광백팔염주 8mm 2200
- 인조호박백팔염주 8mm 2000
- 인조자만옥 백팔염주 8mm 2000
- 인조취만옥백팔염주 8mm 2000
- 아이보리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밤색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벽조목백팔염주 10mm 40000
- 수암옥염주세트 98000
- 어린이백팔염주세트(낱개4개) 4000
- 연밥백팔염주 24000
- 금강주염주세트 30000
- 도실백팔염주(일반) 24000
- 도실백팔염주(특) 40000
- 마노백팔염주 8mm 40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 12mm 24000
- 수정백팔염주 8mm 50000
- 수정컷팅백팔염주 8mm 90000
- 자수정마노백팔염주 8mm 70000
- 호안석백팔염주 8mm 50000
- 생광석단주 10000
- 벽조목단주(소) 18000
- 연밥단주 5000
- 금강단주(노랑) 9000
- 금강단주(특대) 11000
- 금강무가공단주 9000
- 대추연꽃단주 30mm 20000
- 도실단주(일반) 6000
- 도실단주(특) 10000
- 모감단주 5000
- 목탁단주 7000
- 보리수단주 9000
- 사진단주 25mm 46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12mm 24000
- 월성단주 12mm 7000
- 주목단주 24mm 16000
- 태양주단주 6000
- 향단주 23mm 4400
- 향달마단주 30mm 5000
- 향반야심경단주(일반) 7000
- 향부적단주 30mm 5000
- 향소원단주 30mm 5000
- 흑단단주 15mm 6000
- 주목단주 20mm 14000

달마순금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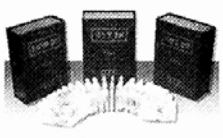
상반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366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366호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엽(오색잎),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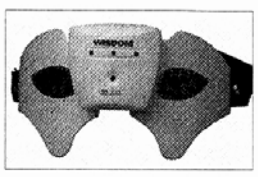
가격: ₩9,500

쑥 환



₩55,000 (1월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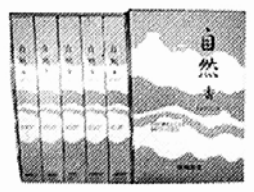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탕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갑 장아찌	12,000원
· 율의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바른정치

4·13 총선후보 공천 발표 이후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공천 탈락된 정치인들의 신당창당을 위한 이합집산, 전직대통령들의 간접적인 정치참여 등 일련의 일들은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혐오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적한 낙천대상자를 일방적으로 후보로 내세우는가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감을 얻을새도 없이 급하게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나 신당을 막론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인들은 지역정서에만 의존하여 지역민들이 영원히 지지해줄 것이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백성의 주인이 된 바에는 항상 바른 도리로 다스려 교화할 것이며, 모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이를 버려 행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을 행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정치, 지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정법으로 국민 편하고 즐겁게

▨'마하삼마디'라고 함은 '여러 사람에게 뽑힌 이'라는 뜻이다. 곧 여러 사람을 위해 법을 말은 통치자를 말한다. 〈아함경〉

▨한 고을에 전답의 경계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분쟁을 관정하고 해결해 줄 지도자가 필요했다. 지도자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선은 상 주고 악은 벌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였다. 〈장아함경〉

▨만일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스스로 실천한다면 나는 너를 훌륭한 사내라고 인정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말을 들으니 말과 행동이 걸맞지 않는구나. 네 마음을 길들이고 고요히 쉬라. 〈잡아함경〉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선(善)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아사세왕이 부모를 해치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왕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대신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요, 대신들이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왕의 태자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태자가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신하와 관리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군인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그때에는 해와 달의 운행이 혼란해져서 시절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법으로서 바르게 하면 온 나라 백성이 법답게 행동하게 되고 시절도 좋아지느니라" 〈증일아함경〉

▨국왕은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백성을 잘 다스려서 억울함이 없게 함이다. 둘째는 장병을 기르고 때에 맞추어 상을 줌이다. 셋째는 선법(善法)을 생각해 잊지 않아서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다. 넷째는 충신의 곧은 간언을 믿고 소인의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직한 관리가 해를 입지 않게 함이다. 다섯째는 욕탐의 쾌락을 절제하여 마음이 방일(放逸)에 흐르지 않도록 함이다. 〈법구비유경〉

▨임금이 자애를 지녀 온 백성을 자식같이 본다면, 저 모든 백성들 쪽에서도 임금을 그 부모같이 여길 것이다. 〈숭군왕소문경〉

▨차라리 道를 지키다가 빈천 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수행해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법구경〉

▨민생이 다 고통을 받는 것은 왕법(王法)의 부정에 말미암고, 민생이 다 낙을 받는 것은 왕의 법교(法敎)가 정다움에 말미암는 것이다. 〈증일아함경〉

▨물을 건너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많은 소들이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 나라의 임금이 바른 법을 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니라. 〈증일아함경〉

▨국왕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을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신행 캘린더

3월1일 (수)

■ **온겨레 손잡기 운동본부 인간띠 잇기**=불교계를 비롯한 7개 종교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온겨레 손잡기 운동본부'는 오후 3시 판문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통일을 부르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갖는다. www.peaceline.org

■ **터사랑 3·1절 기념 사적기행**=3·1절 8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행이 눈길을 끈다.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당일코스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독립문·독립공원, 사직단, 단군성전, 황학정, 국사당, 선바위, 서울성곽 등을 둘러보며 역사 공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 선생이 안내한다. 02)725-1284

■ **능인선원 춘계 백일기도**=능인선원은 새벽3시30분 춘계 백일기도 입재식을 갖는다. 회향은 6월 8일. 동참비 5만원. 02)577-5800

■ **대불청 만해 백일장**=대한불교청년회는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1회 만해 백일장'을 개최한다. 02)738-3385

■ **한국불교 청년회 장학금 전달식**=한국불교청년회는 오전11시 신촌 달마선원에서 '3·1절 및 마음의 전화 개통 5주년 기념 우수 모범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02)326-0248



◇해마다 만해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만해 백일장'. 이제는 불교 문화의 큰 잔치로 자리를 잡았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봄날 만해스님 시비 앞에 모여 제각기 갈고 닦은 글솜씨를 뽐낸다.

3월2일 (목)

■ **삼선승가대 동문회**=삼선승가대동문회는 오후3시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동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문회 발전사업과 동문회 수첩 제작 등을 논의한다. 02)2202-5831

3월3일 (금)

■ **최응호법사 49재 봉행**=전남 나주 태평사에서는 금명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오전 10시30분 故 도광 최응호법사의 49재를 봉행한다. 0613)332-8270

■ **좋은벗들 통일준비 '1000일' 행사**=좋은벗들은 오후7시30분 정토회관에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1천일' 행사를 개최한다. 02)587-8996

■ **명원문화재단 '한일불교미술교류전'**=명원문화재단은 24일까지 일본 교토 상국사에서 '한일 불교미술교류전'을 연다. 02)3672-4030

■ **인드라망 공동체 정기총회**=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오후3시 조계종 포교사단 2층 강의실에서 2000년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정기총회'를 갖는다.

3월4일 (토)

■ **서울불교청년회 정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 6시 서울 포이동 대성사에서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대성사 주지 도문스님이 법문한다.02)730-9108

■ **하이텔 불교동호회 극락암 선법회**=하이텔불교동호회 부산·경남지역모임은 5일까지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서 '선법회'를 개최한다. 051)553-4846

■ **종교 대화합 한마당 잔치**=부천 석왕사는 오후2시 부천시 성가병원 대강당에서 새천년 맞이 종교대화합을 위한 '종교화합 한마당 문화잔치'를 개최한다.

3월5일 (일)

■ **조계사 청년회 등반대회**=조계사 청년회는 도봉산에서 '우리산 살리기 한마음 등반대회'를 갖는다. 출발은 오전9시 망월사역 앞. 02)735-3724

■ **여래지 답사회 갓바위·인각사 순례**=여래지 답사회는 팔공산 갓바위를 거쳐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군위 인각사를 둘러보는 사찰 순례를 떠난다. 02)3445-0202

3월6일 (월)

■ **강남포교원 수계교육**=강남포교원은 5일간 4층 장경각에서 수계교육을 실시한다. 계를 받을 불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예절, 계를 받는 의미 등을 배운다. 매일 오후8시부터 9시30분. 02)539-2631

법회안내

6일 초하루 법문



성광 화계사 주지스님은 6일 오전11시 대웅전에서 초하루법회를 맞아 법문한다. 02)902-2663

'미래와 통일' 법문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스님은 3일 저녁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인류의 미래와 통일 사회의 비전'에 대해 법문한다. 02)587-8996

'불자의 자세' 강연



박완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3일 오후7시 제주시 홍법정사에서 새천년 맞이 특별법회에 초청돼 '새천년 불자의 다짐과 자세'에 대해 법문한다. 064)758-1133

'3월 다보법회'



박경준 동국대불교학과 교수는 15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게시판

알림

▲**장애어린이 학습지도**=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주3회 장애어린이 학습지도를 실시한다. 또 방과 후에는 주1회 초등학생들의 학습지도도 한다. 02)677-0108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운영**=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5시 65세 이상의 일반 어르신과 생활보호 및 저소득 가정의 어르신, 낮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증 뇌졸중 및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02)2282-1100

▲**자원봉사자 간병교육**=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9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자원봉사자 간병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내용은 환자의 발마사지법, 응급처치,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임종환자의 증세 및 관리 등이다. 02)734-0612

모집

▲**결혼상담소 상담요원**=봉은사 봉은결혼상담소는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는 사람끼리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함께 할 자원봉사 상담요원을 모집한다. 02)516-5651

▲**어르신 말벗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02)2203-3677

▲**한글교실 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 매주 2회 한글을 가르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582-0525

▲**개별학습지도 봉사자**=두송복지관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의 개별 학습을 지도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모집인원은 8명. 02)265-9471

강좌

▲**불자의 예절과 의식**=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는 체계적으로 불교교리를 배울 제5기 신행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재는 〈불자의 예절과 의식〉. 개강은 14일이며 강의는 매주 화·수요일 오전10시. 051)806-2430

▲**한글 불교의식 과정**=한글불교의식교육원은 1년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학금은 10만원. 02) 732-1206

▲**불교교양대학 과정**=진주불교교양대학은 제15차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부터 4개월 동안 진주불교회관 법당에서 강의한다.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6만원. 0591)747-0108

▲**중국어 초급반**=서울 불광산사는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학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오후6시까지이며 수강료는 월5만원. (02)2276-0995

▲**아함경등 기초교리**=광주무량선원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초심자를 위해 7일 '무량불교학당'을 개설한다. 교과목은 초발심자경문, 아함경, 기초교리 등이며 화, 금요일 강의한다. 062)971-8626

▲**사찰음식 성인병예방 식단**=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는 4일 오후2시 연구소내 강당에서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주제는 '사찰 음식의 개요 및 성인병 예방식단'으로 버섯, 두부, 산나물을 이용한 3가지 요리 실습도 병행한다. 02)355-5961

▲**선가귀감**=선학원 중앙선원은 4일부터 4월 1일까지 3층 대법당에서 '제5회 춘계 선학강좌'를 개설한다. 교재는 〈선가귀감〉이며 수강료는 3만원. 02)732-3327

▲**불교교리**=동산반야회는 8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7시. 02)732-1206

▲**불교기초교리 특강**=대구원효불교대학은 7일부터 초급반, 경전반을 개설해 강의한다. 053)563-9154

▲**불교교사대학**=동련불교교사대학은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부처님 일대기, 불교학개론, 불교의식, 아동 발달심리, 색종이 접기, 레크리에이션 등 어린이 법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강좌가 진행된다. 원서 마감은 3월18일. 051)853-5486

▲**취업관련 특강**=낙동복지관은 한식조리사교실, 출장요리사교실, 미용교실, 컴퓨터 교실 특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271-0560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자격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포교사자격증 수여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300명 수용가능 현대식 수행법당, 요사채, 사워실, 공양실의 쾌적한 시설과 소리산 16만평의 108토굴 수행처, 행선코스 8km(산림욕,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출세봉, 차돌암벽의 특급생수), 바람굴(더운바람, 찬바람 나오는 신비로운 수행처) 나한굴 기도처가 있는 수행전문 청정도량임.
⊙매주 철야 용맹정진 : 토요일 저녁 8시~일요일 아침 8시
※수행내용: 참선, 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도인체조건강법, 행선, 와선, 소리산등반, 수행테크닉교육 점검, 축원기도 7회
참선초기 수행자의 염불 수식관 비법 수행(처음공개)
건강 염불 감사 명상 비법공개!
⊙출가예정자, 행자 수행교육 체험 : (7일, 15일, 30일, 49일)
⊙업장소멸, 소원성취, 병고자 특별기도수행
※하루종일 쉬지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행으로 불평불만, 원망심, 탐진치 3독심을 녹이며 소원을 이루는 신심나는 기도법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홧병, 냉병, 감기몸살등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신행단체나 성지순례시 방문하시면 언제나 절대 숨차지 않고 혈덕대지 않으며 단전혈, 용천혈, 노궁혈이 열리고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는 절삼매의 비법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49재, 천도재, 물고기 방생 등의 불공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대명스키장, 산음자연휴양림 5km)
전화 (0338)771-7745 / (011)9088-7745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

◆◆◆ 목재 전용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염·방부·방충·방수)
효과
◆ 문화재,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틀림 방지)
◆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용도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통기성(Breathing) 양호·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취-급-품-목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퇴색 방지 방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석재 석탑 세척제
목조주택 보수 문의 환영합니다.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현대B/D 208
TEL: 02)3474-6232(代) FAX: 02)3474-0144
http://www.dongwhaind.co.kr

깨달음 전하는 '릴레이 고승설법'

대구불교대 53선지식 친견-법왕사 백고좌 법회

관응·법전·정무·고산 스님 등 참석

평소 친견이 쉽지 않은 여러 고승대덕스님들을 접하고 법문도 들을수 있는 법회가 대구에서 잇달아 열려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화사 부설 대구불교대학의 53선지식 친견법회와 법왕사의 백고좌법회가 바로 그것.

이같은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매머드 법회를 통해 듣는 큰스님들께 사자후는 IMF관리체제를 어렵게 극복하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즘 불자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감로수이자 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지난 2월20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제7회 대구불교대학 및 同대학 대학원(경전반) 1기 졸업식을 거행한 대구불교대학(학장 지성, 중구 남산2동)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53인의 선지식을 차례로 방문하여 법을 묻고 도를 구하는 53선지식 친견법회를 매월 열고 있다.

지금까지 진제(동화사조실) 근일(부석사조실) 보성(조계총림방장) 관응(직지사 조실) 법전스님(해인총림방장)을 친견했고 오는 17일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찾아 법문을 들을 예정. 불자들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큰스님의 법문과 할(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도 겸할수 있어 갈수록 참여자가 늘고 있다.

1회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다는 한 보살은 "아흔이 넘으신 관응스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법문하실 때는 가슴 저미는 감동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한번도 안빠지고 다 듣겠다는 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계종 직할 포교당 법왕사(주지 실상, 수성구 파동)도 부처님출가일인 13일(음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백일간 매일 대덕스님을 초청하여 법회를 여는 백고좌법회(百高座法會)를 봉행한다. 백고좌법회는 613년 신라 진평왕 때부터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위해 백일동안 백명의 고승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했던 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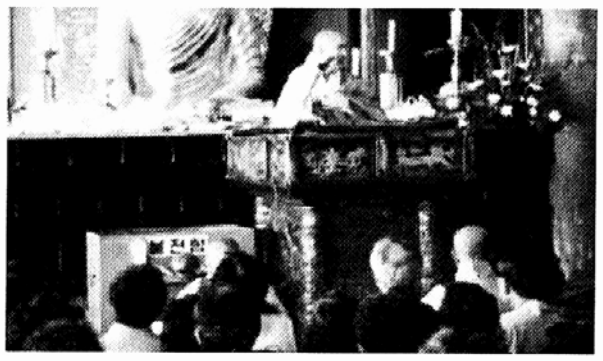
법왕사는 조선시대이래 맥이 끊긴 백고좌법회를 지난 94년 재현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백고좌법회에는 前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정무 정락 보각스님 등이 초청돼 경율론 삼장법문을 펼치게 된다. 또한 동국대학 불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재가 석학들도 초빙돼 수준높은 강의를 펼칠 예정으로 있어 불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법왕사는 법회에 앞서 108참회기도도 병행하고 있어 불자들의 가행정진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회향일인 6월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실상스님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금구성언에 좀 더 가까이 갈수있도록 백고좌법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실있는 법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불교대학 (053)255-4873 법왕사 (053)766-3747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99년 11월 수덕사에서 열린 대구불교대학 53선지식 친견법회에서 근일 큰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불자들.

미타사에 호국 위령탑

송강스님 건립…6·25전사자 매년 6월 추모재

서울 강서구 개화산 미타사(주지 승강)는 최근 강서구청, 주민들과 함께 50년 한국전쟁당시 1,100여명의 국군이 전사한 미타사 인근(50m 지점)에 호국충혼위령탑을 건립했다. 미타사는 또 전사비와 생존자비를 건립하고 매년 6월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로 했다.

현재 미타사가 있는 개화산 자락은 1950년 6월30일 인민군에게 포위된 1사단 11, 12, 15연대 부대원들이 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한 지역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쟁이 끝난 뒤 이들 부대의 행방을 찾는 이가 없어 영원히 역사속에 사라질 뻔했다가 93년 미타사 주지로 부임한 송강스님에 의해 밝혀졌다.

"꿈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군인들의 환상을 자주 보았다"는 송강스님은 영가들의 한을 풀고 천도시키기 위해 국방부, 보훈처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실조사를 한 끝에 1사단의 전사기록을 확인했다.

이번 위령탑 건립은 송강스님의 보시금 3천5백만원등 1억3천여만원의 성금으로 세워져 동족상잔의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미타사는 50년 한국전정때 산화한 장병들을 위한 호국충혼 위령탑을 건립했다.

대구 사원련 감포서 달맞이 법회

80개 사찰 1만명 참가

방생법회·달집태우기 행사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2월19일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80여 회원사찰 소속 스님과 신도등 사부대중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보름 달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1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방생법회에 이어 2부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로 진행됐다.

원명스님은 "방생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편중의 하나"라며 "방생의 의미를 올바로 되새겨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남양주 86번 지방도 '원효로'로 이름지어

역사유적지가 많은 전원도시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시는 최근 원효대사의 이름을 딴 도로를 지정하기로 했다. 원효대사가 머물렀다는 연유로 명명된 '원효로'는 86번 지방도가 지나는 와부읍 월문리 덕소저수지~묘적사 구간이다.

남양주시는 5천만원을 들여 국도와 지방도에 역사유적지나 유·무형문화재의 이름을 붙였다.

대구 연화선원 개원

주말 참선요가 무료강좌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 심신일여(心身一如)를 추구하는 참선요가 선원이 개원돼 관심을 끌고 있다. 9년 동안 참선과 요가를 수련해 온 자광 스님이 최근 대구시 동구 효목2동에 개원한 연화선원이 그곳.

자광 스님이 가르치는 참선요가는 선방 스님들이 정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단련하는 수련법이다. 자광 스님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연화선원에서 참선요가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참선요가 수련의 본래 목적은 병을 다스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상생활이 불러온 일체의 온전치 않은 불균형 상태를 균형있는 본래의 상태로 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053)751-8211 김재경 기자

교계 인재불사 새요람

진각종립 위덕대 첫 졸업식

올 불교·교육대학원 신설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손제석, 경북 경주시 강동면)가 2월22일 제1회 학위수여식〈사진〉을 거행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에 이은 2번째 종립대학인 위덕대가 졸업생을 배출함에 따라 교계의 인재불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으며 불교의 對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위덕대는 이날 불교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 반도체공학과 등 9개학과 162명의 학사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 17명을 탄생시켰으며 수석은 평점 4.24점을 기록한 강영지씨(불교학과, 23세, 인터뷰 4면)가 차지했다. 특히 17명의 졸업생을 낸 불교학과는 전원 취업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 화제를 낳기도 했다.

96년 9개학과 4백명의 입학정원으로 개교한 위덕대는 현재 27개학과 3천5백명의 학생정원으로 양적팽창을 기록했고 올해 일반대학원과 불교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신설하는등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과 불교특수대학원이 신설됨으로써 밀교학 연구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으며 불교와 관련있는 동양문화연구의 독창적 발전에도 일조하게 됐다. 불교학과 졸업생들은 학계나 군종장교, 종립학교의 교법사, 불교언론사등에 진출해 불교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경주와 포항, 울산의 접점에 위치한 위덕대는 지리상의 장점을 십분 활용, 환동해권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아래 지난96년 제1차 대학발전10개년계획을 세운바 있다.

특히 환동해지역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 Claremont Mckenna College, 중국 중앙민족대학, 일본 벳부대학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부설로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등 4개연구소를 설립했다. 또한 신라문화연구를 위해 지난해 위덕박물관을 건립, 안계사지와 연화사지 등 절터2곳과 구석기시대 유물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오는3월에는 중앙도서관 및 전산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연건평2천8백52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회당학술정보원 준공식을 봉행하고 내년2월에는 교내법당인 불교학관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박물관대 1기 수료

통도사박물관대학(학장 범하)은 2월 18일 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박물관대학 1기 수료식을 봉행 했다. 통도사 주지 신허스님, 안종길 양산시장을 비롯 2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는 이무웅씨를 비롯한 84명이 30강좌 1년 과정을 수료했다. (0523)382-1001

석왕사 종교화합 한마당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4일 오후2시 부천 성가병원 대강당에서 새천년맞이 종교 대화합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성직자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라춤 및 나비춤(영산재보유자), 합창단,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비고종

종무원장·간부 연석회의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장 및 종단 중진간부 연석회의가 7일 오후 1시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본산 선암사 성역화불사를 비롯 교육개혁과 통일불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이 논의된다. (02)745-2030

화천사 호스피스 모집

제주 화천사(주지 복혜)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로하고 간호하는 호스피스 봉사단을 2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064)721-2755

천태종

새싹어린이집 개원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이 복지재단 인가후 중랑구청으로부터 첫 수탁받은 새싹어린이집(중랑구 상봉 2동 118-26)이 2월21일 개원식(사진)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문덕스님, 관문사 부주지 춘광스님 교육부장 도원스님 삼룡사 주지 경천스님과 정진택 중랑구청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48평의 새싹어린이집은 생활형편이 어렵고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학시켜 보육하게 된다. 총 9학급 111명.



삼광한글학교 8회 졸업



부산 삼광한글학교(교장 덕수)는 2월21일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 부산진구의회 문상우 의장, 최낙복 한극학회 부산지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4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졸업식〈사진〉을 봉행했다. 삼광한글학교는 3년 과정으로 이날 졸업식에서는 유순임 할머니를 비롯한 114명이 수료했다.

진각종

육자진언비 성역화

통리원은 경내에 봉안된 육자진언비의 조성 뜻을 기리고 무량한 공덕 발원지로서의 국민적 기도처로 삼기 위해 진언비 주변 성역화를 비롯 장엄불사를 추진, 동참자를 모집하고 있다. (02)913-0751

종립학교 교직원 연수

교육원(원장 일정)은 서울 총인원에서 새 학기를 앞둔 종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신행연수를 실시했다. 2월 16~19일에는 종비장학생 연수가, 21~23일에는 위덕대 신임교수와 심인 중고, 진선여중 고의 신임교사 등 총 26명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서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초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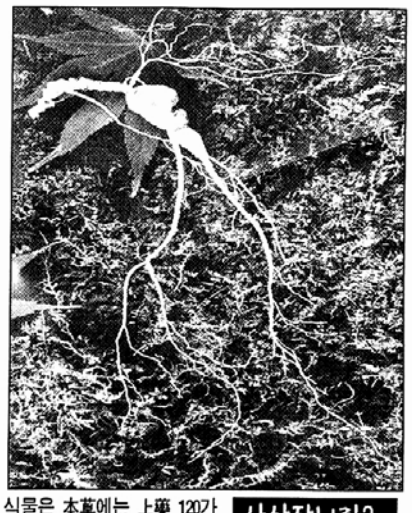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전통서당에 전해오는
만성위장질환에 대한 비방
여산서당 조선생솔잎보위환

만성위장질환은 몇몇 민간요법을 제외하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잠깐은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곧 내구성이 생겨 원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신비의 영약인 조선생솔잎보위환은 한의사였던 서당 훈장님이 학동들의 위장 기능을 위해 토종 '조선생솔잎'에 몇 가지 식품과 약재를 첨가하여 만든 비전입니다.

위장은 기능면에서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오행의 '토'에 해당합니다. '조선생솔잎보위환'을 살펴보면 뿌리, 줄기, 잎, 열매, 껍질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토종만을 고집한 것은 지금 세계의 생약계가 우리의 잡초까지 연구한 것만 보더라도 확실한 선견지명이었습니다.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채식체질'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 또한 '대단히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비전의 특징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집니다. 한 달 지나면 얼굴에 윤기가 돌고 입맛이 당기는 것으로 위장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로 편안해지는 분도 있고, 처음 얼마간은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통된 것은 뱃속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용은 식후 80~90알 정도를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되나 굳이 그 양과 횟수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산서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 인터넷 주소 : http://myhome.shinbiro.com/~yeosan
● 주소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6-17호 102호 여산서당
● 전화 : (02)322-6565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 대 금 : 35만원
■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붕
■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동리 754 약사사

기독교계 역사왜곡 심각

삼국사기·삼국유사 부정… '한민족 선민설' 주장
김성일씨 소설 '동방'서 "고조선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계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다. 한긴족의 기원을 노아의 홍수 이후 동방으로 이주해온 기독교인들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고조선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국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학계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미 기독교계는 90년부터 한민족의 등방이주 기원설과 가야시대 아유타국 공주를 통해 기독교가 유입됐다는 설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역사유적과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시키고 있다. 또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정치적 상황과 권력구조 대문에 객관적인 기록이 어려웠고 쓰는 사관에 의해 빛깔이 달라졌다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억지주장도 펴고 있어 자칫 기독교인 국민들에게 역사를 왜곡해 받아들이게 할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와함께 '한민족 선민설'도 한국의 역사를 기독교사화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 유학했던 젊은 기독교 교수들이 타블로이드판 10면분량으로 신문을 제작,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에게 한민족 선민설등의 자료를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계 역사학회인 창조사학회는 선민설을 설명하며 처음 여호와신이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삼았고, 이들이 계속해 동쪽으로 이동한 만큼 한민족이 여호와신의 선민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독교인 고정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김성일(60)씨가 대하역사소설 '동방(전5권)'을 발표하며 고조선 삼국시대까지도 기독교국가로 기술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소설 〈동방〉에는 고조선을 비롯한 삼국시대가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으며, 이차돈의 순교는 기독교 국가였던 신라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생긴 충돌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황옥 공주가 기독교를 전래했다고 왜곡하고 가야를 동방 기독교의 맹주국가로 기술하는 등 기독교중심의 역사왜곡은 심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기동교수(동국대 사학과)는 "민족이주설은 1930년대 일본의 역사학자인 다까구미 즌치로가 고대역사서인 〈한단고기〉에 근거하여 한민족의 조상을 수메르인으로 주장한바 있으며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을 펴 일제시대 황국사관으로 이용됐다"며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념적인 조국이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동방이주설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현재 발표된 민족이주설은 목적을 갖고 만들어 낸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보물 1292호, 철조노사나불이 안치된 삼화사 적광전 건물이 발파진동에 따른 뒤틀림에 의한 균열로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다.

삼화사 '소음·진동 몸살'

쌍용양회 석회석 채석공사 계속
수행환경 파괴-문화재 훼손 '위기'

사찰측 '안전진단' 요구

신라 천년 고찰인 동해 삼화사가 인근에서 진행중인 쌍용양회의 석회석 채취공사로 인해 심각한 수행환경 파괴와 문화재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물 1277호 신라3층석탑과 보물 1292호 철조노사나불 등 귀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삼화사는 쌍용양회가 발파에 의한 석회석 채취로 사찰에 진동 및 소음 피해를 계속 입힐 경우 성보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나서기로 했다.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은 2월24일 "쌍용양회가 지난 30여년간 사찰에서 1.4킬로미터 떨어진 청옥산과 두타산 일대에서 발파에 의한 채석작업을 계속해 지난 97년까지 1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이후에도 3억여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행스님은 지난 97년 쌍용양회측과 피해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액(10억원)의 절반가량인 4억 3천여만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받고 발파공사장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측은 지난 97년 쌍용엔지니어링이 실시한 안전진단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발파진동과 소음이 사찰건축물에 영향을 줄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안전협회는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에서 수행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행스님은 이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강원도, 그리고 조계종과 쌍용양회측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사찰의 환경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14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해인골프장, 지리산댐 문제와 함께 삼화사 사찰환경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미시령 사망학생 영결식

2월7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에서 관광버스 전복사고로 숨진 동국대생 7명에 대한 영결식이 2월21일 오전 10시 동국대 운동장에서 엄수됐다.

동국대 학교장으로 거행된 이날 영결식은 송석구 동국대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과 유족, 학생, 교직원, 동문 등 1천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의식으로 치러졌다.

이은자 기자

잇달은 '불자들의 보시행'

전청금-김길호-김용기씨 재산 사회환원

얼마전 곽호성·이성균씨가 자신의 재산을 승가원에 기탁해 화제를 모은데 이어 평생 모은 재산을 기탁 또는 장학금으로 내놓은 세 불자가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전청금 할머니(75·대구시 남구 대명동)는 행상과 구멍가게 등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2억원을 지난달 21일 영남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할머니는 "평생 못배운 것이 한이 됐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전청금 할머니

전할머니는 6.25전쟁 후 군인이었던 남편과 함께 대구로 이주한 후 만화가게, 담배가게 등을 해가며 돈을 모았으며, 80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대구 불광사 자비회장을 맡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다. 특히 수십년된 옷을 그대로 입고 버스비를 아껴 남몰래 고아원이나 교도소를 찾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해왔다고 불광사측은 전했다.

영남대는 전할머니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면서 이 장학금을 할머니의 법명을 따서 '전수도행 장학금'이라 명명했다.

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시 남주중학교 교감을 끝으로 28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친 김길호(63)씨는 자신의 법명을 딴 '법천장학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중 1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김씨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생 4~5명을 선정, 해마다 7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며 "장학기금을 늘려 많은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싶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30여년간 살다 지난 82년 호주로 이민갔던 김용기(71)씨도 최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을 사회복지사업에 써달라며 성북구에 기증했다. 김씨가 헌납한 재산은 장위1동에 소재한 66평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채와 대지 51평 등 시가 4억5천만원에 달한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사양했으나 이름만은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며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헌납단체를 물색하던 중 최일선 공공단체에 맡기게 됐다는 말만 남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증직후 전남 구례 화엄사를 참배하고 상경해 현재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불교관계 서적을 집필하고 있으며, 한달 뒤 출국할 예정이다.

한명우·이윤호 기자

동화사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곧 이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지부장 성덕) 동화사 소속 노인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대구시 중구 약전골목)이 빠르면 오는 3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

동화사는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12월14일 자비의 집 위탁운영권을 제9교구신도회로 이관했으며 同신도회는 최근 보현사옆 공터 40여평(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3-32)의 부지를 확보, 무료급식소 전용 조립식 단층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자비의 집은 지난95년 동화사에 소속된 이후에도 임원진간의 갈등과 공금유용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해8월23일 '자비의 집' 원장이던 김모씨를 비롯한 임원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화사는 자비의 집을 직영하기로 하고 당시 동화사 사회국장이던 혜안스님을 원장에 임명했으나 스님이 총무원 기획국장으로 발령남에 따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9교구 신도회로 위탁운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윤호 기자

길상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요정 대원각의 주인이었다 지난해 숨진 김영한 보살로부터 대원각 터를 기증받은 조계종 길상사는 2월23일 김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50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길상사측은 소장에서 "김 보살이 길상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50억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기증하는 것처럼 유언에 명시했지만, 96년 길상사에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이같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보살은 97년 KAIST에 남은 재산 2백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는데, 지난해 남긴 유언장에는 "2백억 가운데 50억원은 대원각 부지 증여조건으로 길상사로부터 받기로 했었다"고 밝혀 조계종과 KAIST 사이에 법리논쟁을 벌여왔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14일 총선불교연대 토론회

총선불교연대(공동대표 청화·박광서)는 새시대불교포럼 주관으로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와 정치이념'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발표자는 윤세원 인천시립전문대 교수이며, 토론자는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김종찬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이다.

김재경 기자

선학원 '선학강좌' 개설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성해)이 춘계 선학강좌를 열어 일반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4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 열리는 선학강좌는 〈선가귀감〉을 토대로 참선수행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참선 지도와 강좌를 맡은 성해스님은 "참선이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일종의 테크닉이 되어 유행처럼 갖가지 모습으로 왜곡돼 버린 것이 안타까워 선학강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병원불자회 연합수련회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을 위한 불자회 대표자 간담회가 2월24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불자회 대표들은 불교수행체험, 직장법회 활성화 유도, 연합조직 건설 등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18일~19일 용주사(미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병원불자회는 동국대포항병원, 한일병원, 경희의료원 등 34개 병원에서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경북 불교복지관 협의체

경북지역의 교계 복지관 협의체가 결성될 전망이다.

구미 금오·문경 모전·포항 학산·경산 백천·상주 냉림 등 이 지역 5개 복지관 실무자들은 2월24일 금오사회복지관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10일 백천사회복지관에서 '경북불교사회복지관협회'를 발족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정보교류 및 지역의 불교복지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우리는 선우 올사업 확정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2월19일 정기총회를 열어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 4억3천만원을 확정했다.

2000년 사업으로는 6차에 걸친 선우비전 트론회, 가족봉사활동의 일환인 장애인 나들이 행사, 캠프교사 집체교육, 청소년 여름 문화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는선우의 신임이사에는 배창준(계성실업대표),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이수복(사업가), 황남채(관화가)씨 등 4명이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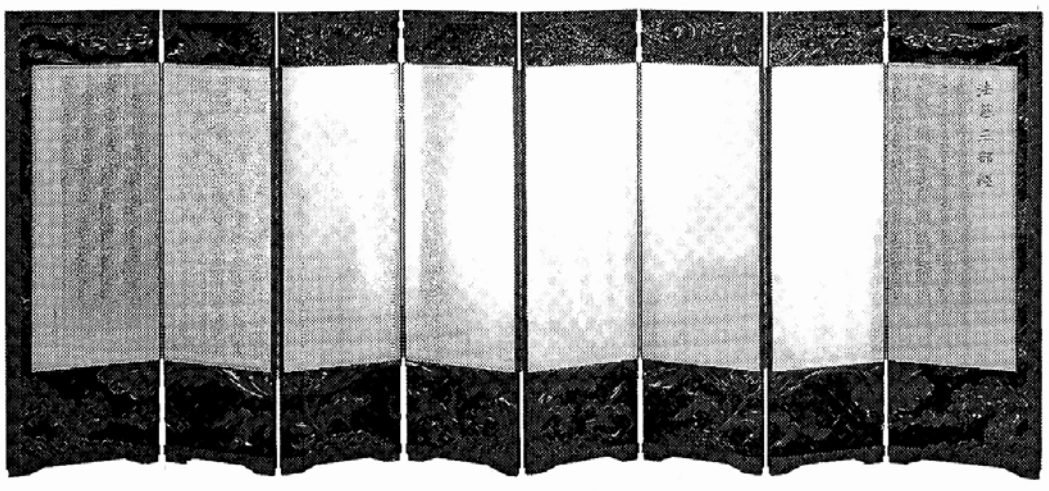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낳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관음종 총무원장상)

정토에 가세요

김 송 연 〈광주시 동구 소태동〉

1년 넘게 병석에서 암과 투병하시던 엄마가 돌아가신지 8일이 되었다. 지난주 수요일에 돌아가셔서 3일 전에는 초재를 지냈다. 지난해 9월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서울대병원과 단국대병원에서 두 번의 척추 수술을 받고 이후 주욱 집과 대학병원을 오가시며 병마와 싸워오셨다.

하루만 일을 해도 덩치 큰 장정들이 맥을 못쓰고 나가 떨어지는 2만평이 넘는 감밭 농사를 혼자 지으시면서도 2-3시간 겨우 눈을 붙이시고 전국의 공판장으로 도매일을 하러 다니셨다. 그러면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억척스런 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늘을 원망했었다.

25년전 어린 자식 다섯을 두고 무책임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그 모든 짐이 엄마에게 떠넘겨졌지만 엄마는 한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입밖에 낸 적이 없다. 그 가난한 살림살이에서도 절에는 열심히 다니셨다. 매년 천도재 지내드리고 가족수마다 촛불 켜놓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어질게 사셨는데……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좀가분하게 살 만 하니까 말기암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60 평생 죽어라 고생만 하시던 엄마의 몸뚱아리에 무슨 훌륭한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암이 들러붙어 당장 죽여버릴 것처럼 단단히 옥죄어두고 그렇게 불쌍한 한 인간을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다니……

엄마에게 병이 나자 나는 저절로 부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이 스물아홉에 양친부모 다 데려가 버리시면 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세상에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큰 죄값을 받는게 우리 엄마여야 하느냐고.

설령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순간에 목숨을 끊어 버리시지 죽을 고비는 왜 그렇게 많이 주셔서 못난 자식들 가슴에 그리 큰 대못을 박으시냐고. 엄마 빨리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평생 부처님 원망하며 살거라고.

엄마가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바락바락 소리를 쳐대며 부처님 같은 건, 그 원력의 은혜로움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비웃어 댈거라고…

엄마 앞에서는 다 잘 될거라, 나을거라 위로를 해드리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르서는 점점 죽음의 늪으로 빨려드는 엄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처음엔 엄마가 무조건 살아계셔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평생을 닝겔만 맞으며 살아가신다 할 지라도 내 곁에서 극진한 병간호를 받으며, 효도를 누우셔서나마 받아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다였다.

그래서 엄마가 약만 먹어도 컥컥 토해내는 토사물도 더럽다 생각않고 치워드리고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기저귀가 행여 엄마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까, 섬유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장운동을 할 수 없는 환자 몸이라 항문가득 딱딱한 덩어리가 빠져 나오지 않아 항문 맛사지를 해가면서 둘덩어리 같은 대변이 항문을 찢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엄마가 행여 민망해 하지는 않을까 무척이나 신경을 썼는데 그런 자식의 정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는 점점 이 세상 사람의 껍질을 벗겨내고 계셨다.

96년 가을부터 오빠의 소개로 한마음 선원 공주지원에 다니면서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내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주기 시작한 것이다. 주머니를 비워내도 마음은 채워지기 시작했고, 다소 상부적이고 타인의 눈을 의식해 곰곰하게 규정지었던 인생의 틀도 조금씩 허물어뜨려 가고 있었다. 남도 다름아닌 나라는 동일감이-다소 낯선감이 아주 사라지진 않았지만- 자츰 내 자신을 세상밖에 꺼내놓고 무슨 색깔에 갖다 대어도 어울릴 수 있는 자유로운 백채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오빠는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반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나에게는 올케이기 전에 훌륭한 도반이다. 올케는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엄마 때문에 토요일마다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 똥기저귀에 토사물을 치워야 하는 처지였지만 한 번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늘 웃는 낯이었다. 몸이 녹아나도록 정성껏 병수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큰스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살아가는 생각이 짧은 중생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지광이가 되는지 감탄을 하게 된다.

엄마가 아프신 이후로 난 절에도 못 다니고 병수발을 하느라 마음이 참 가난해졌다.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엄마를 보며 난 조금씩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올바른 방식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때 나에게 올바른 깨우침을 주었던 건 역시 새언니의 지극한 믿음이었다.

하루는 내가 관(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딱 잘라서 "그것은 지극히 관을 한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나 포기한 것이다"며 따끔한 일침을 놓는 것이었다. 정말로 엄마가 몸을 벗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것마저 그 자리에 놓고 오로지 주인공에게 맡겨두고 관해야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새언니도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살려보기 위해 거기에 착(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큰스님을 친견하고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 착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아파하셨나 보다고 자신의 짧은 믿음을 자책하고 있었다. 이제는 마음을 한데 모아 고통없이 몸을 벗게 해드리는게 최고의 효도인 것 같다고, 오로지 그 자리에 맡겨두고 관을 한다고 했을 때 일순간 나는 언니의 믿음에 질투를 느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렇게 깨달음이 늦을까?

내 멋대로, 내 색깔대로 편하게 공부하느라 생각이 많이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는 며칠간 처음 선원에 나갔던 그 초발심으로 관하기 시작했다. 틈이 촘촘한 체에다 엄마에 대한 미련과 착을 잘 걸러내가고 있던 어느날, 기저귀를 갈아드리던 중 엄마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셨다.

"송연아!"

"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고것이 아니고… 후우, 인자 징글징글하다"

"뭐가요?"

"요렇게 사는 것이."

"… 요렇게 사는게 뭔데요?"

"우리 금쪽같은 새끼들 죽어라고 쿠게 키워놓고 다 고생시킴서 내가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라고 죽지도 않고 억지로 살아갈까 싶어서야."

"… 그럼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엄마는 60평생 죽어라 고생은 했지만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다 잘되고… 아파서 그렇지 그것도 못해보고 젊어서 죽은 사람보담은 덜 억울하시죠?"



그림 · 이준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덜 수 있도록 나는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헌옷 벗고 새옷 입는게 죽음이라…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49일동안 제가 불공 많이 드릴 테니까 행여 나쁜 곳으로 빠지지 마세요

"그라기야 하제… 그래도 억울하다. 왜 안글캤나, 나도 사람인디, 부처님한테 나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맨날 빈다."

"그러세요?… 그래요, 엄마도 지겹기도 하실거예요."

"죽으면 나비되어서 세상 천지를 훨훨 날아다닐란다."

"나비만 날아다니나요? 천사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세요. 엄마 날개는 참 따뜻할 거예요. 자식들이 힘들어 하고 외로워할 때 두 날개로 꼬옥 안아주세요."

"내가 천사가 된다고야?"

"그럼요, 엄마는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대하셨잖아요. 많이 아프셨으니까 부처님이 적어도 천사로는 만들어 주셔야지요. 아님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제가 못다한 효도 다 받으시던지요."

"니가 속 썩인거 다 갈니라고 마음고생 시키면 어찌라고?"

"엄마 똥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고소하게 끼니마다 누룽지 만들어 드린 것 생각해서 많이 속썩이진 마세요."

"그라믄 그냥 천사할란다."

"하하…, 그러세요, 엄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엄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헌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는게 죽음이라 전혀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거라고…… 죽음을 눈앞에 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여유를 부리며(?) 다음 세상을 기대해 보는 것도 큰스님의 원력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일 것이다.

처음엔 마음이 여유로와지는 것만으로도 선원과 인연맺은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아프신 엄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느라 오랜 시간동안 알게 모르게 믿음이 깊어진 것 같다.

돌아가시기 3일전 아침, 엄마는 병실에 혼자 남은 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는 우시면서 말했다. "송연아, 나중에 큰스님 찾아 뵙고 박사님(엄마가 다니시던 절을 지으신 스님) 찾아뵙고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려라."

"뭘요?"

"그제 내가 그렇게 아파서 잠을 못 잔 것이 불쌍했는지 큰스님이 나를 밤새 지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는 오랜만에 깊이 많이 잤다."

"그러세요."

"내 침대 주변에 온통 약 넝쿨이 둘러싸고 있다. 큰스님이 아프지 말라고 밤새 내내 지켜주시고 약초를 캐다 주시드라. 내가 뵛이라도… 다른 절에 다니느라 큰스님을 실상 믿지도 않았는디… 다 니 덕분이다. 고맙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엉엉 우셨다.

그 꿈을 곰곰히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여쭈었다.

"그럼 엄마,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되든 다 부처님 뜻이라고 원망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라믄! 인자 몽땅 맡겨놓고 하나도 원망 안할란다."

"그래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받아들이시는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거죠. 만약에 엄마 돌아가시면 49일동안 제가 선원에서 엄마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불공 많이 드릴거니까 행여 나쁜 곳으로 빠지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 고맙다. 너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에 관한 단어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며칠 후 선원에 잠깐 가서 엄마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지극한 마음을 내던 그 시간 엄마는 몸을 벗으셨다.

그간의 가슴아픈 시간들도 참 감사하고, 엄마가 곁에 있지 않아도 좋은 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실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도 감사하다. 내 자신도 그 큰 공부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게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원망했어도- 단 며칠 간이었지만 - 벼락을 내리지 않으신(?) 부처님의 너그러움에도 감사하고, 선원에 못 가도 새언니, 오빠를 통해 흐트러짐 없이 마음공부를 하게된 것에도 감사드린다.

엄마가 부디 정토에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탑돌이등, 제등행렬용등도 있습니다.



※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 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 등을 보급합니다.

· 이제 사찰의 법당용 비단 등을 항상 새 등으로 등 공양을 올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 등 연 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종류〉 · 사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등 통이 있는 경우- 비단 연 잎
· 사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등통이 없는 경우 - 등통+ 비단 연 잎
· 1-3년 후 등 통만 있으면 비단 연 잎으로 새 공단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연등규격(지름)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 053)426-3395~6